2013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

2013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백서




COREA

2013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백서

2013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

편집 / 호경윤
정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탁영준
감수 / 김승덕
디자인 / 박상희
발행일 / 2014년 1월 20일
발행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
전화 / 02-760-4749

Arts Council Korea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 및 글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승인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비 매 품]

목차

Ⅰ. INFORMATION / 008

1. 2013 베니스비엔날레
   1) 개요
   2) 수상 내역

2. 2013 한국관
   1) 개요
   2) 커미셔너
   3) 작가
   4) 전시 크레딧
   5) 일별 관객 수
   6) 감사의 말

Ⅱ. MANUAL / 030

1. 운영
   1) 한국관 운영규정
   2) 커미셔너 매뉴얼
   3) 커미셔너 계약서
   4) 전시추진단 명부
   5) 전시추진단 정관
   6) 한국관 도면
   7) 보수 공사 견적비 비교 내역
   8) 스태프 티셔츠 도안

2. 개막
   1) 국가관별 개막식 일정
   2) 한국관 프리오프닝 기간 일정
   3) 개막식 초청자 명단
   4) 디너 파티
   5) 디너 파티 초청자 명단

3. 홍보
   1) 웹사이트
   2) 도록 및 리플릿
   3) 영상
   4) 기념품: 가방, 신발주머니
   5) 대언론홍보: 한국 기자단, 보도자료
   6) 유료 광고

Ⅲ. FEEDBACK / 092

1. 언론 보도
   1) 국내 방송 및 일간지 기사 모음
   2) 국내 미술전문지 기사 모음
   3) 해외 기사 모음

2. 평가
   1) 자체 평가 요약
   2) 관객대상 설문결과

Ⅳ. SYMPOSIUM / 112

Curator's Talk: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오늘과 내일

인사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ARKO)는 1995년 한국관(The Pavil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을 건립한 이후 지금까지 9번의 미술전과 8번의 건축전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미술전의 경우 국가관을 건립한 1995년부터 연속 3회에 걸쳐 한국 작가 전수천, 강익중, 이불이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미술계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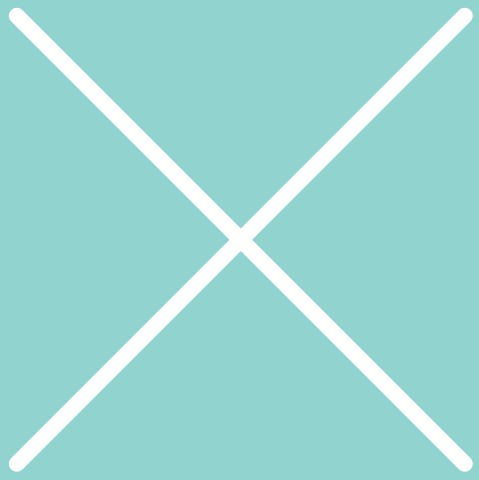
2013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관 자체를 소재로 삼아 한국관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며, 이 전시를 통해 한국관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래 전부터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김승덕 커미셔너와 김수자 작가를 모신 덕분에, 전시는 물론 한국관 운영 전반에 걸쳐 이전에 비해 전문성과 예술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베니스 현지에서 전시를 개최하는 것 외에도 폐막 후 한국에서 성과를 공유하고 담론을 확장시키는 심포지움을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관의 현황과 비전을 동시에 조망하는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백서가 향후 더 좋은 한국관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를 맡아주신 김승덕 커미셔너와 김수자 작가, 그리고 전시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스태프와 스폰서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 뜨거운 애정을 보내 주신 국내외 미술 전문가 및 관람객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미술이 세계에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01



INFORMATION

1

2013
베니스비엔날레

1) 개요

장소 이탈리아 베니스 아르세날레(Arsenale), 자르디니(Giardini) 외 시내 각지
기간 2013년 6월 1일~11월 24일(총 177일)
예술감독 마시밀리아노 지오니(Massimiliano Gioni)
전시 주제 백과사전식 궁전(Encyclopedic Palace/ Il Palazzo Enciclopedico)
입장객 수 475,000여 명(청소년 및 학생이 31.75% 차지, 지난 행사 대비 총 8% 증가)
방문 기자 수 7,110명(이탈리아 국내언론 2,455명/ 해외언론 4,655명,
지난 행사 대비 총 56% 증가)
참여 작가 수 38개 국가 출신 총 161명
참여 국가 수 총 88개국
신생 참여 국가 수 총 10개국(앙골라, 바하마, 바레인, 코트디부아르, 코소보, 쿠웨이트,
몰디브, 파라과이, 투발루, 바티칸 시국)
콜래터럴 이벤트(Collateral Events) 총 47개(지난 행사 대비 총 10개 증가)
입장료 일반: 25유로(전시 기간 중 아르세날레와 자르디니 각각 1차례씩만 관람)
스페셜 2일: 30유로(연속 이틀간 아르세날레와 자르디니 수시 관람)
할인: 22유로(베니스 카드, 롤링 베니스 카드, 바포레토 델아르테 티켓 소유자 등) /
20유로(만 65세 이상, 군인, 베니스 거주자, 제57회 국제현대음악제 /
제42회 국제연극제 티켓 소지자 등) / 15유로(골드 혹은 플래티넘 비엔날레 카드
소지자) / 14유로(학생 및 만 26세 미만) / 50유로(어른 2명+14세 미만 청소년2명)
단체: 성인 15유로 / 중등학생 10유로 / 대학생 12유로(최소 10명, 예약 필수)
자유이용권: 성인 80유로 / 학생 및 만 26세 미만 50유로 / 베니스 거주자 50유로
무료: 만 6세 이하, 장애인 동반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초등 및 중등학교



2) 수상 내역

시상식 개최 2013. 6. 1(토) 11시 자르디니 중앙전시관 앞

심사위원

① 제시카 모건(Jessica Morgan, 심사위원장, 영국 테이트미술관 큐레이터)
② 소피아 에르난데스 총 커이(Sofia Hernandez Chong Cuy, 전 남미비엔날레 감독)
③ 프란체스코 마나코르다(Francesco Manacorda, 테이트리버풀 예술감독)
④ 비시 실바(Bisi Silva, 나이지리아 현대미술관 관장)
⑤ 알리 서보트닉(Ali Subotnick, 미국 해머미술관 큐레이터)

시상결과

구 분	국가관	개인 작가
황금사자상	앙골라(Angola)	티노 세갈(Tino Sehgal, 영국, 1976년생)
은사자상	-	카미유 앙로(Camile Henrot, 프랑스, 1978년생)
특별언급	① 키프로스(Repblic of Cyprus)와 리투아니아(Lithuania) ② 일본(Japan)	① 셰런 헤이즈(Sharon Hayes, 미국, 1970년생) ② 로베르토 코기(Roberto Cuoghi, 이탈리아, 1973년생)
평생공로상	-	① 마리아 라스닉(Maria Lassnig, 오스트리아, 1919년생) ② 마리사 메르스(Marisa Merz, 이탈리아, 1926년생)

※ 베니스비엔날레 시상제도
- 황금사자상 국가관상
- 황금사자상 개인작가상: 주제관에 초청된 작가를 대상으로 시상
- 은사자상: 주제관에 초청된 젊은 작가를 대상으로 시상
- 특별언급(국가관, 작가): 최근 생겨난 것으로, 별도 트로피나 인사말 없이 호명
- 평생공로상: 당 해년도 전시와는 관계없이 베니스비엔날레 재단회장, 이사회, 전시 총감독이 결정
- 특별상: 시상여부 해마다 다름 / '95, '97, '99 한국관 수상

앙골라관(국가관 황금사자상)

• 앙골라관 개요
  - 전시주제: 루안다, 백과사전식 도시(Luanda, Encyclopedic City)
  - 커미셔너: 앙골라공화국 문화부
  - 큐레이터: 비욘드 엔트로피(Beyond Entropy; Paula Nascimento, Stefano Rabolli Pansera), 조지 검블(Jorge Gumbe)
  - 초대작가: 에드슨 샤가스(Edson Chagas)
  - 전시장 위치: Palazzo Cini, Dorsoduro 864(아카데미아 미술관 근처)
• 앙골라관 전시 특징
  - 르네상스 베니스 화파의 성모상이 가득 걸린 전시장 도입부에 내전·개발로 몸살을 앓는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의 폐허를 담은 포스터를 쌓아두고 관객들이 이를 집어가게 했음
  - 영국에서 보도사진을 공부한 사진작가 에드슨 샤가스의 작품 인쇄물을 전시
  - 수도 루안다의 버려진 물건들 및 앙골라의 다양한 이미지를 만화경처럼 포착한 사진을 전시
  - 국가관으로 처음 출전한 앙골라관이 이례적으로 황금사자상을 수상
  - 자르디니나 아르세날레가 아닌 아카데미아 미술관 주변 별도건물에 전시관 설치
  -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의 주제인 〈백과사전식 전당(The Encyclopedic Palace)〉을 해석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전시
  - 심사평 : 특정장소의 화해불능과 복잡성을 함께 반영한 큐레이터와 작가의 수준 높은 작업이 인상적임(for the curators and artist who together reflect on the irreconcilability and complexity of site)

키프로스와 리투아니아(특별언급)

• 키프로스와 리투아니아관 개요
  - 전시주제: Oo(키프로스), oO(리투아니아)
  - 커미셔너
    · 키프로스: Louli Michaelidou(영국왕립예술학교 교수)
    · 리투아니아: Jonas Zokaitis, Aurime Aleksandraviciute
  - 큐레이터: Raimundas Malasauskas(리투아니아, 빌니우스현대미술관 큐레이터)
  - 초대작가
    · 키프로스: Lia Haraki, Maria Hassabi, Phanos Kyriacou, Constantinos Taliotis, Natalie Yiaxi, Morten Norbye Halvorsen, Jason Dodge, Gabriel Lester, Dexter Sinister, Myriam Lefkowitz(총 10명)
    · 리투아니아: Gintaras Didziapetris, Elena Narbutaite, Liudvikas Buklys, Kazys Varnelis, Vytaute Zilinskaite, Morten Norbye Halvorsen, Jason Dodge, Gabriel Lester, Dexter Sinister, Myriam Lefkowitz, Algirdas Seskus(총 11명)
  - 전시장 위치 : Palasport Arsenale, Castello
• 키프로스와 리투아니아관 전시 특징
  -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2개 국가가 아르세날레 본전시장 근처의 실내농구장 건물을 임대하여 하나의 전시를 꾸몄음
  - 양 국가의 커미셔너는 다른 인물로 임명되었으나, 큐레이터를 동일인(Raimundas Malasauskas)으로 선정하여 전시의 통일성을 기함
  - 총 21명의 작가가 참여(키프로스 10명, 리투아니아관 11명)하였으나, 이중 5명(Morten Norbye Halvorsen, Jason Dodge, Gabriel Lester, Dexter Sinister, Myriam Lefkowitz)의 작가가 양국 동시에 참여하여 실제 16명의 작가가 참여

- 이 전시도 앙골라관과 같이 농구 관련 그림이나 형이상학적 도식이 적힌 A4 사이즈의 복사물을 전시장 바닥에 쌓아두고 관객들이 원하는 사본을 봉투에 담아가도록 전시를 꾸몄음
- 농구선수 복장을 입은 사람의 사진을 벽에 걸어 두는 전시도 동시에 진행
- 심사평: 동일한 경험을 가진 두 국가를 하나의 전시형식으로 묶는 참신함(for an original curatorial format that brings together two countries in a singular experience)

일본관(특별언급)

• 일본관 개요
  - 전시주제: 추상적인 이야기(abstract speaking - sharing uncertainty and collective acts)
  - 커미셔너: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 큐레이터: 미카 쿠라야(Mika Kuraya, 동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 초대작가: 코키 다나카(Koki Tanaka)
  - 전시장 위치 : 자르디니 공원 내 위치
• 일본관 전시 특징
  - 일본관은 작년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던 전시에 쓰인 목조구조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
  - 2011년 일본 쓰나미 피해와 관련된 물품을 전시에 사용
  - 참여 작가인 코키 다나카는 최근 몇 년간 인간들 사이 발생하는 관계에 대한 주제로 작품 활동 중
  - 참여 작가는 특정 그룹의 사람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고 그들의 공동 작업을 비디오와 사진으로 촬영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
  - 심사평: 공동작업과 실패라는 사안에 대한 가슴 아픈 반영(for the poignant reflection on issues of collaboration and failure)

티노 세갈(개인작가 황금사자상)

• 작가: 티노 세갈(Tino Sehgal, 영국, 1976년생)
  - 2001년 스톡홀름 현대미술관(Modern Museet)에서 55분간의 현대무용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 각광받은 후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고 작품 활동 중
  - '행위' 자체를 미술작품으로 발표하며 일체의 기록을 거부하는 예술가로 유명
• 작품명: 무제(Not Yet Titled, 2013)
• 전시 특징
  - 티노 세갈은 몇 명의 사람들이 복도를 이동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비트박스를 하는 퍼포먼스로 황금사자상 수상
  - 심사평: 훌륭하고 혁신적인 그의 작업들이 예술적 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음(for the excellence and innovation that his practice has brought opening the field of artistic disciplines)

카미유 앙로(개인작가 은사자상)

• 작가: 카미유 앙로(Camile Henrot, 프랑스, 1978년생)
  - 1978년 파리 출생. 현재 파리에서 거주 및 작업 중 2005년 첫 개인전을 가진 이래 프랑스 각지를 중심으로 활동했음
  - 2012년 필라델피아 슬라우트재단(Slought Foundation)에서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3년과 2014년 사이 볼티모어미술관(Baltimore Museum of Art), 메릴랜드미술대학겨교(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슬라우트재단(Slought Foundation) 등 미국 내에서만 5회의 개인전을 준비 중

- 2012년 ISCP(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 미국 뉴욕), 2013년 스미소니언작가연구협력(Smithsonian Artist Research Fellowship, 미국 워싱턴) 레지던스 참여
- 카멜 메누르(Kamel Mennour) 갤러리 전속. 상세 내역은 홈페이지 참고 (www.kamelmennour.com/artists/6/camille-henrot.html)

• 작품명: 지독한 피로(Grosse Fatigue, 2013)
• 전시 특징
- 3분 54초 분량의 비디오 작품
-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에 대한 작가 해설 (http://www.youtube.com/watch?v=MYycsJz8vtc)
- 심사평: 현시대를 포착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감각적이고 능동적인 새로운 작업 (for contributing a new work that in a sensuous and dynamic manner is able to capture our times)







la Biennale di Venezia
55. Esposizione Internazionale d'Arte

la Biennale di Venezia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Il Palazzo Enciclopedico (The Encyclopedic Palace)

The International Jury has been appointed

Venice, May 13 2013 - The **International Jury** of the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June 1 – November 24 2013) has been appointed. The decision has been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la Biennale di Venezia,** chaired by **Paolo Baratta**, following the proposal of Director **Massimiliano Gioni**.

The **International Jury** is composed as follows:

Sofía Hernández Chong Cuy (Mexico), **Francesco Manacorda** (Italy), **Jessica Morgan** (Great Britain), **Bisi Silva** (Nigeria), **Ali Subotnick** (United States)

Jessica Morgan has been nominated as President of the Jury.

The International Jury will attribute the following prizes:

Golden Lion for best National Participation;
Golden Lion for best artist in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Il Palazzo Enciclopedico*** *(The Encyclopedic Palace)*;
Silver Lion for a promising young artist in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Il Palazzo Enciclopedico*** *(The Encyclopedic Palace).*

The **awards ceremony** will take place during the official opening of the Exhibition, **Saturday, June 1**, 2013, at **11 am** at the Giardini of la Biennale.
The exhibition will be open to the public from 10 am.

For further information
Visual Arts Press Office
la Biennale di Venezia
Tel. +39 041 5218 – 849/846/716
infoartivisive@labiennale.org - www.labiennale.org
Facebook: *La Biennale di Venezia*
Twitter: *la_Biennale*

Biographical notes

Sofía Hernández Chong Cuy
Sofía Hernández Chong Cuy is the chief curator of the 9a. Bienal do Mercosul in Porto Alegre, Brazil and curator for contemporary art of the Colección Patricia Phelps de Cisneros in New York and Caracas. She has been director of the Museo Tamayo in Mexico City, curator of Art in General and of Americas Society, both based in New York.

Francesco Manacorda
Recently appointed Artistic Director of Tate Liverpool, Francesco Manacorda has previously been Director of Artissima, Turin and curator at Barbican Art Gallery, London. He has also curated the Slovenian pavilion at the 52nd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and the New Zealand pavilion at the 53rd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of la Biennale di Venezia

Jessica Morgan
Jessica Morgan is Daskalopoulos Curator, International Art, at Tate in London. She has organised numerous group and solo exhibitions for Tate Modern in London and was Chief Curator at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in Boston. Morgan has published in art journals such as *Parkett* and *Artforum.*

Bisi Silva
Bisi Silvia is an independent art curator and is founder and Director of the Centre for Contemporary Art in Lagos, Nigeria. She was co- curator of the 7th Dakar Biennale and of the 2nd Thessaloniki Biennale of Contemporary Art, Greece. Silva writes for international art magazines and journals including *Agufon, Artforum, Art Monthly, Metropolois M, Untitled,* and *Third Text,* and she is in the editorial board of *N. Paradoxa,* international journal of feminist art.

Ali Subotnick
Ali Subotnick is curator at the Hammer Museum in Los Angeles, recently she has co-curated the first edition of Los Angeles Biennale, *Made in L.A 2012.* In the past she has co-curated the 4th Berlin Biennal for Contemporary Art with Massimiliano Gioni and Maurizio Cattelan. Subotnick has written about art and culture for *Frieze, Parkett, ARTnews,* and *ArtReview* among other publications.

2

2013
한국관

1) 개요

작가 김수자
제목 호흡: 보따리(To Breathe: Bottari)
출품작 〈호흡: 보따리〉 회절격자 필름, 알루미늄 거울 패널 2013
〈더 위빙 팩토리(The Weaving Factory)〉 작가의 목소리 퍼포먼스 사운드 5.1채널 9분 14초 연속재생 2004~2013
〈호흡: 정전〉 빛이 완전히 차단된 무반향실 2013
커미셔너 김승덕
주최 및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베니스비엔날레는 각 나라를 위해 세워진 국가관에 그 나라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통을 유지해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 베니스비엔날레는 엑스포와도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나는 이번 전시를 한국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했으며, 한국 출신 작가를 초대하여 이 국가관에 특별한 환경을 디자인해 보도록 기획했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건물은 유리창과 메탈로 이루어져 있고, 전면에 위치한 빛이 찬란한 라군(lagoon)을 향해 개방된 구조이며, 커다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다. 초대작가로 나는 김수자를 선택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스스로 미국으로의 예술적 망명을 선택한 김수자는 그간 비디오와 설치작업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은 작가이다. 그녀는 한국관을 변형하여 관람객이 새로운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그것은 빛과 색들로 이루어진 순간의 경험, 그리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여행이다."
– 김승덕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보따리 개념, 그리고 바느질이라는 개념은 지난 30년간 김수자 작업의 핵심을 이루어왔다. 회화, 조각, 오브제, 설치의 형식적인 틀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김수자의 보따리는 이불보를 하나의 삶의 프레임으로써 설정하여 그를 싸고 펼치면서 신체, 자아와 타자, 그리고 생과 사, 음양의 관계에 대한 제반 문제들을 제기해왔다. 또한 보따리는 장소와 전이, 이주, 망명, 그리고 전쟁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질문하면서 시공간 내에서의 실존적이고도 인지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김수자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건물을 이러한 보따리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자연과 실내공간이 나누어지는 경계지점은 반투명 필름으로 싸여지는데, 작가는 유리창의 투명성을 한국관의 건축적 피부로써 접근하고 있다. 유리창의 접점을 통해 실내 공간에 도달하는 자연광은 반투명한 필름 설치로 인해 무지개색의 빛의 스펙트럼으로 회절된다. 내부의 빛의 강도는 베니스 라군 측면에 위치한 한국관을 관통하여 뜨고 지는 태양의 하루의 움직임에 전적으로 좌우되며,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다채롭게 변화할 것이다. 인공조명을 전혀 설치하지 않게 될 한국관은 빛의 시지각적 현상을 펴고 접는 팔레트로서, 초월적인 경험의 공간으로 변모될 것이다.

〈호흡: 보따리〉는 오직 빈 공간으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그들의 신체는 공간 속에 들어와 빛과 소리의 무한한 반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들이쉬고 내쉬는 작가의 숨소리로 이루어진 사운드 퍼포먼스 〈더 위빙 팩토리〉가 전시의 공간을 채우며 끝없는 빛의 굴절과 반사를 통해 한국관을 무한 확장하며 하나의 숨 쉬는 보따리로 바꾸어놓을 것이다. 또한 김수자는 무반향실을 연계된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빛과 사운드의 경험을 증폭시킨다. 완전한 암흑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은 모든 음파를 흡수하여 관람객의 신체에서 나는 숨소리나 자신의 혈액의 순환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겨 놓지 않는다. 〈호흡: 정전〉은 하나의 블랙홀로서, 절대 어둠과 절대 무음 속에서의 극대화 된 몸과 마음에의 인식과 센세이션, 또 자아와 타자에의 무한히 확대된 질문을 던진다.

김수자의 한국관 설치는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관객이 적극적인 퍼포머가 되도록 유도한다. 그들은 빛과 어둠, 소리와 정적, 그리고 시각적 지식과 시각적 무지가 극명하게 대비된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감각과 인식을 새롭게 곤두세우게 될 것이다. 김수자의 설치작업은 시각적 지식을 하나의 '아는' 현상으로서, 그리고 어둠을 인간의 '모르는' 대상으로서, 즉 '무지'에서 비롯된 인간의 인식체계와 감각체계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두 개의 극단은 하나로서, 즉 전체의 일부로서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베니스비엔날레의 한국관은 인간과 현대문명의 제반 조건에 문제를 제기하는 신체와 정신의 성역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Photo by Jaeho Chong





2) 커미셔너
/
김승덕

김승덕은 1984년 2월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프랑스문화사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0년 5월 뉴욕 헌터대학교(Hunter College)에서 미술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8년 10월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e Paris 1-Pantheon-Sorbonne)에서 미술사 전공으로 D.E.A.(박사학위 준비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문화재단(현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베니스 및 파리 주재 컨설팅 큐레이터로 일했다. 또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 간 파리 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 컬렉션 부서의 협력큐레이터로 근무했다.

1977년에 설립된 르 콩소르시움은 프랑스 디종에 기반을 둔 컨템포러리 아트센터로, 장르를 가로지르는 전시를 만드는 기획 사무실은 물론 출판사 '레 프레스 뒤 레알(Les Presses du Reel)', 영화제작사 '안나 산더스(Anna Sanders Films)'를 아우르고 있다.

2001년부터 르 콩소르시움에서 자비에 두루(Xavier Douroux), 프랑크 고트로(Franck Gautherot), 에릭 트롱시(Eric Troncy)와 함께 프로젝트 디렉터로 일했으며 2011년 이후 안 퐁테니(Anne Pontegnie), 스테판 무아동(Stephanie Moisdon)이 함께 멤버로 들어와 6명이 공동 디렉터직을 맡고 있으며 국제 프로젝트 아시아 부서 디렉터를 겸하고 있다. 2011년 10월부터 파리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프로그래밍 외부 전문 위원이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도하(카타르)의 도시발전 공공예술 전략 사업에서 르 콩소르시움과 함께 프로젝트 디렉터 및 아트 컨설턴트를 맡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18년 완성될 예정이다.

주요 전시 기획 경력

2013
김수자 〈호흡: 보따리(To Breathe: Bottari)〉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탈리아 베니스)

2011
유르겐 텔러 〈유르겐 텔러: 터치 미(Jurgen Teller: Touch me)〉 대림미술관(대한민국 서울)

2010
린다 벵글리스 〈린다 벵글리스(Lynda Benglis)〉 르 콩소르시움(프랑스 디종), 반 아베 미술관(Van Abbe Museum,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아일랜드현대미술관(Irish Museum of Modern Art, 아일랜드 더블린), 로드아일랜드디자인학교미술관(The Museum of Art,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미국 프로비덴스), 뉴뮤지엄(New Museum,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미국 로스앤젤레스) 순회 전시

2008
쿠사마 야요이 〈쿠사마 야요이: 미러드 이어(Yayoi Kusama: Mirrored Year)〉 보이만스 반 뵈닝겐 미술관(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드니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Sydney,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웰링턴시립미술관(City Gallery Wellington, 뉴질랜드 웰링턴) 순회 전시
온 카와라 〈온 카와라: 순수한 의식(On Kawara: Pure Consciousness)〉 10개 유치원 프로젝트 시리즈 중 하나, 용화사(龍華寺) 용화유치원(대한민국 통영)

2007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대한민국 안양)
쿠사마 야요이 〈쿠사마 야요이: 점 강박-점으로 변한 사랑(Yayoi Kusama: Dots Obsession-Love Transformed into Dots)〉 하우스 데어 쿤스트(Haus der Kunst, 독일 뮌헨)
〈유연성의 금기: 한국 동시대 미술 세계 내에서(Elastic Taboos: Within the Korean World of Contemporary Art)〉 쿤스트할레 빈(Kunsthalle Wien, 오스트리아 빈)

2006
얀 페이밍 〈엑시큐션: 얀 페이-밍의 전시(Execution: Exhibition of Yan Pei-Ming)〉 생테티엔현대미술관(Saint-Etienne Museum of Modern Art, 프랑스 셍테티엔)

2005
〈깊은 바다 속 물고기의 생각(Thoughts of a Fish in the Deep Sea)〉 발렌시아비엔날레(스페인 발렌시아)
〈도미실: 프리베/파블릭(Domicile: Prive/public)〉 생테티엔현대미술관(Saint-Etienne Museum of Modern Art, 프랑스 셍테티엔)

2004
〈플라워 파워(Flower Power)〉 릴 2004 전시 프로젝트, 유럽 문화 수도, 릴미술관(Palais des Beaux-Arts de Lille), 팔레 라모(Palais Rameau), 릴(프랑스)

2003
왕두 〈왕두: 일회용 현실(Wang Du: Disposable Reality)〉 로댕갤러리(대한민국 서울)

2000~2003
쿠사마 야요이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 르 콩소르시움(프랑스 디종), 일본문화회관(Maison de la culture du Japon, 프랑스 파리), 브란츠 클레데파브리크 미술관(Kunsthallen Brandts Klaedefabrik, 덴마크 오덴세), 레자바토와르(Les Abattoirs, 프랑스 툴루즈), 쿤스트할레 빈(Kunsthalle Wien, 오스트리아 빈), 아트선재센터(대한민국 서울, 경주) 순회 전시

2000~2001
김수자, 얀 페이밍 〈김수자 & 얀 페이 밍: 셀프 스케이프(Kimsooja & Yan Pei Ming: Self-scape)〉 브란츠 클레데파브리크 미술관(Kunsthallen Brandts Klaedefabrik, 덴마크 오덴세)

1995
〈아시아나: 극동 컨템포러리 아트(Asiana: Contemporary Art from the Far East)〉 벤드라민 칼레르지 궁전(Palazzo Vendramin Calergi, 이탈리아 베니스)
〈소형조각트리엔날레 1995: 유럽-동남아시아(Triennale Kleinplastik 1995: Europa-Ostasien)〉 수트베스트LB 포룸(SudwestLB Forum, 독일 슈투트가르트)

3) 작가 / 김수자

1957년 대한민국 대구 출생
뉴욕, 파리,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

주요 개인전 경력 및 장소특정적 프로젝트

2013
〈호흡: 보따리(To Breathe: Bottari)〉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탈리아 베니스)

2012
〈김수자: 호흡(Kimsooja: To Breathe)〉 국제갤러리(대한민국 서울)
〈김수자: 실의 궤적(Kimsooja: A Needle Woman)〉 국제갤러리(대한민국 서울)
〈김수자: 바늘 여인(Kimsooja: A Needle Woman)〉 마이애미미술관(Miami Art Museum, 미국 마이애미)
〈김수자〉 생테티엔현대미술관(D'Art Moderne de Saint Etienne 프랑스 생테티엔)
〈잔잔한 카오스: 김수자의 지-수-화-풍(Calm Chaos: Kimsooja's Earth-Water-Fire-Air)〉 페름현대미술관(Perm Museum of Contemporary Art, 러시아 펠름)
〈김수자〉 쿤스트할44모엔(Kunsthal 44 Moen, 덴마크 아스케비)

2011
〈김수자〉 대구미술관(대한민국 대구)
〈김수자〉 UMCA(Univers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미국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김수자, 뭄바이: 빨래터(Kimsooja, Mumbai: A Laundry Field)〉 시카고아트인스티튜트 설리번갤러리(Sullivan Gallery, School of the Institute of Chicago, 미국 시카고)

2010
〈지-수-화-풍(Earth-Water-Fire-Air)〉 NPPAP-국립현대미술관 주최 영광원자력발전소 아트프로젝트(대한민국 영광)
〈지-수-화-풍〉 아뜰리에에르메스(대한민국 서울)

2009
〈김수자: 바늘 여인〉 발틱현대미술관(Baltic Center for Contemporary Art, 영국 게이츠헤드)

2008
〈김수자, 로투스: 영의 지점(Kimsooja, Lotus: Zone of Zero)〉 로톤드 라벤스타인(Rotonde Ravenstein, BOZAR, 벨기에 브뤼셀)
〈김수자, 거울 여인: 해와 달(Kimsooja, A Mirror Woman: The Sun & The Moon)〉 시세이도갤러리(Shiseido Gallery, 일본 도쿄)

2006
〈김수자, 호흡-거울 여인(Kimsooja, To Breathe?A Mirror Woman), 레이나소피아미술관의 크리스탈팰리스(Crystal Palace, 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ia, 스페인 마드리드)
〈호흡(To Breathe/Respirare)〉 라 페니체극장, 폰다치오네 베비라콰 라 마사(La Fenice, Fondazione Bevilacqua La Masa, 이탈리아 베니스)
〈호흡: 보이지 않는 거울/보이지 않는 바늘(To Breathe: Invisible Mirror/Invisible Needle)〉 샤틀레극장, 뉘 블랑쉬 2006(Teatre du Chatelet, Nuit Blanche 2006, 프랑스 파리)
〈김수자〉 마가젱3(Magasin 3, 스웨덴 스톡홀름)

2005
〈김수자, 세계로의 여행(Kimsooja, Journey into the World)
아테네국립현대미술관(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thens, 그리스 아테네)
〈익명의 조건(Conditions of Anonymity)〉 퍼포먼스 59분 크리에이티브타임 타임스퀘어(Time Square, Creative Time, 미국 뉴욕)

2004~2003
〈김수자, 인간의 조건(Kimsooja, Conditions of Humanity)〉 리옹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Lyon, 프랑스 리옹), PAC(Padiglione d'Arte Contemporanea, 이탈리아 밀라노), 뮤지움 쿤스트 팔라스트(Museum Kunst Palast, 독일 뒤셀도르프) 순회 전시

2003
〈김수자〉 자헹타국립현대미술관(Zacheta National Gallery of Contemporary Art,

폴란드 바르샤바)
〈거울 여인-미지의 땅, 크로싱 2003: 하와이/코리아(A Mirror Woman-The Ground of Nowhere, Crossings 2003: Hawaii/Korea)〉 호놀룰루시청(Honolulu City Hall)에 장소 특정적 설치(미국 하와이)

2002
〈빨래하는 여인(A Laundry Woman)〉
쿤스트할레(Kunsthalle, 오스트리아 빈)

2001
〈바늘 여인〉 PS1현대미술센터/뉴욕현대미술관(P.S.1 Contemporary Art Center/MOMA, 미국 뉴욕)
〈바늘 여인〉 쿤스트할레 베른(Kunsthalle Bern, 스위스 베른)

2000
〈김수자-세상을 엮는 바늘(A Needle Woman-A Woman Who Weaves the World)〉 로댕갤러리(대한민국 서울)
〈바늘 여인〉 ICC(일본 도쿄)

주요 단체전 경력

2012
〈라운드 테이블(ROUNDTABLE)〉 제9회 광주비엔날레(대한민국 광주)

2011
〈스페이스 스터디(Space Study)〉 삼성미술관 플라토(대한민국 서울)
〈바람꽃: 자연의 인식(Windflower: Perceptions of Nature)〉 크롤레-뮐러미술관(Kroller-Muller Museum, 네덜란드 오텔로)
〈취약한 땅-성장하는 전시(Terre Vulnerabili-A Growing Exhibition)〉 항가르 비꼬까(Hangar Bicocca, 이탈리아 밀라노)

2010
〈빨리감기 2. 모션-미디어 아트 컬렉션 게츠의 힘(Fast Forward 2. The Power of Motion?Media Art Sammlung Goetz)〉 ZKM(독일 칼스루에)

2009
〈세계의 상태: 프랑수아 빠놀트 재단의 선택(Un certain etat du monde: Selection de la collection de la Fondation Francois Pinault)〉 현대미술창고센터(The Garage, 러시아 모스크바)
〈당신의 밝은 미래: 12 한국 작가(Your Bright Future: 12 Korean Artists)〉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미국 로스앤젤레스), 휴스턴미술관(Museum of Fine Arts, Houston, 미국 휴스턴) 순회 전시
〈제외에 대하여(Against Exclusion)〉 제3회 모스크바비엔날레, 현대미술창고센터(The Garage, 러시아 모스크바)

2008
〈거리 미술 거리 삶(Street Art Street Life)〉 브롱크스미술관(Bronx Museum of Art, 미국 뉴욕)

2007
〈아르템포: 시간이 예술이 되는 곳(ArTempo: Where Time Becomes Art)〉, 제52회 베니스비엔날레, 팔라조 포투니(Palazzo Fortuny, 이탈리아 베니스)

2006
〈예술의 끝까지 5일(Five Days Until the End of Art)〉 쿤스트할레 프리데리치아눔(Kunsthalle Fridericianum,독일 카셀)
〈캐스퍼 데이비드 프리드리히 낭만주의의 발명(Kasper David Friederich Die Erfindung Der Romantik)〉 폴크방미술관(Museum Folkwang, 독일 에센)

2005
〈항상 좀 더(Always a Little Further)〉 제51회 베니스비엔날레, 아르세날레(Arsenale, 이탈리아 베니스)
〈아트 서커스-평범으로부터의 점프(Art Circus-Jumping from the Ordinary)〉 요코하마트리엔날레 2005(일본 요코하마)

2004
〈퍼포먼스라고 부르지 마(Don't Call it Performance)〉 CACC(Centro Andaluz de Arte Contemporaneo, 스페인 세비야), 엘 뮤제오 델 바리오(El Museo del Bario, 미국 뉴욕), 레이나소피아미술관(Museo National de Arte Reina Sofia, 스페인 마드리드) 순회 전시
〈인라이트먼트(Enlightment)〉 쥬드폼(Jeu de Paum, 프랑스 파리)

4) 전시 크레딧

주최 및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Arts Council Korea)
베니스비엔날레 조직위원회(Foundazione la Biennale di Venezia)

커미셔너 및 큐레이터 / 김승덕(Seungduk Kim)

부커미셔너 / 호경윤(Ho Kyung-yun)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 막심 헤일른스(Mazime Heylens)

프로덕션 디렉터 / 프랑크 고트로(Franck Gauterot)
건축 컨설턴트 / 베르나르도 자바티니(Bernardo Zavattini)
사운드 엔지니어 / 장-필립 바두이(Jean-Philippe Badoui)
사운드 레코딩 및 믹싱 / 크리스티안 만주토(Christian Manzutto)
비디오 촬영 / 질스 코우델트(Gilles Coudert),
a.p.r.e.s 프로덕션(a.p.r.e.s Production)

김수자 스튜디오
커뮤니케이션 및 진행 / 수지 퀼리난(Susie Quillinan)
기술지원 / 그라함 맥나마라(Graham McNamara)
3D 및 건축 자문 / 정재호(Jaeho Chong)

설계 및 감리 수퍼바이저 / 김은정(Eun Jeong Kim)
방음실 / 장-필립 바두이
시공 / 피에로 모렐로(Piero Morello, 레스타우리 리오 마린, 베니스),
스테파노 솜마칼(Stefano Sommacal, 탑필름, 파도바)
사진 / 티에리 디파그니(Thierry Depagne)
웹 디자인 / 모임 별(Byul.org)

협찬 / 넥슨(NEXON Corporation)

후원 /
삼성문화재단(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송자인(Jain Song)

갤러리 후원 /
국제갤러리(Kukje gallery, 대한민국 서울)
라파엘라 코르테제 갤러리(Galleria Rafaella Cortese, 이탈리아 밀라노)
케비니히 갤러리(Kewenig gallerie, 독일 베를린 & 스페인 마요르카)
라 파브리카(La Fabrica, 스페인 마드리드)
갤러리 츄디(Galerie Tschudi, 스위스 추오츠)

5) 일별 관람객 수

2013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일 별 관람객 수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토	590	1	월	휴무일	1	목	870	1	일	985	1	화	1218	1	금	1059
2	일	687	2	화	1047	2	금	870	주중소계		985	2	수	1024	2	토	1090
주중소계		1577	3	수	981	3	토	920	2	월	휴무일	3	목	993	3	일	971
3	월	649	4	목	825	4	일	878	3	화	1234	4	금	1179	주중소계		3120
4	화	724	5	금	925	주중소계		3538	4	수	1170	5	토	1145	4	월	휴무일
5	수	574	6	토	990	5	월	휴무일	5	목	990	6	일	551	5	화	978
6	목	726	7	일	1056	6	화	1061	6	금	840	주중소계		6110	6	수	998
7	금	711	주중소계		5824	7	수	956	7	토	1400	7	월	휴무일	7	목	1007
8	토	700	8	월	휴무일	8	목	870	8	일	1140	8	화	930	8	금	1035
9	일	727	9	화	1081	9	금	960	주중소계		6774	9	수	971	9	토	1149
주중소계		4811	10	수	624	10	토	833	9	월	휴무일	10	목	953	10	일	1112
10	월	휴무일	11	목	855	11	일	870	10	화	1170	11	금	696	주중소계		6279
11	화	696	12	금	950	주중소계		5550	11	수	920	12	토	1104	11	월	휴무일
12	수	825	13	토	1003	12	월	휴무일	12	목	900	13	일	1083	12	화	1121
13	목	825	14	일	912	13	화	1115	13	금	1015	주중소계		5737	13	수	954
14	금	800	주중소계		5425	14	수	540	14	토	1126	14	월	휴무일	14	목	918
15	토	810	15	월	휴무일	15	목	1020	15	일	1057	15	화	1098	15	금	783
16	일	685	16	화	1080	16	금	1111	주중소계		6188	16	수	990	16	토	1194
주중소계		4641	17	수	1042	17	토	974	16	월	휴무일	17	목	992	17	일	1149
17	월	휴무일	18	목	907	18	일	871	17	화	1234	18	금	1075	주중소계		6119
18	화	935	19	금	965	주중소계		5631	18	수	1080	19	토	1057	18	월	693
19	수	836	20	토	1046	19	월	휴무일	19	목	939	20	일	1022	19	화	517
20	목	924	21	일	1028	20	화	1068	20	금	1086	주중소계		6234	20	수	862
21	금	836	주중소계		6068	21	수	1142	21	토	1114	21	월	휴무일	21	목	1029
22	토	895	22	월	휴무일	22	목	1009	22	일	1185	22	화	1008	22	금	1042
23	일	957	23	화	1050	23	금	1013	주중소계		6638	23	수	920	23	토	742
주중소계		5383	24	수	1056	24	토	930	23	월	휴무일	24	목	883	24	일	1011
24	월	휴무일	25	목	912	25	일	949	24	화	1215	25	금	872	주중소계		5896
25	화	924	26	금	901	주중소계		6111	25	수	1141	26	토	967	총계		21414
26	수	882	27	토	960	26	월	휴무일	26	목	1160	27	일	1022	일일평균		973
27	목	964	28	일	895	27	화	1158	27	금	1125	주중소계		5672			
28	금	840	주중소계		5774	28	수	1080	28	토	1249	28	월	휴무일			
29	토	1025	29	월	휴무일	29	목	1006	29	일	1100	29	화	966			
30	일	957	30	화	1024	30	금	1094	주중소계		6990	30	수	1023			
주중소계		5592	31	수	1009	31	토	1112	30	월	휴무일	31	목	1042			
총계		22004	주중소계		2033	주중소계		5450	총계		27575	주중소계		3031			
일일평균		815	총계		25124	총계		26280	일일평균		1103	총계		26784			
			일일평균		966	일일평균		973				일일평균		992			
총 관람객 수					149181				일일평균					970			

6) 감사의 말

커미셔너 김승덕과 작가 김수자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언제나 친절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ARKO의 권영빈 위원장님, 국제교류부의 장용석 부장님, 차화준 과장님, 그리고 아르코미술관의 이한신 관장님과 큐레이터 고원석 님께 감사드립니다.

NXC의 회장이며 넥슨의 설립자인 김정주 회장님께서는 이번 프로젝트의 초반에 기술 자문을 맡아 단 시간 내에 아주 귀중한 시장연구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넥슨은 한국관의 메인 스폰서까지 되어 주셨습니다. 아울러 NXC의 유정현 감사님과 이재교 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의 홍라희 관장님께서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의 처음 단계부터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의 홍라영 총괄부관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정진 님께서도 부드러운 소통의 통로들을 세워나가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삼성문화재단의 후원과 함께 우리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마케팅팀 디렉터 안성은 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송병하 님께서 전시관의 냉방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록 출판과 지면 광고를 지원해 주신 밀라노의 라파엘라 코르테제 갤러리, 베를린의 케비니크갤러리, 서울의 국제갤러리, 마드리드의 라 파브리카, 주오즈의 츄디갤러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갈라 디너를 주선해 주신 국제갤러리의 이현숙 회장님과 티나 김, 그리고 제란 에르담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도와준 패션디자이너 송자인 님의 도움으로 방문객들이 한층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글을 기고해 주신 댄 그라함, 이용우, 미첼 모세시안께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카피 방식으로 재게재하도록 허락해 주신 필자-리키 암브로스, 잉르리드 코망되르, 도리스 본 드라덴, 베르나르 피비셔, 안토니오 구에사, 조나단 굿맨, 스티븐 헨리 마도프, 라히 말크펄로스, 로자 마르티네즈, 라데티카 멜로, 배형민, 김수자, 김성원, 로버트 모건, 프란체스카 파지니, 올리바 마리아 루비오, 배리 슈왑스키, 수잔 솔린스, 하랄드 제만, 양회석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베니스의 카포스카리대학교 한국학과의 인턴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신 배종민 님께 특별히 감사하고 싶습니다. 탄크레디 코치, 파올로 페드리나, 기울리아 라티, 일라리아 델 비안코, 치아라 가르빈, 필리포 콜롬보, 알레산드라 갈리치오, 세레나 판티나토, 김지예, 한석영, 장은재, 비비엔 룽고, 치아라 피오베산, 엘리사 트론카, 알리사 밀코베아누, 카티아 루이지나 론카리, 엘리드 무칠리, 로잔나 드 루디시보프, 다리아 젠누티크, 데르마 안나 아이린 로마노, 지울리아 그레고리니, 그리고 로스 드 루디시부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친구, 가족, 동료 등 많은 분들이 아주 귀중한 자문을 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샤를드모, 티아나 밀리 필름, 아나 산더스 필름, 이남식, 모철민, 김복기, 김홍남, 문지윤, 김승용, 송영미, 유인경, 문성자, 한용진, 치히로 요모노, 크리스티나와 부비, 천호균, 정금자, 김은정, 이윤아, 김진만, 루카 조르단, 빙 완, 박양서, 보스띠, 고승현, 강지유, 마시밀리아노 디 리베르토, 에토레 카무후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관의 도록이 나오기까지 기획 및 디자인부터 도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보여준 프랑크 고트로께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건축 자문과 설계도면 및 지식과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베르나르도 자바티니께도 감사드리며, 장 필립 바두이의 세심하고 전문적인 아나코익 룸 설계와 시공에 감사드립니다.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막심 헤일렌즈, 창조적인 웹 디자인 팀인 모임 별, 매 어려운 순간마다 진심을 다해 도와주신 전영순 님, 그리고 김유라 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 동안 베니스 현지에서 한국관을 돌보아 온 건축가 김은정 씨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개조와 설치의 전 과정에서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해결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자신의 조용한 성실함과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레스타우리 리오 마린사의 피에로 모렐로는 보수 공사에서 중책을 맡아 그의 팀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공사가 잘 끝마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의 팀원은 마시모 나탈리, 네그루타 투도르, 세르지오 로부, 지오반니 툴부르, 시자르 드 로시, 엠마누엘레 비아토입니다. 또한 탑필름에서 일하는 스테파노 솜마칼과 카테리나 바라토의 활약도 빠트릴 수 없습니다.

김수자 스튜디오의 훌륭한 스태프인 수지 퀄리난과 그라함 맥나마라께도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의 오랜 여정 동안 끊임없는 요청에도 언제나 넉넉한 마음을 잃지 않고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해 준 데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루카 조르단과 빙 완의 도움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비디오와 사진촬영에 헌신적으로 임해준 질 쿠데르와 티에리 디파이느께 사의를 전합니다.

김승덕

한국관 프로젝트는 어떤 특정한 예술가를 떠올리기 전에, 전시장의 건축에 관한 연구부터 시작했습니다. 베니스에 있는 한국관의 현장에 처음으로 방문하자마자, 저는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보수 공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연구의 첫 단계에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관해 여러 사람들과 집중적으로 토론했습니다. 당시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찬경, 김정주, 샤를 드모, 진은숙, 마리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그 동안 한국관의 커미셔너를 역임했던 윤재갑, 주은지, 안소연, 김홍희 씨의 너그럽고 지속적인 충고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르 콩소르시움에 있는 나의 동료와 친구들-케더린 본노테, 아이린 보니, 하비어 도록스, 프랑크 고트로, 제럴딘 미넷, 스테파니 무아동, 엔 폰테그니, 에릭 트롱시-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가장 가까운 지원자이자 참을성 있는 동료인 프랑크 고트로에게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프로젝트 준비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빚진 로렌스 SB 김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수자 작가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칫 권위적이고 도전적인 저의 초대에 흔쾌히 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짧은 준비 시간임에도 창조적이고 인상적인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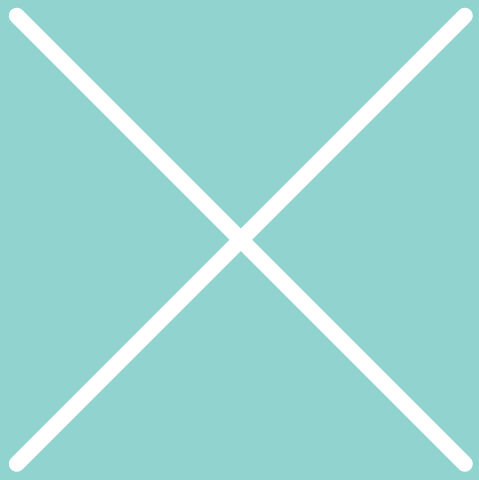
김수자

우선 제게 또 다른 영감을 주고 프로젝트를 실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ARKO의 모든 분들과 김승덕 커미셔너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작업에 대한 전적인 성원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차례 베니스비엔날레에 참가했지만 이번 베니스비엔날레의 한국관 작업은 '아웃사이더'였던 저에게 조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생각하게 해 주었고 이에 저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 큐레이터, 작가, 컬렉터, 기관, 미술관장, 그리고 저와 오랜 시간 믿음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화랑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저의 예술적 발전에 대한 이 모든 분들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인내와 오랜 성원으로 이번 한국관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안과 밖에서 아낌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지지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저와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발전시켜 온 올리바 마리아 루비오, 그리고 릴리 웨이께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은 이번 한국관 프로젝트가 제시될 수 있는 길을 닦아 주셨습니다.

ARKO의 김찬동 님께도 이 기회를 빌려 삼가 감사를 표합니다. 대학 동료로서 저의 초기 작가활동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며 늘 성원해 주셨고 한국 미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기회 있을 때 마다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힘이 되곤 했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건축적인, 또 예술적, 지적인 관점들을 나누며 힘을 보태준 정재호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02



MANUAL

1 운영

1) 한국관 운영규정

제정 2005.12.26
개정 2008. 1.11
개정 2009.11.2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이하 '한국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한국관은 이탈리아 베니스 시의 카스텔로 공원(Castello Gardens) 내에 둔다.
제3조 (사업)
한국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을 한다.
1.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 작가의 작품 전시
2.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 작가의 작품 전시
3. 기타 한국관 운영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 (준수사항)
한국관은 베니스비엔날레조직위원회(The Ente Autonomo La Biennale di Venezia)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2장 커미셔너선정위원회

제5조 (선정위원회)
① 한국관 전시를 위한 커미셔너 선정을 위하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미술전과 건축전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사계 전문 인사 7인 내외와 당연직 위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또는 예술국장) 2인을 포함하여 총 9인 내외로 구성하며 담당부서장은 간사가 된다. 〈개정 2009. 11. 20〉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사계 전문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 11. 20〉
1.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혹은 참가작가 경력이 있는 인사 〈신설 2009. 11. 20〉
2. 미술·건축 분야에서 작품·기획·비평·이론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활동하였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문화예술 국제교류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인사 〈신설 2009. 11. 20〉

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⑥ 선정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베니스비엔날레 개최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선정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및 건축전 커미셔너 선정
2. 커미셔너가 작성·보고하는 전시 기획안에 대한 자문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자문사항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사계 전문 인사 선정위원은 미술, 건축 등 해당 분야 위원회에만 참석한다.
⑥ 제2항 제1호의 커미셔너 선정회의는 익년도 해당 분야 전시 개최 10개월 이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무 및 수당)
① 선정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8. 1. 11〉
② 선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한국관 관리

제8조 (관리 인원의 파견 및 고용)
한국관의 관리를 위하여 이태리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인 또는 현지 거주 한인을 일시 고용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파견 직원 또는 현지 고용직원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
현지 사무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베니스비엔날레 참가

제11조 (커미셔너)
① 커미셔너는 해당 연도 베니스비엔날레 주제 등을 감안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선정된 커미셔너는 베니스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베니스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커미셔너는 다음 업무를 각호의 1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베니스비엔날레 참가 작가 선정
2. 전시 기획 및 작품 전시와 관련한 업무
3. 참여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홍보 활동
4. 베니스비엔날레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제12조 (작가 선정)
참가 작가는 커미셔너가 선정하되, 선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시 기획안)
커미셔너는 전시 기획안을 작성하여, 선정위원회에 보고 및 자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무)
① 베니스비엔날레 참가에 따른 업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커미셔너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베니스비엔날레 개최 기간 중의 현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 약간 명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2) 커미셔너 업무 매뉴얼

베니스비엔날레 개요

• 베니스비엔날레는 1895년 이탈리아 국왕부처의 제25회 결혼기념일을 축하하여 베니스 시가 창설한 미술전시회로 세계 현대미술계에서 휘트니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와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행사로 꼽힘
• 베니스비엔날레는 휘트니비엔날레, 상파울로비엔날레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의 중심축을 차지하는 미술행사로서 세계 미술계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국제 미술전임
• 베니스비엔날레는 베니스 시의 남동쪽 카스텔로 공원 내 10만평의 부지위에서 펼쳐지고 제2회 파리박람회의 운영방식을 차용해 국가관별로 전시를 개최하는 것이 특징임. 또한 미술 뿐 아니라 영화·건축·음악·연극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시각에 독립된 행사를 벌이고 있음
• 베니스비엔날레의 미술전은 크게 '국가관전시(자르디니)', '이탈리아관(파비용 이탈리안)', 젊고 실험적인 작업을 소개하는 '아르세날레전'으로 구성됨
• 베니스비엔날레의 상은 국가관에 수여하는 황금사자상(Golden Lion for the Best National Participation), 작가에게 수여하는 황금사자상(Golden Lion for the Best Artist), 35세 미만의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은사자상(Silver Lion for a Promising Young Artist), 그리고 특별상(Special Mentions)이 있음. 심사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미술관장이나 미술사가, 평론가들 4~5명이 초청돼 심사위원을 맡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 42회 때 고영훈 씨와 하동철 씨가 베니스 비엔날레에 최초로 참가하였음. 이후 백남준 씨가 1993년 독일관 대표로 참가해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데 이어 1995년 전수천, 1997년 강익중, 1999년 이불 씨가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1986년에 첫 참가 이후 전시관이 없어 이태리관의 작은 공간을 배정받아 참가하던 중, 1995년 26번째로 독립된 국가관인 한국관을 건립, 우리 미술의 해외소개를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행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요

• 위치: 베니스 시 카스텔로 공원(Giardini di Castello, Venezia) 內
  - 주소: Il Padiglione Coreano Biennale di Venezia Giardini di Castello 30122 Venezia, Italy
  - 전화: +39-41-277-0990
  - 팩스: +39-41-71-0506
  - 현지 코디네이터: +39-338-1715-270
• 층수: 지상 1층
  - 트랜스패런트홀, 히스토리컬홀, 실린더홀 등 3개 전시장
• 건축면적: 219.7M2
• 연면적: 242.6M2(약 73평)
• 구조: 철골조
• 착공연월일: 1994. 11. 8
• 준공검사일: 1995. 5. 30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의 역할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정의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는 익년도의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건축)전 한국관 전시를 총괄하기 위하여 한국관 운영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미술(건축) 전문가를 말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의 기획과 운영의 권한을 갖고, 우리나라 미술(건축)과 작가들을 세계에 소개하는 임무를 맡게 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수행 업무

① 전시 기획 및 총괄

- 커미셔너는 미술전(건축전)의 주제를 해석하여, 전시 기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한국관의 주제, 설명, 전시도면 등 전시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② 작가 및 작품의 섭외, 선정

- 커미셔너는 전시 기획에 따른 참가 작가를 선정해야 하고, 참여 작가의 작품 제작 및 전시 지원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총괄함
- 커미셔너는 참여 작가 등 전시 내용을 포괄하는 전시 기획서를 작성하고, 커미셔너 선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③ 도록 등 인쇄유인물 제작

- 커미셔너는 전체행사 주최인 베니스비엔날레 재단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요건에 따라 한국관 전시 내용에 대한 각종 자료와 원고를 제출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한국관 전시행사를 위한 도록 등 각종 인쇄유인물을 제작하여야 함. 인쇄유인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자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귀속됨
- 도록은 최소 500부 이상 제작하여야 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보관용 100부를 제출하여야 함

④ 전시 디자인

- 커미셔너는 작품의 배치, 공간 분할, 조명, 관객의 동선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한국관의 전시 공간을 디자인하여야 함
- 한국관 개관 최소 3개월 이전까지 전시 디자인(도면)을 완성하고, 베니스 현지 공간매니저와 협의하여야 함
- 한국관 건물의 구조 및 내부변경과 관련된 작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전합의를 얻어야 함

⑤ 전시 준비

- 커미셔너는 전시 공간 조성을 총괄하며, 전체 행사 일정을 고려하여 차질이 없도록 전시를 추진하여야 함
- 전시 공간 조성, 작품 운송, 작품 보험, 전시 종료 후 철거 공사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전시지원금에 포함하여야 함

⑥ 개막식 및 개막식 만찬

- 한국관 개막식 및 개막식 만찬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커미셔너 공동주최로 개최하고, 커미셔너는 동 행사를 주관하여야 함
- 초청대상, 개최장소, 진행 식순 등 행사내용을 커미셔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⑦ 홍보

- 커미셔너는 한국관 전시의 국내 및 해외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관의 홍보 활동을 위해 개최하는 기자회견 및 각종 홍보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현지에서 프리뷰 기간에 배포할 프레스 킷(국·영문, 작품사진을 담은 CD포함)을 제작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별도의 한국관 전시 관련 홈페이지를 제작하여야 하며, 수록내용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함

⑧ 문화예술진흥기금 교부 및 정산

- 커미셔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신의성실하게 한국관 전시를 위하여 집행하여야 하고,「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용지침」및「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전시지원금에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추진단 구성 및 운영경비
· 전시 공간 조성 및 전시 종료 후 철거 공사비
· 작가의 작품제작비
· 도록,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 및 각종 홍보비
·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관련 홈페이지 제작
· 작품 운송경비
· 작품 운송, 보관, 전시 관련 보험경비
· 커미셔너와 작가의 출장 경비
· 커미셔너 사례비
· 통역 및 번역, 실무진 운용 등 관련 경비
· 개막식, 개막식 만찬, 기타 부대행사 경비
· 세무사 기장 및 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경비
· 기타 업무추진 운영경비 등 커미셔너와 작가의 제반 활동 경비

- 커미셔너는 한국관 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증을 취득하여야 함. 추진단의 대표는 커미셔너가 수행하며, 사무국 내 1인 이상은 대한민국 거주자로 선임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게 지원금 신청 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안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항목별 지원 금액을 조정 지급할 수 있음
- 커미셔너는 전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기업체 등의 협찬을 유치하여 미술전 경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추후 후원 및 사용내역을 사업성과보고서에 포함시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사업성과보고서 제출 시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업무흐름도

구분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계약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신임커미셔너 계약체결
↓	
커미셔너 선정 기자회견 참석	예술위원회 주최 '커미셔너 선정 기자회견' 참석
↓	
고유번호증 발급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추진위원회' 임의법인 설립
↓	
전시지원금 신청, 수령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교부신청
↓	
전시계획 수립	참여 작가 선정 및 전시 계획 수립
↓	
커미셔너 선정위원회 자문	커미셔너 선정위원회에 전시계획 보고 및 자문
↓	
전시기획 발표 기자회견 참석	예술위 주최 '전시기획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 작가와 함께 참석
↓	
전시 추진	전시 공간 조성 및 전시 추진
↓	
한국관 전시 홈페이지 운영	웹디자이너를 고용하여 한국관 전시 홈페이지 제작 후 예술위 제출
↓	
도록 및 인쇄물 제작	도록, 포스터, 리플릿 등 인쇄물 제작
↓	
한국관 개막 기자간담회 개최	프레스 킷 제작, 베니스 현지 개막식 전 기자간담회 개최
↓	
한국관 개막식 추진	한국관 개막식 및 리셉션 추진
↓	
전시 성과 보고회	한국관 전시 중 한국에서 '전시 성과보고회' 개최
↓	
한국관 전시 종료 후 철거	전시 종료 후 전시장 철거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성과보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업무 세부내용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계약 체결

- 커미셔너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익년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가 확정된 후, 신임커미셔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건축)전 한국관 전시 계약서'를 체결함
- 계약 체결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신임커미셔너에게 계약서 내용을 제공하고, 신임커미셔너는 계약내용의 검토 가능

  ※ 세부 내용은 '참고자료 5.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한국관 전시 계약서' 참조

2. 커미셔너 선정 기자회견 참석

- 신임커미셔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건축)전 한국관 전시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 선정 기자회견'을 개최함(주요일간지, 월간지 미술전문기자 20~30여 명 참석)
- 신임커미셔너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의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야 함
- 이 기자회견은 신임커미셔너의 선정을 홍보하기 위한 기자회견으로 전시계획과 참여 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임커미셔너로서의 포부와 소감, 전시를 위한 구상 등을 밝히는 자리임

3. 고유번호증 발급

- 개인에게 문예진흥기금 전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세 등 세금문제, 해외송금 상한액 제한 등 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신임커미셔너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추진위원회'라는 별도의 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 단체규약(정관 혹은 회의록), 대표자선임 관계서류, 임대차계약서(사무실이 임대일 경우), 단체 도장,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소지로 등록하면 별도 필요 없음

  ※ 커미셔너가 외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가능

4. 전시지원금 신청, 수령

-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 전시 지원금은 총 4억 원임
- 4억 원 중 전시 전년도에 전시준비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전시 당해연도에 3억8천만 원을 지원함
- 전시지원금을 수령을 위해 커미셔너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을 통해 교부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한 '2012년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매뉴얼.pdf' 파일 참조

  ※ 지원금 교부조건 특이사항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지원 사업은 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을 면제하고, 약정서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지원금 집행을 인정함
  - 전시 관련 출장 경비 : 숙박비를 제외한 체재비(식비, 일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에 한해서는, 입금증 등 계좌 이체 관련 자료, 해당 기간 내 현지 체류 증빙 자료(여권 사본, 항공권 등)로 집행 증빙을 갈음함
  - 숙박비의 경우 베니스 현지의 높은 물가 및 비엔날레 성수기 숙박비 급등 현실을 고려하여 실비 집행하고 영수증으로 증빙하도록 함
  - 해외에서 지출하는 경비의 경우 보조 사업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시 현금 집행을 할 수 있음(증빙 필수)

5. 전시계획 수립

- 신임커미셔너는 위촉된 이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를 위하여 전시 주제, 참여 작가, 전시 내용 등이 수록된 전시 계획을 수립함
- 전시 계획에는 한국관 공간배치 도면 및 제안서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 작가 선정은 커미셔너 고유권한이나, 전시 콘셉트 및 사회적인 반향을 고려하여 예술위원회와 상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99년 이불 작가 작품 운송 시 작품이 일부 파손되어 매우 곤란한 일이 발생했음. 2001년에는 이에 대비, 작가와 최초로 약정을 체결, 이러한 사고에 대해 책임과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음.

※ 커미셔너가 요청하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커미셔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자문회의'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마케팅 전문가, 건축 전문가, 인테리어 전문가, 인문학자, 공연·전시 연출가 등)

6. 커미셔너 선정위원회 자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규정'에 따라 커미셔너 선정위원회는 커미셔너가 작성·보고하는 전시기획안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음
- 커미셔너는 커미셔너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전시 기획안을 설명하고, 선정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야 함

7. 전시기획 발표 기자회견 참석

- 커미셔너의 전시 기획안이 확정된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기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함
- 기자회견에는 커미셔너, 참여 작가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고, 전시기획을 프레젠테이션 해야 함
- 커미셔너는 별도의 웹하드를 개설하여 전시기획안, 작가 약력, 전시 관련 이미지를 업로드 해야 함

※ 웹하드를 통해 전시 관련 보도자료 및 그림 파일을 공유하게 되므로 전시 종료 시까지 관리 필요

8. 전시추진

- 한국관 개막식 일정 확정
  - 베니스비엔날레 프리뷰 기간이 3일 내외이기 때문에 한국관 주변에 소재한 러시아관, 일본관, 독일관, 캐나다관, 영국관 등의 일정과 겹치지 않게 일정 확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현지 김은정 매니저와 상의하여 일정 확정
- 유관기관 및 각계 관계자 초청 : 전시개막 최소 2개월 전부터
  - 비엔날레 측에서 제공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초청장 신청
  · 엑셀 양식으로 되어 있음. 영문 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 기재

※ 국가관 별로 초청장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예술위원회의 협의 필요

  - 신청 리스트에 따라 비엔날레 측에서 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초청장 발송. 초청장 미보유시 입장 불가
- 한국관 전시 공간 조성
  - 미술전/건축전 시 전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작가의 작품이 한국관에서 가장 잘 전시될 수 있도록 한국관을 조성하는 작업

※ 2013년 미술전 주제는 〈The Encyclopedic Palace〉로 커미셔너의 해석을 통해 한글화 작업 필요.

- 현지자문건축가, 한국관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여 현장 실측, 총괄계획 작성 및 확정(확정 이후 변동은 최소화해야 함)

• 현지 업체 선정
  - 통상 공사 추진 시 공개입찰보다는 이태리 현지에서 추진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동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시장 시공실적 및 한국관의 세부 구조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견적을 접수, 현지자문건축가의 감리를 통해 결정함.
• 공사 완료 후 자문건축가의 감리 보고서 접수
  - 전시 공간 조성은 한국관 내외공간을 기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 공간 조성을 수용해야 함.
• 자문건축가 사례비
  - 관련법: 기사 및 건축사 직업보수 승인에 관한 법률 〈LEGGE 2 MARZO 1949,N.143 - Approvazione della tariffa professionale degli ingegneri ed architetti(1).〉
  - 건축사 보수: 동법 제14조, 건축사 수임 보수표 Ic 등급(tab. A, tab.B) 적용 (한국관은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Ic 등급으로 해왔으나 공사이전 보수표 등급에 관한 한 건축가와 반드시 합의를 볼 필요가 있음)
  - 협회 지불금: L.3/1/1981, N.6 법률의 제10조에 의거, 건축사 보수 및 감리비 총액의 2% 지급
• 작품 운송
  - 작품설치를 위한 작품 운송은 항공편을 원칙으로 함. 단, 통관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소 열흘 전에는 발송이 되어야 함
  - 작품 철수 시 반송교통은 선편으로 함
• 작품 보험가입
  - 작가에게 작품 산정가를 물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9. 한국관 전시 홈페이지 운영
• 커미셔너는 한국관 전시의 홍보를 위해 별도의 웹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전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홈페이지를 개막 최소 2개월 전에 제작하여야 함
• 한국관 전시 홈페이지 목차는 '한국관 전시소개', '커미셔너 소개', '참여 작가 소개', '전시 사진', '자료실', '보도자료', '연락처' 등으로 구성함
• 커미셔너는 한국관 전시 홈페이지 디자인 및 수록내용을 담은 HTML자료를 CD로 제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10. 도록 및 인쇄물 제작
• 도록/인쇄 유인물은 한국관과 작가 소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 스폰서 및 예술위원회 로고 배치, 도록 내 문구 등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제작초기부터 작가, 스폰서, 예술위원회 요구사항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제작해야 함
• 도록 인쇄 직전 마지막 사진배치, 텍스트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오탈자나 배치 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 도록의 표지 및 판권 부분 등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가 정확하게 표기 되었나 확인 필요. 특히 주최(Organizer/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후원(Sponsors)이 분명히 구분되도록 작성 필요
• 제작된 포스터의 경우 베니스 현지 홍보를 위해 베니스 시내에 부착해야 하는데, 베니스 시내에 공식적으로 포스터를 부착할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사전에 베니스 현지 매니저와 협의 추진 필요.

11. 한국관 개막 기자간담회 개최(베니스 현지)

• 언론용 프레스 킷 제작
  - 한국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기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스 킷 200~300부 제작 필요
  - 프레스 킷은 한/영문 전시 설명 및 작가 약력자료(2~4 페이지), 투명 플라스틱 클리어 파일, 도록, 슬라이드 및 사진(CD 혹은 USB), 간단한 선물, 부직포 가방을 한 세트로 함.
  - 프레스 팩도 중요한 홍보수단이므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함. 2011년 한국관의 경우 가방에 프레스 킷을 담아 좋은 호응을 얻었음.
  - 작가관련 영문기사 스크랩하여 전시관에 배치하면 홍보에 많은 도움
• 기자간담회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의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 개막식 당일 행사 직전 '한국관 전시 홍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음(장소는 한국관 옥상이나 건물 내부에서 개최함)
  - 기자간담회 개최는 베니스비엔날레 전체 홍보 리플릿에 게재되어야 하므로 시간, 장소 확정 후 베니스비엔날레 재단에 통지 필요

12. 한국관 개막식 추진

• 사전 준비
  - 커미셔너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는 개막식 추진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협의 필요
    · 개막식 케이터링, 보도자료 초안, 식순
  - 개막식은 더운 날씨를 감안해 선선해지는 오후 5시 무렵에 개막식을 진행하고 연이어 리셉션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음(장소는 한국관 앞뜰이나, 옥상에서 개최)
  - 개막식의 경우 가능한 한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하고 예술위 임원은 시작할 때 축사(3분 이내), 주이탈리아한국대사 혹은 유관부처 관계자의 경우 건배 제의 정도로 마무리함
    ※ 사회(예술위원회 담당부장) → 개회사(예술위 임원) → 축사(주이탈리아 한국대사 등 주요참석인사 중 섭외) → 사회변경(담당부장 → 커미셔너) → 커미셔너 인사 → 주요참석인사 소개 → 커미셔너 전시 소개 → 작가 소개 → 축배 → 개막식 종료 → 다과 → 커미셔너 전시장 안내 → 개막식 종료
  - 개막식 총 진행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전시장 투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리셉션
  - 개막식 후 별도의 공간(구겐하임미술관, 인근 음식점, 퀘리니 스탐팔리아 등)을 예약하여 리셉션을 추진해야 함(간단한 케이터링 준비 포함)
  - 리셉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커미셔너가 공동 주최하는 형식이며, 행사 준비 및 진행은 커미셔너가 추진함
  - 커미셔너는 초청대상, 개최장소, 진행 식순 등 행사내용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협의해야 함

13. 전시 성과 보고회

• 전시 성과 보고회
  - 한국관 전시의 국내 홍보를 위해 '성과공유 간담회' 또는 '귀국 보고 프로그램' 실시 필요(Film 상영, ppt 등)

14. 한국관 전시 종료 후 철거

• 커미셔너는 전시 종료 후 현지매니저와 협의하여 전시장을 철거해야 함
• 전시 종료 후 3개월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산 및 지원 사업 성과보고를 완료해야 함
  ※ 성과보고 일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 필요

3) 커미셔너 계약서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한국관 전시 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김승덕(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이하 "을"이라 한다)은 2013년도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한국관 전시행사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전(이하 "미술전"이라 한다) 한국관 전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갑"과 "을"의 상호 역할을 명백히 하여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행사 개요)
① 행 사 명 :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② 행사기간 : 2013년 6월~ 11월
③ 행사장소 : 이탈리아 베니스시 카스텔로 공원
④ 주 제 : 미정
⑤ 총 감 독 : 마시밀리아노 지오니(Massimiliano Gioni)
⑥ 주 최 : the Venice Biennale Foundation
⑦ 한국관 전시행사
1.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 ARKO)
2. 커미셔너 : 김승덕

제3조(계약 기간) 공식 계약 기간은 "갑"이 "을"에게 한국 커미셔너로 통보한 날로부터 미술전 행사 종료 후 한국관 참가 작품 대여인에게 작품 반환 및 사업성과보고서 제출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수행 업무)
① 전시 기획 및 총괄
1. "을"은 미술전 주제를 해석하여 한국관의 전시기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을"은 한국관 주제, 설명, 사진자료 등 전시 관련 확정 자료를 "갑"과 사전 협의하여 베니스 비엔날레 재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동 재단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

② 작가 및 작품의 섭외, 선정

1. "을"은 전시 기획에 따른 작가를 선정하고 전시기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하여 2012년 12월까지 미술전 커미셔너 선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커미셔너는 참가작가의 작품 제작 및 전시 지원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총괄한다.

③ 도록 등 인쇄유인물 제작

1. "을"은 미술전 전체 도록에 게재되는 한국관 전시 내용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원고를 미술전 주최 측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한국관 전시행사를 위한 도록 등 각종 인쇄유인물을 기획, 제작하며, 인쇄유인물에는 "갑"이 주관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을"이 기획·제작한 각종 인쇄유인물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단, 현지 판매분 및 국내 판매분에 대한 수익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을"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인쇄 및 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을"에게 위임하되, 최종결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을"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초판이외에 재판을 찍을 시 반드시 "갑"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5. "을"은 제작된 도록에서 "갑"에게 보관용 10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분량은 전시 기간 동안 기자용 배포분과 일반인을 위한 현지 판매 혹은 무상 배포분을 구분하여 적절히 운용하되, 현지 배포용 도록은 최소 500권으로 한다. 유무상의 결정은 "갑"의 동의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전시 디자인

1. "을"은 작품의 배치 및 공간 분할, 조명, 관객의 동선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한국관의 전시 공간을 디자인하되, 한국관 건물의 구조 및 내부 변경과 관련된 작업은 "갑"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을"은 전시 3개월 이전까지 베니스 현지 한국관 직원에게 완성된 전시 공간 도면(디자인)을 보내 그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

3.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 종료 후의 철거 공사는 "을"이 수행하며, 소요 경비는 제5조 1항의 전시지원금에 포함된다.

4. "을"은 전시 디자인과 관련하여 미술전 주최측이 정한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관련 사항 발생시 미술전 주최 측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작품 운송

1. 작품 보관 및 운송은 "을"이 수행하며, 소요경비는 제5조 1항의 전시

지원금에 포함된다.

⑥ 작품 보험

1. 작품 보관, 운송, 전시 등 일체의 작품에 대한 보험은 "을"이 수행하며, 소요경비는 제5조 1항의 전시지원금에 포함된다.

⑦ 전시 설치·철수

1. "을"은 작품의 설치 및 철수에 대하여 감독 및 지휘의 의무가 있고,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작품 운송(반출·반입), 개막 일정 등 행사 일정을 고려하여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개막식

1. "갑"은 한국관 개막식 및 개막식 만찬을 주최하고, "을"은 동행사를 주관하되, 행사 사회 진행은 "갑"이 하도록 한다.

2. "을"은 초청대상, 개최장소 및 진행식순 등 행사내용을 "갑"과 사전 협의하여 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⑨ 홍보

1. "갑"과 "을"은 동 행사의 국내 및 해외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해 "갑"은 최소 1회 이상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을"은 "갑"이 홍보 활동을 위해 개최하는 기자회견 및 각종 홍보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을"은 미술전 현지에서 프리뷰 기간에 사용할 프레스 킷(국·영문, 작품 사진을 담은 CD포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4. "을"은 개막식, 프리뷰 기간에 방문한 기자, 이후 전시 기간 중 한국관을 방문한 주요인사 명단을 확보하여 개막식 직후 및 프리뷰 기간 직후, 폐막 이후 각 시기에 따른 명단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을"은 미술전 한국관 전시 관련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하며, "갑"은 이를 "갑"의 홈페이지 서버에 업로드하여 운영한다. 단, 전시와 관련된 내용의 업데이트와 관리는 "을"이 수행한다.

⑩ 전시 진행

1. "갑"은 프리뷰 기간부터 개막식 이후 전시기간 동안 한국관을 관리하는 전시장 요원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임금을 부담한다.

2. "을"은 1항의 요원들에게 전시기간 동안 전시장 안내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① "갑"은 전시지원금으로 사억원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 체결일 현재 2013년 문예진흥기금사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심의 과정에서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지원 예산 삭감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2년 12월말 최종 예산 승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 혹은 증액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을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2013년 문예진흥기금 최종 승인 예산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② "갑"은 전시지원금 사억원 중 이천만원은 2012년 "을"과의 계약서 체결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삼억팔천만원은 2013년에 지급한다.

③ 전시지원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ㅇ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추진단 구성 및 운영경비
- ㅇ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 종료 후 철거 공사비
- ㅇ 작가의 작품제작비
- ㅇ 도록,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 및 각종 홍보비
- ㅇ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관련 홈페이지 제작
- ㅇ 작품 운송경비
- ㅇ 작품 운송, 보관, 전시 관련 보험경비
- ㅇ 커미셔너와 작가의 출장경비
- ㅇ 커미셔너 사례비
- ㅇ 통역 및 번역, 실무진 운용 등 관련 경비
- ㅇ 개막식, 개막식 만찬, 기타 부대행사 경비
- ㅇ 세무사 기장 및 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경비
- ㅇ 기타 업무추진 운영경비 등 커미셔너와 작가의 제반 활동경비

④ "을"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한국관 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추진단의 대표는 "을"이 수행하며, 사무국 내 1인 이상은 대한민국 거주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에게 지원금 신청 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안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항목별 지원금액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⑥ "을"은 지원금 집행 시 우리 위원회 "문예진흥기금사업보조금운용지침"에 따라 집행하되,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은 지정된 계좌로 반납한다.

⑦ "을"은 전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을"은 기업체 등의 협찬을 유치하여 미술전 경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추후 후원 및 사용내역을 사업성과보고서에 포함시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을"은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시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갑"은 "을"이 한국관을 대표하는 커미셔너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전시운영과 관련한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한 경우 "을"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계약 조항의 해석) 이 계약 조항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증명)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년 8월 8일

"갑" 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위원장 : 권 영 빈 (인)

"을"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
주 소 :
성 명 : 김 승 덕 (인)

4) 전시추진단 명부

추진위원장 /
김승덕

사무국장 /
호경윤

추진위원 /
고승현 강지유

감사 /
장용석

5) 전시추진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추진단'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이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단체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해외에 소개하여 문화 강국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단체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비영리사업을 추진한다.
1. 해외에서의 한국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전시회 개최
2. 시각예술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해외에 소개
3. 국제 문화교류 활동
4. 해외 문화예술 단체의 베니스비엔날레 내 초청 행사 개최
5. 기타 단체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조직 구성

제5조 본 단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조직을 구성하고, 임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임한다.
제6조 (징계) 이 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2. 단체의 위신과 제반 질서를 혼란케 하였을 때

제3장 임원 및 조직 구성

제7조 (임원) 이 단체의 이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추진단장 (대표) : 1명
2. 사무국장 : 1명

3. 자문위원 : 2명 이상
4. 감사 : 1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장 당연직)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추진단장은 단체를 대표하여 이 단체의 모든 계획과 안건을 자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사무국장은 단체의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3. 자문위원은 단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한다.
4. 감사는 본 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진사업별로 감사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 구성) 이 단체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단체의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방향 설정과 문화콘텐츠 구성에 관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총회)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2월 중에 추진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추진단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한 중요한 사항
제12조 (자문회의) 자문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추진사업별로 총 2회 이상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진단장이 소집한다.
2. 자문회의는 단체의 사업운영 및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경리

제13조 (재정)
1. 본 단체의 운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을 세입으로 하여 그 세출에 충당한다.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은 위 4조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비와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한다.
3. 본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경리)
1. 본 단체의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교부 신청 및 정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의거하여 추진한다.
2. 본 단체의 사업비 집행은 문예진흥기금 사업 운용 방침에 의거하여 관리 및 집행하고 정산토록 한다.

제6장 보칙

제15조 (해산)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단체의 관리 감독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단체를 해산할 때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잔여 재산을 반납한다.

제7장 부칙
1. 본 규약의 불미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 관례 또는 조례에 따른다.
2. 시행일 : 본 정관은 201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고유번호증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 [redacted]

단 체 명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전시추진단

대표자 성명 : 김승덕 생 년 월 일 : [redacted]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표자 주소 : [redacted]

교 부 사 유 : 신규

(유의사항)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2 년 08 월 09 일

구로 세무서장 (인)

[redacted]

NTS 국세청

6) 한국관 도면

한국관에 머물다 / 배형민

자르디니는 일종의 도시다. 바쁜 전시 기간 중에는 작은 박물관들로 채워진 전원도시다. 하지만 전시가 없는 긴 시간 동안은 숲 속에 커다란 추모관들이 늘어선 네크로폴리스와 같은 곳이다. 이 이상한 도시에 박물관도 추모관도 아닌 전시관이 있다. 한국관은 집이다. 스케일이 집과 같고, 집이 가져야 할 프라이버시도 있다. 러시아, 일본, 독일관 뒤에 숨어, 자르디니 축선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벽돌 집, 계단식 원통 공간, 가벼운 철제 프레임의 입구 등, 밖에서 볼 때 다양한 집의 기능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집에는 앞마당과 후정이 있고 옥상 테라스도 있다. 현관을 통해 여유로운 직사각형의 전시 홀에 들어선다. 여기는 밝은 "거실"이다. 천창을 통해 빛이 내려오고 나무 스크린이 달린 넓은 유리창을 통해 빛이 스며들어온다. 한옥처럼 나무 스크린을 접어 켄틸레버 차양에 매달면 거실은 정원과 산마르코 운하로 열린다. 전시 홀의 끝에 산마르코의 물을 바라볼 수 있는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다. 한쪽 벽은 나무 패널이 물결치고 있고, 반대쪽은 경사진 천창을 따라 천장이 낮은 원통 공간으로 이어진다. 이 공간이 식당과 부엌 같은 곳이다. 뒷문이 있고 벽돌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여기다. 비엔날레 사무실과 화장실로 사용했었던 벽돌집은 침실처럼 숨어있는 느낌이다. 한 때 원통 공간 한 가운데에 2층으로 올라가는 원형 계단이 있었다. 원통 2층에는 지금도 화장실과 창고 공간이 있다.

김석철과 프랑코 만쿠소는 규칙적이고 중성적인 백색의 공간을 만들기보다 색채, 형태, 재료가 다양한 공간을 만들었다. 회화를 위해 만들어졌던 대부분의 국가관과는 전혀 다른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현장에서 조립한 재료들이 꺾어지고, 휘어지고, 덧 붙여져 있다. 마치 주말 주택 같은 가벼운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자르디니의 많은 전시관과 마찬가지로 수사학의 과잉과 국가 정체성의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다. 한옥이다, 비행접시다, 베니스에 정박한 돛단배다. 이 집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다. 옥상에 돛대와 케이블을 달아 마치 인장 구조인 것처럼 보이려 했다. 2005년 최정화의 옥상 설치로 케이블을 떼어 낸 후에 다시 매달지 않았다. 한국관은 너무 많은 것이기를 원한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할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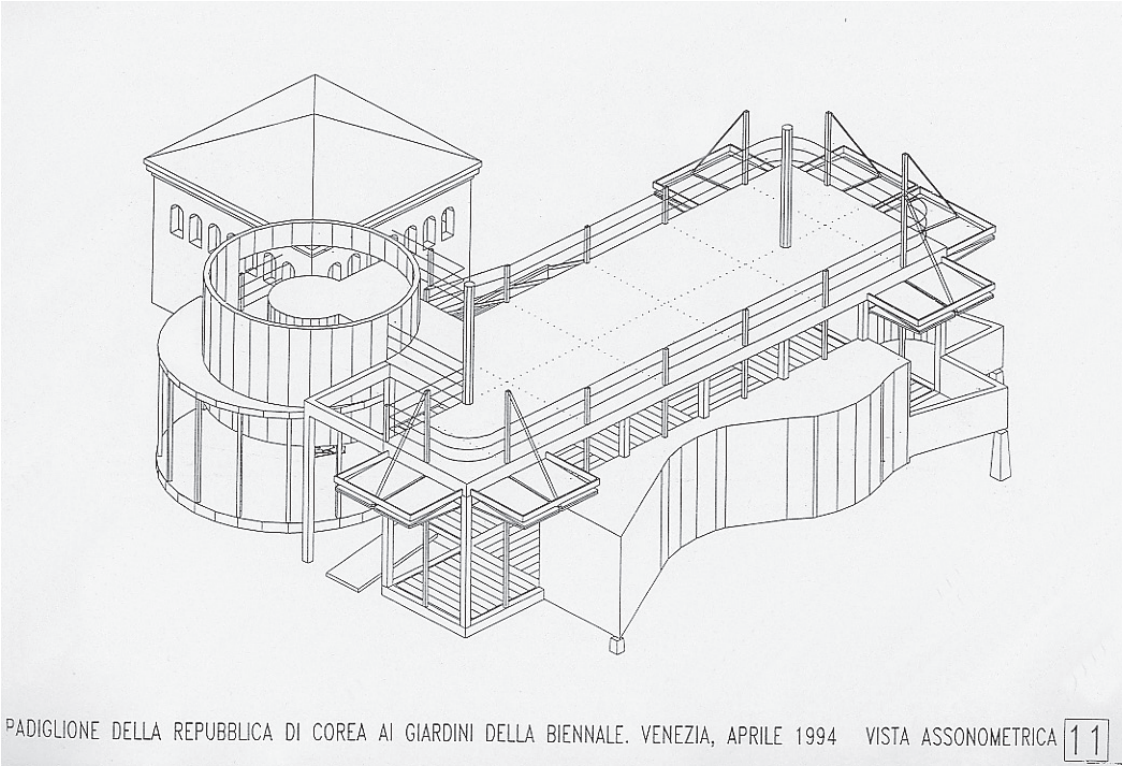
이런 혼란 속에서, "왜 집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구에서 예술과 그 전시 공간은 특정한 역사적 괘도 속에 함께 엮여 있다. 예술의 속성이 바뀌면서 그 전시 현장이 갤러리, 와이트 큐브, 창고, 도시 공간으로 변모해 나갔다. 이러한 역사적 괘도는 한국의 상황에도 의미는 있겠지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 한국의 짧고 엇갈린 서양화의 역사 속에서 "모더니즘 회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와이트 큐브라는 개념 역시 없다. "한국적인" 전시와 퍼포먼스 공간을 만든다는 책무를 다하려면 사대부가 서예와 그림을 즐겼던 문방 공간이나 다양한 퍼포먼스를 수용했던 바깥마당을 불러와야 한다.

김석철은 강한 조각적인 건축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적인 집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포용력이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집의 스케일을 유지하면서 전시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건축을 창출하였다. 인접한 독일관에서는 한스 하케가 히틀러의 지시로 깔렸던 대리석 바닥을 부숴버린 적이 있었다. 무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무거운 건축과는 달리 한국관에는 편안함이 있다.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한국관의 전시들은 그 건축에 다양하게 대응하고 이를 편하게 변형하였다. 한국관의 스케일과 현장감에 기대어 집의 풍경을 흡수하고 재연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용백 작가의 마네킹들은 가정이라 할 수 밖에 없는 폭력과 슬픔의 장면들을 담아냈다. 2010년에 건축가 조정구는 한국관 안에 한옥을 맞추어 넣었다. 2005년 최정화는 빨간 바구니 벽으로 2층을 편하게 증축했다. 작가들이 설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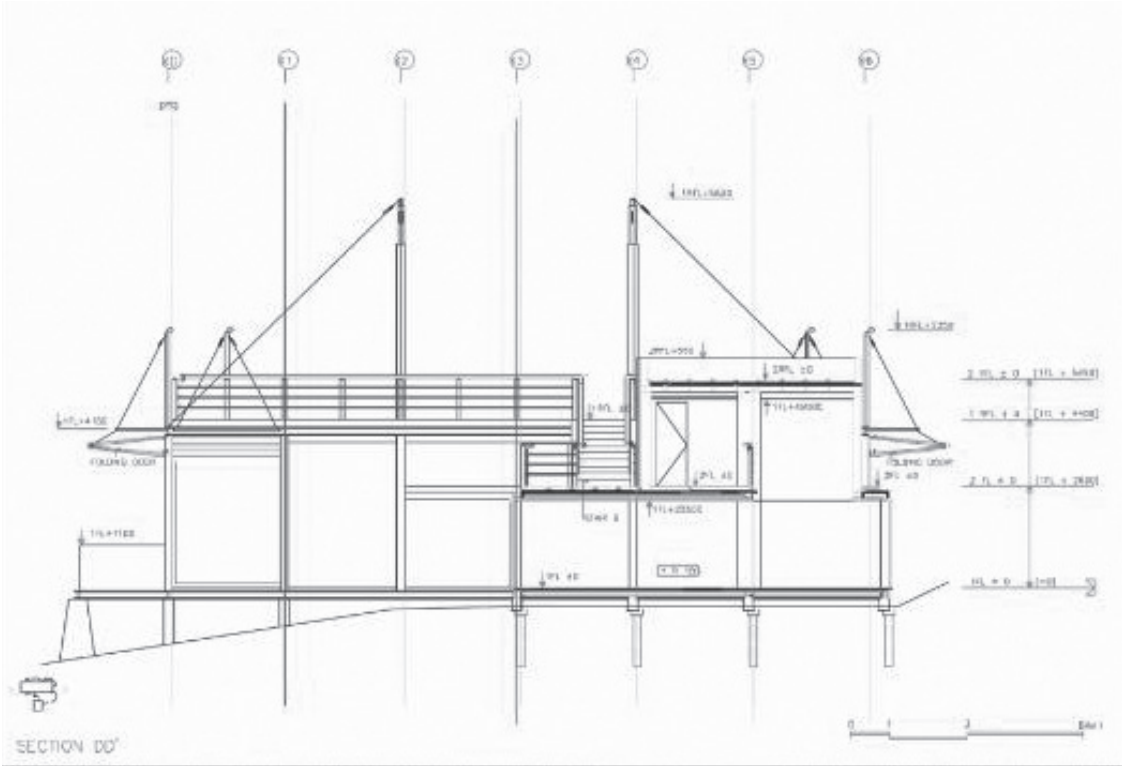
살림 집기와 함께 한국관의 건축은 집에 있다는 것과 집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집에 머문다는 것은 본질적이면서 불안한 상황이다. 독립된 국가관으로 자르디니에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한국관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런 위태로움을 말해준다. 자르디니의 축선에서 볼 때, 이 집이 없어진다 해도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기억을 지우는 것이 서양 미학의 핵심이라면,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자기 집이다. 서양 문화는 마치 자기 집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곤 한다. 하지만 건축은 집과 집의 삶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다. 100년 전 아돌프 로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건축은 예술과 일상의 경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자르디니의 여러 국가관과 마찬가지로 한국관의 건축은 그 공간과 공생하는 전시와 담론의 규준선을 제공한다. 한국관이 던지는 질문은 권력의 문제, 즉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미니 박물관들로 가득한 이상한 정원, 옛 한국과는 전혀 다른 수상 도시에 뒤늦게 자리 잡은 이 집은 이질적인 기억 장치 간의 만남을 주선한다. 집에 머물고 싶은 마음과 집을 떠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며, 한국관은 계속 자신을 찾아가는 열린 공간이다.

* 이 글은 2012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기간 동안 건축가 프로젝트 〈Diener & Diener〉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의 동의 아래 재수록되었다.

배형민 /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The Key Concepts of Korean Architecture》(2012)의 공동 편집자 겸 저자. 그는 2008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의 큐레이터, 김수근의 전시 〈Dense Modernities〉(Berlin Aedes Gallery, 2011)의 큐레이터,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수석 큐레이터를 역임한 바 있다.




FIRST FLOOR PLAN


SECTION DD'

7) 보수 공사 견적비 비교 내역

견적 비교 내역서 금액 단위 EURO

내 역	건축가 : 김은정 공사업체 : 리오마린	건축가 : 까살리 공사업체 : 코. 뉴 테크	비 고
내부 철거 및 복구	4,040.00		코. 뉴 테크 견적서에 관련 항목 누락
외부 도색	22,480.00	52,718.37	리오마린은 작업 단계별로 한국관 보호를 위해 보호막 설치와 해제 등의 작업이 상세히 포함되었고 코. 뉴 테크는 한국관 보호를 위한 작업을 현장에서 판단하여 실행 : 세부 견적서 내역 참조
내부 도색	13,960.00	13,272.97	
마루 바닥 연마	5,060.00	12,357.00	
덧창 제작 및 설치	35,450.00	54,000.00	
주 출입구 확장	31,980.00	12,000.00	코. 뉴 테크측 견적서에는 기존 출입구 철거 및 유리 구입, 설치 비용 미포함. 이에 따른 추후 공사비 증가
한국관 하부 철망 설치	4,820.00	5,200.00	
건축가 비용(세금 포함)	12,827.30	10,696.40	코. 뉴 테크측 까살리 건축가 견적액 20% 할인
예상공사기간	80 일	120 일	
참고	리오 마린 업체의 경우 6 년 동안 한국관 공사를 담당 하고 있어 한국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요구되는 세부 작업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상세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따라서 공사 실행 시 큰 추가 공사비의 발생은 예상되지 않음. 리오 마린 업체는 10 년 이상 독일관, 영국관, 스위스관 등 비엔날레 공원 안에 위치한 8-10 개국 공사를 담당하고 있어 작업의 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공사에 사용될 기본 장비를 영국관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어 장비의 운송비 등이 절감되어 공사비가 타 업체에 비해 저렴함.	금년 한국관 보수 및 유지 공사를 위해 김승덕 커미셔너측에서 직접 선정한 건축 사무소. 한국관을 방문하여 공사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한국관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충분치 않아 견적서에 누락된 항목이 있어 추가 공사비 증가가 예상됨. 목재부분(곡선벽과 테라스)과 벽돌벽의 공사비 견적 시 내,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항목으로 견적을 하였으므로 본 비교내역서 작성 시 이동분하여 내부도색과 외부도색에 각각 포함시킴.	

* 공사 항목 중 “한국관 주 출입구 확장”은 기존 한국관의 주출입구(1660 - 손잡이 포함 시 1460 - ×2170mm)가 협소하여 매년 전시 작품이 한국관 내부로 운반될 때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 확장 (1900×3400mm)이 요구됨.

* 공사 항목 중 “한국관 하부 철망 설치”는 한국관 후면(운하쪽)의 하부와 지면 사이 공간에 전시가 없는 동안 부랑자들이 기거를 하면서 주변에 배설물을 분비하고 쓰레기를 쌓아놓는 일이 빈번하여 한국관 안전을 위해 설치가 요구됨.

* 한국관 보수 및 유지 공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베니스 시청과 문화재 보호관리국에서 발급)를 알아본 결과 서류가 접수되면 발급되기까지 5~6개월이 소요되므로 공사 신고와 허가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류 작성과 접수가 요구됨.

* 한국관 보수 및 유지 공사 항목 중, 한국관의 외관 변화에 관련된 “외부 도색 (색상 변경 시)”, “금속 덧창 제작 및 설치”, “한국관 주 출입구 확장”은 베니스 시청과 문화재 보호관리국의 심의를 통한 허가가 있어야만 공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신고로 공사가 가능한 “동일 색상으로 외부 도색”, “내부 공사”는 서류 접수 후 신고에 대한 협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서류 접수증으로 즉시 공사가 가능함), 이 중 “금속 덧창 제작과 설치”와 “한국관 주 출입구 확장”은 서류 접수 후 일단 제작을 시작하고 허가서가 발급된 후 설치를 하면 되지만 “색상이 변경된 외부 도색”은 허가서가 발급된 이후에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예상 작업 기간을 고려할 때 작업이 불가능함.
  또한 “금속 덧창 제작 및 설치”와 “한국관 주 출입구 확장”은 한국관 유지와 작품 설치를 위한 합리적인 작업이지만 “색상이 변경된 외부 도색”은 선택 작업이므로 공사 허가를 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함.

* 두 업체가 제출한 공사 내용과 공사 견적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교내역서 작성을 위해 변준희 건축가의 자문을 구함.





8) 스태프 티셔츠 도안

spread shirt | BULK

Contact / name: Seungduk Kim
E-Mail:
Phone:

Your delivery- and invoice address:

noncommittal quote: 55_13_265

Your agent: Katrin Röttgermann / Florian Zimmermann
02.05.2013

Please sign and resend by fax to: 0049 (0)3 41 / 59 400 5859

Preview	Preview
The previews are just for illustration	



Position:	middle of the chest	Position:	
Printing type:	screenprint	Printing type:	
Printing size:	after agreement	Printing size:	
Printing colour:	metallic and base layer	Printing colour:	

Print	Product	Colour	Size	Amount	Single Price (net)	Sum net
	B&C Exact 150 T-Shirt (Classic Shirt) 100% cotton, 145 g/m²	white	S-XXL	25		
	B&C Exact Women 150 T-Shirt (Classic Shirt) 100% cotton, 145 g/m²	white	S-XXL	25		

Advice:

Shipping Standard France Express	
Sum net	
VAT 19.6%	
Total sum gross	

Description of the design (Swiss cross for example):
(to be completed by the customer if the sprd.net AG has no design)

The quoted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and include print and textile costs
With the total amount of pieces you can choose freely between textiles and sizes.

The offered textiles can vary from the Spreadshirt online assortment.
All prices are only valid regarding the specified colours and products.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sprd.net AG, division Spreadshirt Bulk, apply to all orders.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enclosed

Herewith, we place an order with sprd.net AG, division Spreadshirt Bulk,
concerning the quote specified above.

place, date

company
company stamp

name
signature

sprd.net AG · Gießerstr. 27 · 04229 Leipzig · Germany · bulk@spreadshirt.net · fon +49 341 59 400 5830 · fax +49 341 59 400 5859
Deutsche Bank Leipzig · Kto.Nr.: 1 266 261 · BLZ: 860 700 24 · SWIFT-BIC: DEUTDEDBLEG · IBAN: DE 3886 0700 2401 2662 6100
Aktiengesellschaft mit Sitz in Leipzig · USt.-ID: DE 8138 7149 4 · HRB 22478 · Amtsgericht Leipzig · Aufsichtsratsvorsitzender: Lukasz Gadowski
Vorstand: Philip Rooke (CEO) · Tobias Schaugg · www.spreadshirt.net

2 개막

1) 국가관별 개막식 일정

la Biennale di Venezia
Arte
Architettura
Cinema
Danza
Musica
Teatro
Archivio Storico

Venezia 29 apr 2013

Paese	*Data*	*Ora*	*Indirizzo*	*Luogo*	*Tipo*
Norvegia	29 maggio 2013	10,00	*Galleria di Piazza San Marco of Fondazione Bevilacqua La Masa*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Germania	29 maggio 2013	10,30		*Padiglione (della Francia)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Australia	29 maggio 2013	10,30		*Padigl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e Inaugurazione*
Francia	29 maggio 2013	10,30		*Padiglione (della Germania)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Francia	29 maggio 2013	11,00		*Padiglione (della Germania) ai Giardini*	*Inaugurazione*
Germania	29 maggio 2013	11,00		*Padiglione (della Francia) ai Giardini*	*Inaugurazione*
Olanda	29 maggio 2013	11,00		*Padigl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e Inaugurazione*
Maldive	29 maggio 2013	13,00	*Gervasuti Foundation,via garibaldi*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Canada	29 maggio 2013	13,30		*Padigl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Austria	29 maggio 2013	14,00		*Padilg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Russia	29 maggio 2013	14,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Libano	29 maggio 2013	14,30		*Padiglione all'Arsenale*	*Conferenza Stampa*
Repubblica Popolare Cinese	29 maggio 2013	15,00		*Padiglione in Arsenale*	*Inaugurazione*
Paesi Nordici (Finlandia)	29 maggio 2013	15,00		*Padiglione ai Giaridni*	*Inaugurazione*
Austria	29 maggio 2013	15,30		*Padilg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Giappone	29 maggio 2013	15,3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Libano	29 maggio 2013	15,3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Canada	29 maggio 2013	16,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Danimarca	29 maggio 2013	16,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Svizzera	29 maggio 2013	16,00		*Padigl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Romania	29 maggio 2013	16,15		*Padigl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e Inaugurazione*
Gran Bretagna	29 maggio 2013	16,3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Repubblica del Kosovo	29 maggio 2013	16,3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Cile	29 maggio 2013	17,00		*Padiglione in Arsenale*	*Conferenza stampa e inaugurazione*

Paraguay	29 maggio 2013	17,00	*Palazzo Carminati, Santa Croce 1882,*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Argentina	29 maggio 2013	17,0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Belgio	29 maggio 2013	17,00		*Padiglione ai Giaridni*	*Inaugurazione*
Nuova Zelanda	29 maggio 2013	17,00	*Istitutio Santa Maria della Pieta (La Pieta)*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Regno del Bahrain	29 maggio 2013	18		*Padiglione all'Arsenale*	*Ianugurazione*
Repubblica Araba Siriana	29 maggio 2013	18,30	*Isola di San Servolo*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Romania	29 maggio 2013	19,00	*Romanian Institute for Culture and Humanistic Research di Venezia, Cannaregio 2214-30121.*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Croazia	29 maggio 2013	20,00	*Sala Tiziano, Opera don Orione Artigianelli, fondamenta delle Zattere ai Gesuati 919*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CENTRAL ASIA PAVILION	30 maggio 2013	9,00	*Palazzo Malipiero, San Marco 3199*	*Padiglione in venezia*	*Breakfast Panel Discussion & Opening Reception*
Ungheria	30 maggio 2013	10,30		*Padiglione ai Giaridni*	*Inaugurazione*
Italia	30 maggio 2013	11,30		*padiglione all'Arsenale*	*Conferenza stampa a seguire inaugurazione*
Stati Uniti d'America	30 maggio 2013	11,30		*Padigl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e Inaugurazione*
Polonia	30 maggio 2013	12,00		*Padiglione ai Giaridni*	*Inaugurazione*
Serbia	30 maggio 2013	12,3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Israele	30 maggio 2013	12,30		*Padigl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Bahamas	30 maggio 2013	13,0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i*
Israele	30 maggio 2013	13,3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Tuvalu	30 maggio 2013	14,00	*Forte Marghera, Mestre Venezia*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Thailandia	30 maggio 2013	14,00	*Santa Corce 556*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Turchia	30 maggio 2013	14,30		*Padiglione in Arsenale*	*Inaugurazione*
Repubblica di Corea	30 maggio 2013	15,30		*Padigl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Emirati Arabi Uniti	30 maggio 2013	15,3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Repubblica Ceca e Repubblica Slovacca	30 maggio 2013	16,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Repubblica di Corea	30 maggio 2013	16,3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Irlanda	30 maggio 2013	16,30	*Fondaco Marcello San Marco 3415 (Calle dei Garzoni)*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e Conferenza stampa*
Repubblica di Armenia	30 maggio 2013	16,45	*isola di San Lazzaro degli Armeni*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Uruguay	30 maggio 2013	17,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Lituania	30 maggio 2013	17,00	*Palasport "Giobatta Gianquinto" (Palasport Arsenale), Calle San Biagio*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Repubblica di Cipro	30 maggio 2013	17,00	*Palasport "Giobatta Gianquinto" (Palasport Arsenale), Calle San Biagio*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Georgia	30 maggio 2013	17,15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Granducato di Lussemburgo	30 maggio 2013	17,30	*Ca' del Duca Corte del Duca Sforza 3052 San Marco*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Repubblica Popolare del Bangladesh	30 maggio 2013	18,00	*Officina delle Zattere Dorsoduro 947*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Kenia	30 maggio 2013	18,00	*Isola di San Servolo*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Angola	30 maggio 2013	18,00	*Palazzo Cini, Fondazione Cini San Vio, Dorsoduro*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Kuwait	30 maggio 2013	18,00	*Palazzo Michiel dal Brusà Cannaregio 4391/A / Strada Nova*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Montenegro	30 maggio 2013	18,30	*Palazzo Malipiero (S. Marco 3078-3079/A, Ramo Malipiero Venezia - Piano Terra*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Kenia	30 maggio 2013	18,30	*Caserma Cornoldi*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Repubblica di Slovenia	30 maggio 2013	19,00	*Galleria A+A, San Marco, Calle Malipiero 3073*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Bosnia Erzegovina	30 maggio 2013	19,30	*Palazzo Malipiero, San Marco 3198*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Costa d'Avorio	31 maggio 2013	11,30	*Spiazzi, Arsenale, Castello 3865,*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Brasile	31 maggio 2013	12,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Spagna	31 maggio 2013	12,3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Venezuela	31 maggio 2013	14,3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Lettonia	31 maggio 2013	15,00		*Padiglione all'Arsenale*	*Ianugurazione*
Ex Repubblica Jugoslava di Macedonia	31 maggio 2013	15,00	*Scuola dei Laneri, Santa Croce 113/A*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Islanda	31 maggio 2013	16,00	*Lavanderia, Palazzo Zenobio, Collegio Armeno Moorat-Raphael, Fondamenta del Soccorso, Dorsoduro 2596*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Istituto Italo Latino Americano	31 maggio 2013	16,3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Padiglione Venezia	31 maggio 2013	16,3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Estonia	31 maggio 2013	17,00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Egitto	31 maggio 2013	17,3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Sudafrica	31 maggio 2013	17,3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Costa Rica	31 maggio 2013	18,00	*Ca'Bonvinci*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Portogallo	31 maggio 2013	18,00		*barca rica dei partigiani*	*Inaugurazione*
Cuba	31 maggio 2013	18,30	*Museo Archeologico, Palazzo reale, Piazza San Marco*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Repubblica dell' Azerbaijan	31 maggio 2013	18,30	*Palazzo Lezze Campo S.Stefano San Marco 2949*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2) 한국관 프리오프닝 기간 일정





날짜	시간	위치	방문 기관명	인원수	기관 담당자
2013. 5. 25	15시	한국관	3D(베니스비엔날레 웹사이트 비디오 프로듀서)	–	Matteo Moneta
2013. 5. 27 부터 시작	–	한국관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심사위원단 전 국가관 방문 시작	–	–
2013. 5. 28	미정	한국관	호주관	1	Simon Mordant AM(호주관 커미셔너)
	13~14시	한국관	이탈리아 스카이 TV와 인터뷰	5	Alessandra Galletta
	미정	한국관	–	1	Lorenzo Bruni(이탈리아 큐레이터, 기자)
	16시~ 16시 30분	한국관	Art21(촬영 설치)	1	Jared(카메라맨)
2013. 5. 29	14시 30분~ 15시 30분	한국관	테이트 모던(Tate Modern) 단체	100	Nathalie Debono
	15시 30분~ 16시	한국관	구겐하임(Guggenheim) 단체	30	Nancy Spector 및 어소시에이트 큐레이터 Katherine Brinson, Halsey Stebbins
2013. 5. 30	10시 30분	한국관	뉴뮤지엄(New Museum) 단체	22	Jane McCarthy
	15시 30분~ 16시 10분	한국관	프레스 오프닝	30	–
	16시 30분~ 17시 30분	한국관	공식 오프닝	200	–
	20~22시	호텔 다니엘 (Hotel Danieli)	VIP 디너	200	–
2013. 5. 31	10시 30분	한국관	이스라엘 패트론(Israeli Patron) 단체	–	Adi Puterman
	12시	식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 VIP	50	–
	15~16시	한국관	Art21(다큐멘터리)	5	Susan Sollins, Diana Al Habib
2013. 6. 3	12시	한국관	콜롬비아대학교 (Columbia University)	25	Carol Becker (콜롬비아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3) 개막식 초청자 명단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_la Biennale di Venezia

How to fill in the form

Section	Description	Link
Contact Person information and postal details	Please enter reference data of the person filling in the form	Go to the contact person section
Invitations for artists, team and organizers (from May 28th)	Please fill the second spreadsheet with names, e-mail addresses and positions of commissioners, curators, deputy commissioners, deputy curators, scientific committees and artists. A limited number of 20 invitations will be available for organisers. Each invitation is strictly personal and will enable to attend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on the following vernissage days as well (May 29th, 30th, 31st). Please fill the second spreadsheet with their names, e-mail addresses and positions.	Go tho the team and organisers' section
Invitations for political authorities (from May 29th)	The President of La Biennale would be delighted to personally send an invitation (valid for two people for May 29th, 30th, 31st 2013) to the Ambassador as well as to all political authorities of your country. Please fill the third spreadsheet with name, position, body and e-mail addresses of all political authorities interested in the event.	Go to the political authorities' section
Invitations for sponsors (from May 28th)	Please fill the forth spreadsheet with names, e-mail addresses and companies of your sponsors. A limited number of 20 invitations will be available for your sponsors, each invitation is strictly personal.	Go to the sponsors' section

Should you have any doubt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

Micol Saleri
La Biennale di Venezia
Address:
Tel. +39 041 5218720 - Fax +39 0415218704
e-mail: micol.saleri@labiennale.org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_la Biennale di Venezia

Contact person_data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Email	Telephone
1	Mrs.	KIM	Seungduk	Curator /	Pavilion of Korea		

Sponsors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e-mail address	Telephone
1	Mr	KIM	Jungju	Founder	NEXON		
2	Mrs.	YOO	Junghyun		NEXON		
3	Mr	MYUNG	Sungwan	President	Samsung Electronics Italia		
4	Mrs.	KIM	Eunhee				
5	Mr	SONG	Byoungha	Manager	Samsung Electronics		
6	Mrs.	JUNG	Eunkyoung				
7	Ms	COLEMAN	Eliza	Director	Kukje Gallery		
8	Mr	MOORE	Randy	Director	Kukje Gallery		
9	Ms	KIM	Suzie	Director	Kukje Gallery		
10	Mrs	LEE	Hyun-Sook	Owner	Kukje Gallery		
11	Mr	CHUNG	Jaewoong	Director	Kukje Gallery		
12	Mr	SPRADLEY	Phillip	Coordinator	Kukje Gallery		
13	Mrs	SOFYANTI	Pia	Coordinator	Kukje Gallery		
14	Ms	AHN	So-Yeon	Deputy Director	Samsung Cultural Foundation		
15	Ms	HONG	Na-Young	Deputy Director	Samsung Cultural Foundation		
16	Mrs.	CORTESE	Raffaella	Owner	Galleria Raffaella Cortese		
17	Mrs.	HUTTROP	Barbara	Director	Kewenig Gallery		
18	Mr	KEWENIG	Jule	Owner	Kewenig Gallery		
19	Mr	TSCHUDI	Ruedi	Owner	Gallery Tschudi		
20	Mrs.	BISIG	Elsbeth	Owner	Gallery Tschudi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_la Biennale di Venezia

Contact person_data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Email	Telephone
1	M.	HEYLENS	Maxime	PR & Com officer	Pavilion of Korea		

Artists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e-mail address	Telephone
1	Ms.	KIMSOOJA		Artist	Kimsooja Studio		

Curators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e-mail address	Telephone
1	Mrs.	KIM	Seungduk	Curator / Commissioner	Pavilion of Korea		

Commissioners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e-mail address	Telephone
1							

Deputy Commissioners/Curators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e-mail address	Telephone
1	Ms.	HO	Kyoung-yun	Deputy commissionner	Pavilion of Korea		

Scientific Committees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e-mail address	Telephone
1							

Organisers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e-mail address	Telephone
1	Mr	GAUTHEROT	Franck	Production officer	Pavilion of Korea		
2	Mr	HEYLENS	Maxime	PR & Com officer	Pavilion of Korea		
3	Mr	CHONG	Jaeho	Architect			
4	Mr	ZAVATTINI	Bernardo	Studio Architect/ Design /Lighting Adviser	Kimsooja Studio		
5	Mr	McNAMARA	Graham	Studio Assistant	Kimsooja Studio		
6	Ms	QUILLINAN	Susie	Studio Assistant	Kimsooja Studio		
7	Mr	COUDERT	Gilles	Documentary Production	APRES, Paris		
8	Mr	ZORDAN	Luca	Co-ordination			
9	Mr	CHO	Youngsang	Web master			
10	Mr	CHO	Taesang	Web designer	Byul		
11	Ms.	KIM	Eun-Jeong	International Exchange Division	Arts Council Korea		
12	Ms	KIM	Tina	Director	Kukje Gallery		
13	Mrs	ERDEM	Ceren	Director	Kukje Gallery		
14	Ms	CHUN	Zoe	Public Relations Director	Kukje Gallery		
15	Mr	KO	Un	Poet			
16	Ms.	LEE	Sanghwa				
17	Ms.	YOON	Youngae				
18	Mrs.	BIUNDO	Floriana	Director	Galleria Raffaella Cortese		
19	Mrs.	RUBIO	Oliva Maria	Owner	La Fabrica		
20	Mr	KEWENIG	Michael	Owner	Kewenig Gallery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_la Biennale di Venezia

Contact person_data (legenda)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Email	Telephone
1	Ms.	HO	Kyoung-yun	Deputy commissionner	Pavilion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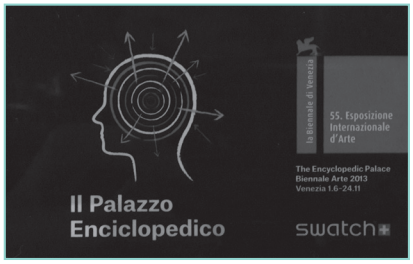
Autho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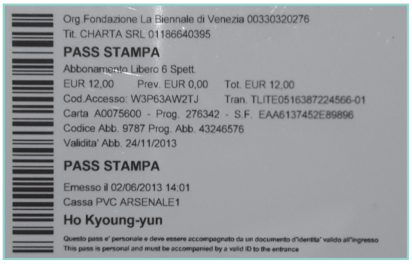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Body	e-mail address	Telephone
1	Ambassad	KIM	Young-Seok	Korean ambassador	Korean Embassy in		
2	Councilor	SHIN	Hoseok	Consul	Korean Embassy in		
3	Mr	D'ORVILLE	Hans	Director, Bureau for Strategic Planning	UNESCO		
4	Minister	YOO	Jinryo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5	Vice-Minister	CHO	HyunJa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6	Director general	KIM	Taehoon	Arts Bureau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7	Director	KIM	Nakjung	Arts Policy Divisi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8	Deputy director	OH	Jinsook	Arts Policy Divisi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9	Director	SEO	Eun-Ji	Culture and Art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0	Chairman	KWON	Young-Bin	Council	Arts Council Korea		
11	Director	JANG	Yong-Suk	International Exchange	Arts Council Korea		
12	Director	LEE	Han-Shin	Arko Museum	Arts Council Korea		
13	Manager	CHA	Hwa-June	International Exchange	Arts Council Korea		
14	Manager	BAIK	Sun-Ki	International Exchange	Arts Council Korea		
15	Team staff	RYU	Jae-Soo	International Exchange	Arts Council Korea		
16	Team staff	YIM	Ki-Hyun	International Exchange	Arts Council Korea		
17	Team staff	LEE	Sang-Hee	International Exchange	Arts Council Korea		
18	Team staff	YOO	Byung-Eun	International Exchange	Arts Council Korea		
19	Team staff	KIM	Hyo-Eun	International Exchange	Arts Council Korea		
20	Chairman	KWON	Young-Bin	Council	Arts Council Korea		

프리오프닝 초청 티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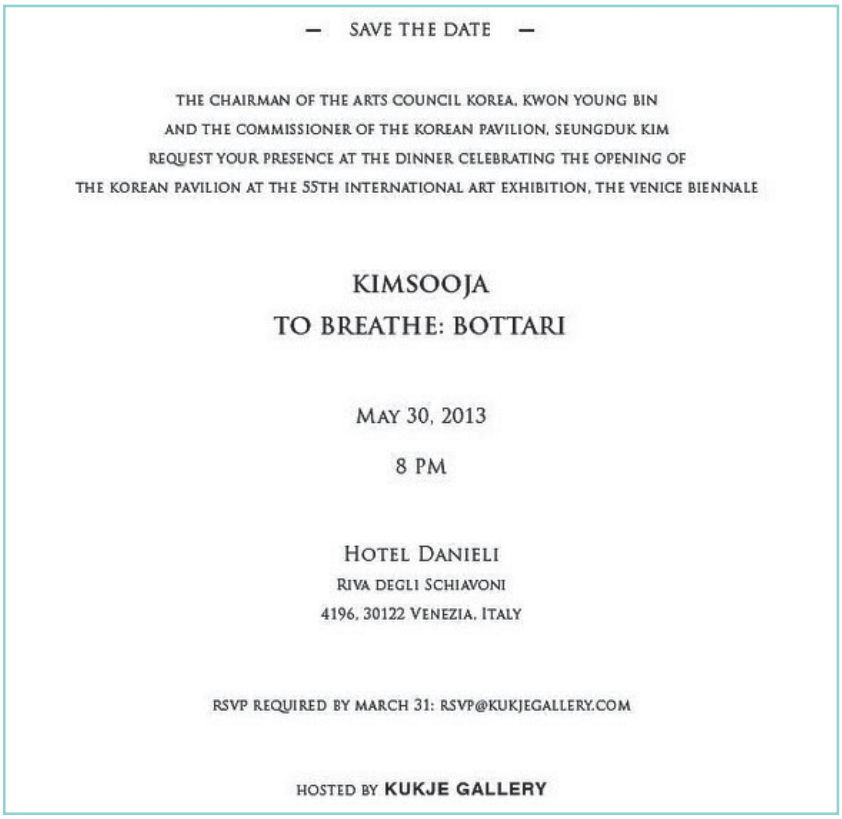
프리오프닝 초청 카드





4) 디너 파티

장소 호텔 다니엘리(Hotel Danieli, Riva Degli Schiavoni, 4196, 30122, Venezia, Italy)
일시 2013년 5월 30일 20시
주최 국제갤러리
참석 인원 200여 명



— SAVE THE DATE —

THE CHAIRMAN OF THE ARTS COUNCIL KOREA, KWON YOUNG BIN
AN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PAVILION, SEUNGDUK KIM
REQUEST YOUR PRESENCE AT THE DINNER CELEBRATING THE OPENING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THE VENICE BIENNALE

KIMSOOJA
TO BREATHE: BOTTARI

MAY 30, 2013
8 PM

HOTEL DANIELI
RIVA DEGLI SCHIAVONI
4196, 30122 VENEZIA, ITALY

RSVP REQUIRED BY MARCH 31: RSVP@KUKJEGALLERY.COM

HOSTED BY **KUKJE GALLERY**

5) 디너 파티 초청자 명단

	성	이름	직위	소속	동반인	출신 국가
1	Alberti	Siglinde				Italy
2	Annicchiaricco	Elianne				Italy
3	Antichi	Massimo	Collector			Italy
4	Augaitis	Daina	Cheif Curator/ Associate Director	Vancouver Art Gallery		Canada
5	Auvray	Sylvie	Artist			France
6	Baas	Jaquelynn	Writer/ Formal Director of Berkley Museum			USA
7	Bachelez	Chloe	Sooja Copyright Lawyer			France
8	Baroncelli	Silvia				Italy
9	Bazak	Ivan	Artist			Ukraine
10	Beato	Emanuele				Italy
11	Beccaria	Marcella	Collector			Italy
12	Beret	Chantal	Collections Contemporaines	Musée national d'art moderne, Centre Georges Pompidou		France
13	Bertola	Chiara	Artistic Director	Fondazione Querini Stempalia	Enric Bou(Husband of Chiara Bertola)	Italy
14	Biesenbach	Klaus	Director	PS1/MOMA		USA
15	Bonnotte	Catherine				France
16	Bony	Irene				France
17	Borrini	Laura				Italy
18	Bos	Saskia	Dean	The Cooper Union, School of Art		The Netherlands
19	Bourgeois	Caroline	Curator/ Adviser	Pinaud Collection	Olivier Diaz(Partner)	France
20	Bourriaud	Nicolas	President	École National Supérieure Des Beaux-Arts		France
21	Brolly	Jean				France
22	Brüderlin	Markus	Director	Kunstmuseum Wolfsburg		German
23	Bureau	Elise				France
24	Byun	Ji Hye	Curator	Seoul Museum of Art		Korea
25	Cameron	Dan	Director of Visual Arts	Orange County Museum of Art		USA
26	Camuffo	Andrea				Italy
27	Camuffo	Ettore				Italy
28	Carboni	Pier Luigi	Founder, Fondazione Remotti	Il Segno Del Tempo Antichita Industrial	Natalina Remotti	Italy
29	Carraro	Carlo	President	Università Ca'Foscari Venezia		Italy
30	Carraro	Carlo	Rector	Ca' Foscari University		Italy
31	Carusi	Giuliana Setari	President	Dena Foundation for Contemporary Art		Italy
32	Caselli	Stefano				Italy
33	Chang	Jia	Artist			Korea
34	Cho	Minsuk				Korea
35	Choi	Binna				Korea
36	Choi	Jinah	Artist			Korea
37	Claudel	Sophie	Attachée Culturelle French Ambassy in New York			France
38	Coletto	Stephan	Curator	Fondazione Bevilacqua La Masa, Universita Iuav di Venezia		Italy
39	Collard	Jean Max	Press			France

40	Cousseau	Henry-Claude	Directeur, Conservateur General du Patrimoine	Formal President of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Beaux-Arts	Deepak Ananth	France
41	D'Urso	Vincenza	Professor	Università Ca'Foscari Venezia		Italy
42	David	Caroline	Director	lille3000lille	Régis Servant	France
43	De Rossi	Cesare				Italy
44	Dellanoce	Maura				Italy
45	Derderian	Bernard				France
46	Di Liberto	Massimiliano				
47	Do	Jong Hwan	Member	National Assembly		Korea
48	D'Orville	Hans			Mehri Madarshahi - (Dinner guest of Hans d'Orvill) - h.dorville@ unesco.org	Iran/USA
49	Dourousx	Xavier	Co-Director	Le Consortium		France
50	Duguet	Anne-Marie	Professor - PhD of Sociology of Art	Univ. Paris 1 Panthéon-Sorbonne		France
51	Eccher	Danilo	Director	GAM Galleria civica d'arte moderna e contemporanea di Torino		Italy
52	Fabre	Alexia	Cheif curator/ Director	Musée D'Art Contemporain du Val-de-Marne	Joana Idieder(MAC/VAL Communications Director)	France
53	Farver	Jane	Curator/Writer	Independent	John L. Moore	USA
54	Fibicher	Bernard	Directeur	Musee Cantonal des Beaux-Arts	Christine Fibicher	Switzerland/ USA
55	Fominaya	Alvaro Rodriguez	Curator	Guggenheim Museum Bilbao		Spain
56	Ford Jebsen	Bettina	Collector			Switzerland
57	Forget	Emilie				France
58	Friedmann	Gloria	Artist			Germany
59	Gaddi	Nunzia	Collector			Italy
60	Gaddi	Vittorio	Collector			Italy
61	Galasso	Alessandra	Curator/Publisher		Norma Jeane AKA Luca Forcolini(Dinner Guest)	Italy
62	Gallina	Giorgia	Press	Fondazione Bevilacqua La Masa, Universita Iuav di Venezia		Italy
63	Govan	Michael	Director	"LACMA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USA
64	Guerrero	Tony	Director	FIAF, New York		USA
65	Han	Jae-Young	Console Generale	Consolato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 A Milano		Korea
66	Hancock	Caroline	Curator			UK
67	Hanru	Hou	Director of Exhibitions and Public Programs	San Francisco Art Institute		China/ France
68	Hegyi	Dr. h.c Lóránd	Director General, President of Association Apollonia	Musee Art Moderne of Saint-Etienne	Eunmi Lee-Hegyi	Hungaray/ Korea
69	Heiss	Alanna	Director	A.I.R. Art Internet Radio, The Clocktower	Fred Sherman	USA
70	Hoffmann	Frank	Independent Scholar			Germany
71	Hoffmann	Sylvia	PD Dr. med.			Switzerland
72	Hoffmann	Holger	PD Dr. med.			Switzerland
73	Hoffmann-Koenige	Erika	Founder/ Collector	Sophie Gips GbR		German
74	Holy	Jochen				USA

75	Holy	Susi				USA
76	Huh	Eun Chang	Wife of Consul	Consolato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 A Milano		Korea
77	Isshiki	Yoshiko	Organizer/ Public Relations/ Editor	Yoshiko Isshiki Office / ArtIT Magazine, Tokyo	Filippo Maggia	Japan
78	Jo	Ara	Curator	Seoul Museum of Art		Korea
79	Joo	Eungie	Curator			Korea
80	Kafetsi	Anna	Director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thens (EMST)	Elisabeth Loannedes	Greece
81	Kamps	Toby	Curator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e Menil Collection		USA
82	Kee	Joan	Writer	Professor of Michigan University		Korean/ USA
83	Kewenig	Justus	Director	Kewenig Gallery		German
84	Kim	Hong-Hee	Director	Seoul Museum of Art		Korea
85	Kim	Miki Wick	Critic			Korea
86	Kim	Stephanie Seungmin	Curator			Korea
87	Kim	Yun Duk	Member	National Assembly		Korea
88	Kim	Sunhee	Director	Daegu Art Museum		Korea
89	Kim	Sunghwan				Korea
90	Kim	Sunjung				Korea
91	Kim	TaeHee				Korea
92	Kim	Boggi	Press	Art in Culture		Korea
93	Kim	Hyunjin	Senior Curator	Ilmin Museum		Korea
94	Kim	Taeryung	Director	Ilmin Museum		Korea
95	Kim	Eunjung	Artist	Kyunghee University		Korea
96	Kim	Hyoungju	Film Director			Korea
97	Kim	Kira	Artist			Korea
98	Knox	Gordon	Director	Arizona State Museum	Julio Cesar Morales(Not in Dinner List)	USA
99	Knox	Gordon	Director	Arizona Uinv. Museum		USA
100	Koh	Kyungsok	Console	Consolato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 A Milano		Korea
101	Koskina	Katerina H.	President	"Hellenic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State Museum of Contemporary Art"	Greece
102	Lavier	Bertrand	Artist			France
103	Leboissetier	Gaita	Vice President	École National Supérieure Des Beaux-Arts		France
104	LEE	Bul	Artist			Korea
105	Lee	Hak Jae	Member	National Assembly		Korea
106	Lee	Sang Moo	Arts Policy Division	The Ministry of Culture		Korea
107	Lee	Yong Hoon	Director	Arts Council Korea		Korea
108	Lee	Soukyoun	Senior Curator	Daegu Art Museum		Korea
109	Lee	Mee Ok				Korea
110	Lee	Namsik				Korea
111	Lee	Yongwoo	President	Gwangju Biennale		Korea
112	Levin	Kim	Writer	Art News		USA
113	Levy	Natacha	Designer			France
114	Lim	Nancy	Curatorial Assistant, Department of Painting and Sculpture	The Museum of Modern Art		Korean/ USA
115	Liverani	Giuseppe	Publisher	Charta	Sonia Panzeri	Italy
116	Lukatsch	Wilma				Germany
117	Madoff	Steven Henry	Writer/ Curator	Modern Art		USA
118	Malagoli	Loris	Collector			Italy
119	Malsch	Dr. Friedemann	Director	Kunstmuseum Liechtenstein	Christiane Meyerstoll	Lichitenstein
120	Maria Rubio	Oliva	La Fabrica	Madrid		Spain
121	Martin	Jean-Hubert	Curator at large			France

122	Martin	Laure				France
123	Martinez de Aguilar	Ana	Director	Museo De Arte Contemporaneo Esteban Vicente		Spain
124	Martini	Gianni	Collector			Italy
125	Matt	Dr. Gerald	Formal Director	Kunsthalle Wien	Katarzyna Uszynska	Austria
126	Menegazzo	Rossella	Professor of Japanese Art History	Università Ca'Foscari Venezia		Italy
127	Mical	Isabelle				France
128	Minet	Geraldine				France
129	Miyake	Akiko	Programme Director	CCA Kitakyushu	Nobuo Nakamura/ Director of CCA Kitakyushu	Japan
130	Moisdon	Stéphanie	Curator			France
131	Monaci	Daniela				Italy
132	Moon	Hyungmin	Artist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133	Morello	Piero				Italy
134	Morello	Angela				Italy
135	Mossessian	Michel	Architect			France
136	Namkoong	Sun	Film Director	Taesang's wife		Korea
137	Natali	Massimo				Italy
138	Neuman	David	Director	Magasin 3 Stockholm Konsthall	Amy Simon	Sweden
139	Noh	Joon-Eui	Director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140	Noh	Suntag	Artist			Korea
141	Paek	Jongmin	Professor	Ufficio Dipartimento di Studi sull'Asia e sull'Africa Mediterranea		Korea
142	Paek	Jongmin				Korea
143	Palmigiano	Claudia	Collector			Italy
144	Palmigiano	Mariagrazia	Collector			Italy
145	Park	Gahee	Curator	Seoul Museum of Art		Korea
146	Park	Sung Ho	Member	National Assembly		Korea
147	Pasini	Francesca	Director	Fondazione Remotti		Italy
148	Pasternak	Anne	Director	Creative Time		USA
149	Pero	Valentina	Collector			Italy
150	Pero	Pierluigi	Collector			Italy
151	Pero	Giuseppe	Collector			Italy
152	Perret	Marisa	Collector			Italy
153	Petresin Bachelez	Natasa	Curator			France
154	Pfrunder	Petra	Dres.			Switzerland
155	Pfunder	Harry	Dres.			Switzerland
156	Pilan	Simone				Italy
157	Proch	Renaud	Executive Director	ICI(Independent Curators International)		Switzerland/ USA
158	Puccinelli	Fiorenza				Italy
159	Quarestani	Elena	Owner	Assab One		Italy
160	Reenberg	Holger	Director	Herni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Denmark
161	Robu	Sergio				Italy
162	Roccuzzo	Alexandre				France
163	Sans	Jerome	Independent Curator	Paris/ Beijing		France
164	Scolari	Massimo	Professor	Yale University		Itlay
165	Shim	Jeong Hee	Staff	National Assembly		Korea
166	Shin	Meekyoung	Artist	London		Korea
167	Sigg	Pierre	Collector			Switzerland
168	Simon	Theresa				UK
169	Simon	Mr. Peter	CEO/ Collector	Monsoon Accessories Limited		UK
170	Sirmans	Franklin	Chief Curator	LACMA		USA
171	Sollins	Susan	Executive Director	Art 21		USA
172	Szeemann	Ingeborg-Luescher	Artist			Switzer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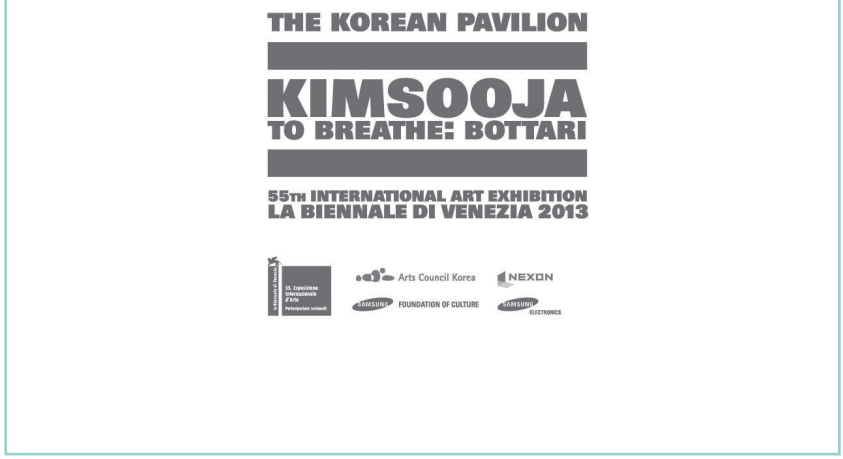
173	Tasin	Paolo	Collector			Italy
174	Thea	Carolee	Writer	Independent	Alma Ruiz, Senior Curator, LAMOCA	USA
175	Tiberio	Chiara	Director	Raffealla Cortese Gallery		Italy
176	Troncy	Eric	Curator			France
177	Tudor	Negruta				Italy
178	Tulbure	Giovanni				Italy
179	Varnholt	Burkhard P.	Dr.			Switzerland
180	Veilhan	Xavier	Artist			France
181	Verna	Gaëtane	Director	The Power Plant		Canada
182	Vettese	Angela	Director/ Professor	Fondazione Bevilacqua La Masa, Universita Iuav di Venezia		Italy
183	Vilardell	Mercedes	Collector			Spain
184	Viort	Nathalie	Curator			France
185	Visser	Mattijs	Director	Zero Foundation		The Netherlands/ German
186	Volk	Gregory	Writer	Art in America		USA
187	Von Drathen	Doris	Writer	Art Critic		German
188	Vuillerme	Jean-Louis				France
189	Vuillerme	Natacha	Curator			France
190	Wei	Lilly	Writer	Art News		USA
191	Weil	Robert	CEO	Magasin 3	Mrs. Pia Forsgren(Wife)	Sweden
192	Weinberg	Adam	Director	Whitney Museum		USA
193	Weinberg	Adam D.	Director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USA
194	Wendt	Selene	Director	The Stenersen Museum		Norway
195	Wetterwald	Elisabeth	Art Critic			France
196	Wien	Barbara				Germany
197	Woerndle	Sieglinde	Collector			Italy
198	Wong	Karen				Korea
199	Worndle	Sieglinde	Collector/ Adviser			Italy
200	Yablowsky	Linda	Writer/ Novelist	ArtForum.com		USA
201	Yang	Eujin	Curator	Ilmin Museum		Korea
202	Yi	Gi Mo	Curator	Seoul Museum of Art		Korea
203	Yoo	Ki Hong	Member	National Assembly		Korea
204	Yoon	Jae-Gab	Curator			Korea
205	Yoon	Youngae			Organisers	
206	Yoshitake	Mika	Assistant Curator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en		Japan
207	Zegna	Andrea	Collector			Italy
208	Zidianakis	Vassilis	Curator			Greece
209	Zugazagoitia	Julian	Meneffe D. and Mary Louise Blackwell Director & CEO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Mexico/ USA

3

홍보

1)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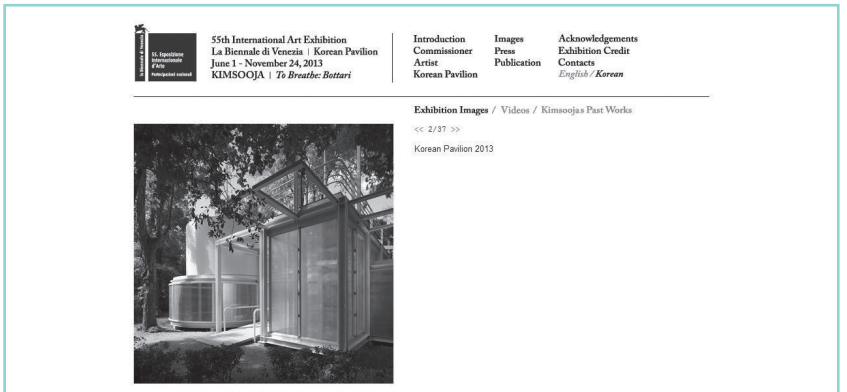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홈페이지 /www.korean-pavilion.or.kr
2013 한국관 홈페이지 / www.koreanpavilion2013.com
2013 한국관 전용 도메인을 만들어 국제적 접근성을 확보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La Biennale di Venezia | Korean Pavilion
June 1 - November 24, 2013
KIMSOOJA | To Breathe: Bottari
Introduction
Commissioner
Artist
Korean Pavilion
Images
Press
Publication
Acknowledgements
Exhibition Credit
Contacts
English / Korean
김승덕
김승덕은 미국 뉴욕 메리마운틴 팬허튼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으며,
뉴욕 종합대학에서 프랑스 문화사 석사, 컨터대학에서 미술사 석사학위를 받
았다.
이후 1998년 파리1대학에서 미술사 전공으로 DEA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했다
유럽에 거주하며 삼성문화재단(현 삼성미술관 리움) 자문 큐레이터
(1993~2000)를 지냈으며, 파리 퐁피두센터 어소시에이트 객원 큐레이터
(1996~1998)를 지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아트센터 르콩소르시옴에서 국제 전시기획 디렉
터로 활동하며,
프랑크 고트로와 함께 발랜시아 비엔날레 커미셔너(2005),
몰리워 파워 문화 수도 할전시(2004),
안양 공공 예술 프로젝트 공동커미셔너 (2007), 야오이 쿠사마 순회전(2008-0
린다 벤글리스 순회전(2009-11) 등
다양한 국제 전시 프로젝트에 공동 큐레이터이자 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하
있다.
『Art in Culture』 『Art Press』 『Frog magazine』 등에 글을 쓰고 있으며,
국제큐레이터협회(IKT) 회원이다.
현재 르콩소르시옴의 코-디렉터,
카타르 도하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디렉터,
알레 드 도쿄의 프로그램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
주요 전시 기획 경력
2011
유르겐 텔러 : 터치 미, 매럼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2010
린다 벵글리스, 르 콩소르시옴, 디종, 프랑스 외
5개 미술관 (반브베미술관, IMMA, RISD, 뉴뮤지엄, LA현대미술관):
공동기획 순회전시 커미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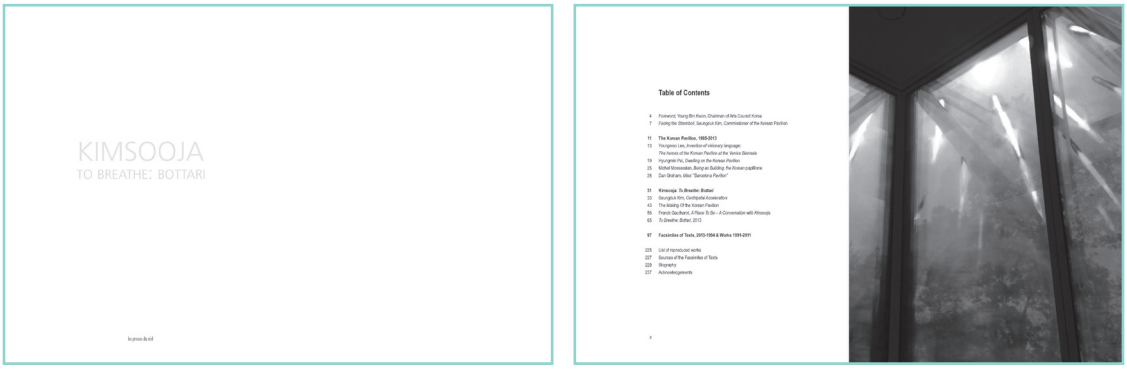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La Biennale di Venezia | Korean Pavilion
June 1 - November 24, 2013
KIMSOOJA | To Breathe: Bottari
Introduction
Commissioner
Artist
Korean Pavilion
Images
Press
Publication
Acknowledgements
Exhibition Credit
Contacts
English / Korean
김수자
1957년, 대구, 대한민국 출생
뉴욕, 파리와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
-
주요 개인전 경력 및 장소특정적 프로젝트
2012
김수자: 호흡, 국제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김수자: 설의 계적, 국제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김수자: 바늘 여인, 마이애미미술관, 마이애미, 미국
김수자, 생테티엔현대미술관, 생테티엔, 프랑스
잔잔한 카오스: 김수자의 지-수-화-풍, 페름현대미술관, 페름, 러시아
김수자, 쿤스트할44모면, 아스케비, 덴마크
2011
김수자, 대구미술관, 대구, 대한민국
김수자, UMCA, 애머스트, 매사추세츠, 미국
김수자: 몸바이: 벨라터, 설러번갤러리, 시카고아트인스티튜트, 시카고, 미국
2010
지-수-화-풍, NPPAP -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영광원자력발전소 아트프로젝트
영광, 대한민국
지-수-화-풍, 아폴리에베르메스, 서울, 대한민국
2009
김수자: 바늘 여인, 발틱현대미술관, 게이츠헤드, 영국
2008
로투스: 영의 지점, 토론토 라켄스타인, BOZAR, 브뤼셀, 벨기에
겨울 여인: 해와 달, 시세이도갤러리, 도쿄, 일본
2006
호흡 - 겨울 여인, 레이나소피아미술관의 크리스탈팔라스, 마드리드, 스페인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La Biennale di Venezia | Korean Pavilion
June 1 - November 24, 2013
KIMSOOJA | To Breathe: Bottari
Introduction
Commissioner
Artist
Korean Pavilion
Images
Press
Publication
Acknowledgements
Exhibition Credit
Contacts
English / Korean
Exhibition Images / Videos / Kimsoojas Past Works
<< 2/37 >>
Korean Pavilion 2013

2) 도록 및 리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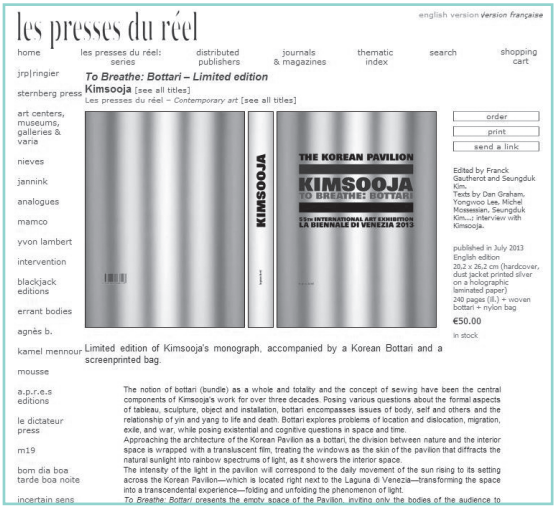
각종 홍보물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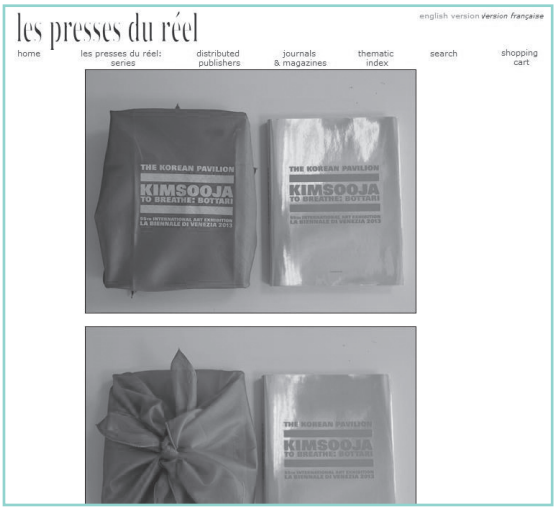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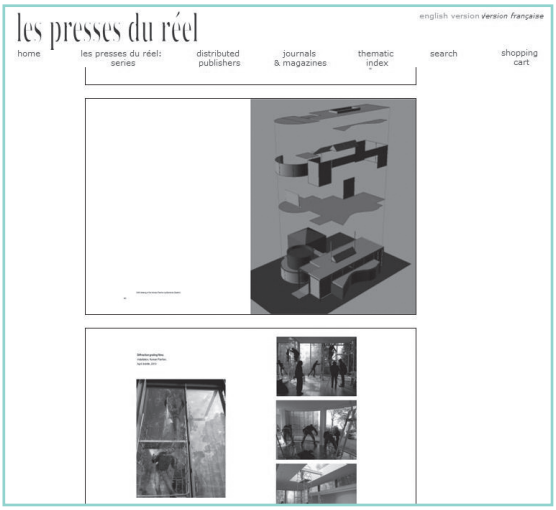
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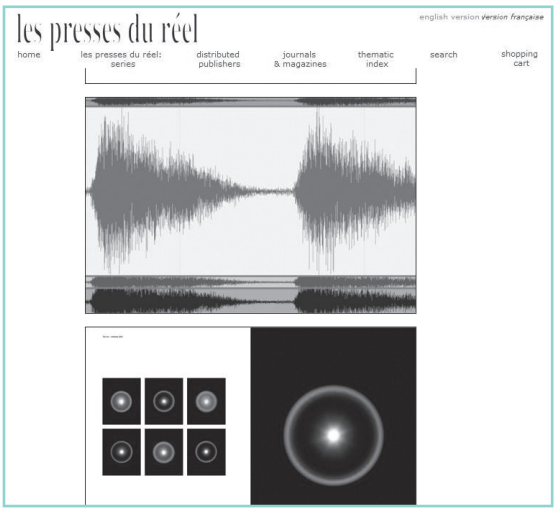
도록 출판사 / 레 프레스 뒤 레알(Les Presses du Re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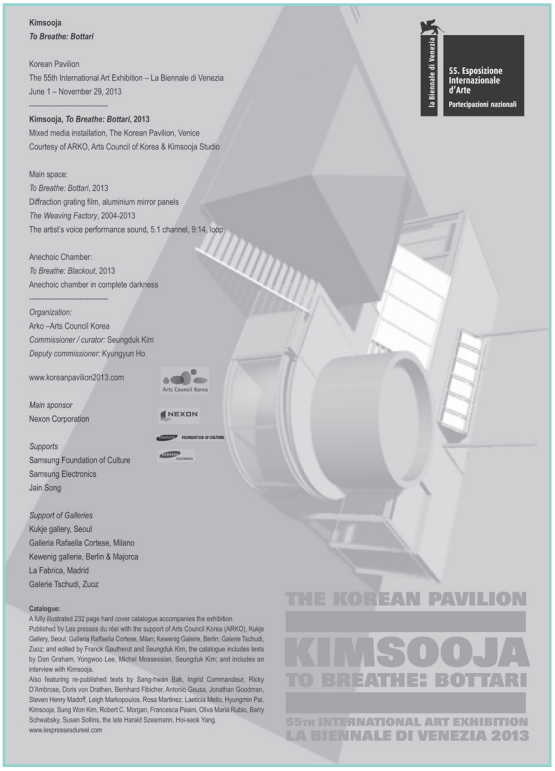








리플릿(한국어 / 영어 / 이탈리아어)



Kimsooja
To Breathe: Bottari

Korean Pavilion
The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 La Biennale di Venezia
June 1 – November 29, 2013

Kimsooja, *To Breathe: Bottari*, 2013
Mixed media installation, The Korean Pavilion, Venice
Courtesy of ARKO, Arts Council of Korea & Kimsooja Studio

Main space:
To Breathe: Bottari, 2013
Diffraction grating film, aluminium mirror panels
The Weaving Factory, 2004-2013
The artist's voice performance sound, 5.1 channel, 9:14, loop

Anechoic Chamber:
To Breathe: Blackout, 2013
Anechoic chamber in complete darkness

Organization:
Arko –Arts Council Korea
Commissioner / curator: Seungduk Kim
Deputy commissioner: Kyungyun Ho

www.koreanpavilion2013.com

Main sponsor
Nexon Corporation

Supports
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Samsung Electronics
Jain Song

Support of Galleries
Kukje gallery, Seoul
Galleria Rafaella Cortese, Milano
Kewenig gallerie, Berlin & Majorca
La Fabrica, Madrid
Galerie Tschudi, Zuoz

Catalogue:
A fully illustrated 232 page hard cover catalogue accompanies the exhibition.
Published by Les presses du réel with the support of Arts Council Korea (ARKO), Kukje Gallery, Seoul; Galleria Raffaella Cortese, Milan; Kewenig Galerie, Berlin; Galerie Tschudi, Zuoz; and edited by Franck Gautherot and Seungduk Kim, the catalogue includes texts by Dan Graham, Yongwoo Lee, Michel Mosseissian, Seungduk Kim; and includes an interview with Kimsooja.
Also featuring re-published texts by Sang-hwain Bak, Ingrid Commandeur, Ricky D'Ambrose, Doris von Drathen, Bernhard Fibicher, Antonio Geusa, Jonathan Goodman, Steven Henry Madoff, Leigh Markopoulos, Rosa Martinez, Laeticia Mello, Hyungmin Pai, Kimsooja, Sung Won Kim, Robert C. Morgan, Francesca Pasini, Oliva Maria Rubio, Barry Schwabsky, Susan Sollins, the late Harald Szeemann, Hoi-seok Yang.
www.lespressesdureel.com

THE KOREAN PAVILION
KIMSOOJA
TO BREATHE: BOTTARI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LA BIENNALE DI VENEZIA 2013

Kimsooja
To Breathe: Bottari

"Traditionally, la Biennale di Venezia exhibits artists hosted by their country of origin in national pavilions.
Rather like in World Expos, I wanted the Korean Pavilion itself to be the focus: the pavilion hosts an environment designed by an artist.
The architecture of the Korean Pavilion is metallic with glass windows, wide-open to the luminous laguna and surrounded by tall trees.
I decided to invite Kimsooja, a Korean-born artist self-exiled to New York, and internationally acclaimed for her video works and installations, to transform the Korean Pavilion into a space of special experience for the visitors. A moment of light, colors, and in a black hole."
Seungduk Kim

The notion of *bottari* (bundle) as a whole and totality and the concept of sewing have been the central components of Kimsooja's work for over three decades. Posing various questions about the formal aspects of tableau, sculpture, object and installation; *bottari* encompasses issues of body, self and others and the relationship of *yin* and *yang* to life and death. *Bottari* explores problems of location and dislocation; migration; exile; and war while posing existential and cognitive questions in space and time.
Approaching the architecture of the Korean Pavilion as a *bottari*, the artist has wrapped the division between nature and the interior space with a translucent film. Treating the windows as the skin of the pavilion, the film diffracts the natural sunlight as it showers the interior space with rainbow spectrums of light, .
The intensity of the light in the pavilion will correspond to the daily movement of the sun rising to its setting across the Korean Pavilion—which is located right next to the Lagna di Venezia—transforming the space into a transcendental experience—folding and unfolding the phenomenon of light.
To Breathe: Bottari presents the empty space of the Pavilion, inviting only the bodies of the audience to encounter the infinite reflections of light and sound. The artist's amplified inhaling, exhaling and humming performance sound (*The Weaving Factory*, 2004-2013) fills the air, transforming the pavilion into a breathing *bottari*.
Simultaneously, the artist extends the experience of light and sound by creating an anechoic chamber. A space in complete darkness that absorbs all audio waves, leaving nothing but the sound of the viewer's own body, *To Breathe: Blackout* (2013) creates a soundless dark void of infinite reflection of self: a black hole.
The artist invites audiences to be the live and active performers, experiencing a personal sensation and awareness that reveals the extremes of light and darkness, sound and soundlessness, the known and the unknown. This installation questions visual knowledge as *the known* and darkness as *the unknown*—that originates from human ignorance—through two visual extremes that are connected as part of a whole.
The Korean Pavilion will become a physical and psychological sanctuary, questioning the conditions of civilization in this era.

Kimsooja lives and works in New York, Paris and Seoul. She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tist whose work combines performance, installation, video, light and sound.
www.kimsooja.com

Seungduk Kim lives and works in Paris. She is a curator and co-director of Le Consortium contemporary art center, Dijon, France.
www.leconsortium.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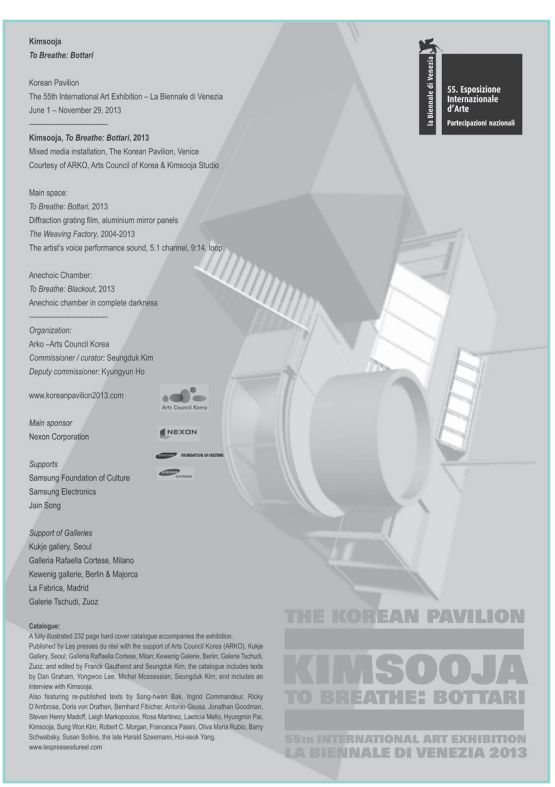
김수자
To Breathe: Bottari

"베니스 비엔날레는 각 나라를 위해 세워진 국가관에 각 나라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통을 유지해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 베니스 비엔날레는 엑스포처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나는 이번 전시를 한국관의 초점을 잡추어 진행하고자 했으며,한국 출신 작가를 초대하여 이 국가관에 특별한 환경을 디자인해 보모록 기획했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건물은 무리창과 메탈로 이루어져 있고, 전면에 위치한 빛이 천장한 라군을 함께 개방된 구조이며, 커다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다. 초대되기로 나는 김수자를 선택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스스로 타국으로의 예술적 망명을 선택한 김수자는 그간 비디오와 설치작업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이다. 그녀는 한국관을 명함의 관람객이 새로운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무일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그것은 빛과 색깔로 이루어진 순간의 경험, 그리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어둠이다."
김승덕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전체로서의 보따리 개념, 그리고 바느질이라는 개념은 지난 30년간 김수자 작업의 핵심을 이루어왔다 . 회화, 조각, 오브제, 설치의 형식적인 특이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김수자의 보따리는 이분법을 따나며 삶의 프레임으로써, 삶정하여 그중 하고 불커넘서 선택, 자아와 타자, 그리고 삶과 사, 음양의 갈등에 대한 존재들을 제기하였다. 또한 보따리는 장소와 전이, 이주, 망명, 그리고 전점의 문제들을 심도있게 질문하면서 시공간 내에서의 실존적이고도 인식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있다.
김수자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건물을 여러한 보따리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자연과 실내공간이 나누어지는 경계지점은 반투명 필름으로 싸여지므로, 작가는 유리창의 투명성을 한국관의 건축적 제무로써 접근하고 있다. 유리창의 접점을 통해 실내 공간에 도달하는 자연광은 반투명한 필름 성질로 인해 무지개색의 빛의 스펙트럼으로 회절된다. 내부의 빛의 강도는 베니스 라궁 주변에 위치한 한국관을 밝음하여 따끄 지는 태양의 하루의 운직임에 전적으로 하루 되며, 하루이도 주하세에 걸쳐 다세등게 변하할 것이다. 인공조명을 전혀 설치하지 않게 될 한국관은 빛의 시지각적 현상을 펴고 점는 파제트로써, 초일적인 경험의 공간으로 변모될 것이다.
(초점 : 보따리)는 오직 빈 공간으로 감저들을 초대한다. 그들의 신체는 공간 속에 들어와 빛과 소리의 무한한 반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들이쉬고 내쉬는 작가의 숨소리로 이루어진 사운드 퍼포먼스 (더 위빙 팩토리/The Weaving Factory, 2004-2013)가 전시의 공간을 서우며 팔팔는 빛의 굴절과 반사를 통해 한국관을 무한 확장하기 바나의 숨쉬는 보따리로 바꾸어놓을 것이다. 또한 김수자는 무반향실을 만계전 공간이 설치물으로써 빛과 사운드의 경험을 증폭시킨다. 관진된 암흑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모든 음파을 흡수하여 광탕적의 신체이서 나는 숨소리나 자신의 힘뛰의 순환소리 이외이는 아무것도 넘거 놓지 않는다. (초점 : 정진, (2013))은 하나의 블랙홀로서, 참대 어떤과 참대 무일 속에서의 극대화된 옳과 마음이의 인식과 센서이션, 또 자아와 타자이의 무한의 확대된 질문을 연진다.
김수자의 한국관 설치는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직이 적극적인 퍼포머가 되도록 유도한다. 그들은 빛과 어둠, 소리와 침적, 그리고 시각적 지식과 시지각적 무지이 극명하게 대비된 혼간 속에서 자신들의 감각과 인식을 서롭게 근두세우게 될 것이다. 김수자의 설치작업은 시각적 지식을 하나의 '아는' 레상으로서, 그리고 어둠을 인간의 '모르는' 대상으로서, 즉 '무지' 에서 비롯된 인간의 인식적계계에 감각계계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두 개의 극단은 하나로써, 즉, 전체의 일부로서 공국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은 인간과 현대문명에 적한 조건이 문제을 제기하는 신체와 전신의 생역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김수자는 뉴욕, 파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김수자는 퍼포먼스, 설치, 오브제 사운드 등을 혼합시키는 개념적인작업으로 국제적으로 명 성을 얻어 있다.
www.kimsooja.com

김승덕은 파리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김승덕은 콘서티아인 동시에 프랑스 디종의 현대 미술센터 르콘소르시움의 공동 디렉터로 넣고 있다.
www.leconsortium.fr



Kimsooja
To Breathe: Bottari

Korean Pavilion
The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 La Biennale di Venezia
June 1 – November 29, 2013

Kimsooja, *To Breathe: Bottari*, 2013
Mixed media installation, The Korean Pavilion, Venice
Courtesy of ARKO, Arts Council of Korea & Kimsooja Studio

Main space:
To Breathe: Bottari, 2013
Diffraction grating film, aluminium mirror panels
The Weaving Factory, 2004-2013
The artist's voice performance sound, 5.1 channel, 9:14, loop

Anechoic Chamber:
To Breathe: Blackout, 2013
Anechoic chamber in complete darkness

Organization:
Arko –Arts Council Korea
Commissioner / curator: Seungduk Kim
Deputy commissioner: Kyungyun Ho

www.koreanpavilion2013.com

Main sponsor
Nexon Corporation

Supports
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Samsung Electronics
Jain Song

Support of Galleries
Kukje gallery, Seoul
Galleria Rafaella Cortese, Milano
Kewenig gallerie, Berlin & Majorca
La Fabrica, Madrid
Galerie Tschudi, Zuoz

Catalogue:
A fully illustrated 232 page hard cover catalogue accompanies the exhibition.
Published by Les presses du réel with the support of Arts Council Korea (ARKO), Kukje Gallery, Seoul; Galleria Raffaella Cortese, Milan; Kewenig Galerie, Berlin; Galerie Tschudi, Zuoz; and edited by Franck Gautherot and Seungduk Kim, the catalogue includes texts by Dan Graham, Yongwoo Lee, Michel Mosseissian, Seungduk Kim; and includes an interview with Kimsooja.
Also featuring re-published texts by Sang-hwain Bak, Ingrid Commandeur, Ricky D'Ambrose, Doris von Drathen, Bernhard Fibicher, Antonio Geusa, Jonathan Goodman, Steven Henry Madoff, Leigh Markopoulos, Rosa Martinez, Laeticia Mello, Hyungmin Pai, Kimsooja, Sung Won Kim, Robert C. Morgan, Francesca Pasini, Oliva Maria Rubio, Barry Schwabsky, Susan Sollins, the late Harald Szeemann, Hoi-seok Yang.
www.lespressesdureel.com

THE KOREAN PAVILION
KIMSOOJA
TO BREATHE: BOTTARI
55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LA BIENNALE DI VENEZIA 2013

Kimsooja
To Breathe: Bottari

"Traditionally, la Biennale di Venezia exhibits artists hosted by their country of origin in national pavilions.
Rather like in World Expos, I wanted the Korean Pavilion itself to be the focus: the pavilion hosts an environment designed by an artist.
The architecture of the Korean Pavilion is metallic with glass windows, wide-open to the luminous laguna and surrounded by tall trees.
I decided to invite Kimsooja, a Korean-born artist self-exiled to New York, and internationally acclaimed for her video works and installations, to transform the Korean Pavilion into a space of special experience for the visitors. A moment of light, colors, and in a black hole."
Seungduk Kim

The notion of *bottari* (bundle) as a whole and totality and the concept of sewing have been the central components of Kimsooja's work for over three decades. Posing various questions about the formal aspects of tableau, sculpture, object and installation; *bottari* encompasses issues of body, self and others and the relationship of *yin* and *yang* to life and death. *Bottari* explores problems of location and dislocation; migration; exile; and war while posing existential and cognitive questions in space and time.
Approaching the architecture of the Korean Pavilion as a *bottari*, the artist has wrapped the division between nature and the interior space with a translucent film. Treating the windows as the skin of the pavilion, the film diffracts the natural sunlight as it showers the interior space with rainbow spectrums of light, .
The intensity of the light in the pavilion will correspond to the daily movement of the sun rising to its setting across the Korean Pavilion—which is located right next to the Lagna di Venezia—transforming the space into a transcendental experience—folding and unfolding the phenomenon of light.
To Breathe: Bottari presents the empty space of the Pavilion, inviting only the bodies of the audience to encounter the infinite reflections of light and sound. The artist's amplified inhaling, exhaling and humming performance sound (*The Weaving Factory*, 2004-2013) fills the air, transforming the pavilion into a breathing *bottari*.
Simultaneously, the artist extends the experience of light and sound by creating an anechoic chamber. A space in complete darkness that absorbs all audio waves, leaving nothing but the sound of the viewer's own body, *To Breathe: Blackout* (2013) creates a soundless dark void of infinite reflection of self: a black hole.
The artist invites audiences to be the live and active performers, experiencing a personal sensation and awareness that reveals the extremes of light and darkness, sound and soundlessness, the known and the unknown. This installation questions visual knowledge as *the known* and darkness as *the unknown*—that originates from human ignorance—through two visual extremes that are connected as part of a whole.
The Korean Pavilion will become a physical and psychological sanctuary, questioning the conditions of civilization in this era.

Kimsooja lives and works in New York, Paris and Seoul. She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tist whose work combines performance, installation, video, light and sound.
www.kimsooja.com

Seungduk Kim lives and works in Paris. She is a curator and co-director of Le Consortium contemporary art center, Dijon, France.
www.leconsortium.fr

Kimsooja
To Breathe: Bottari

"Per tradizione, sei padiglioni nazionali della Biennale vengono presentati artisti dalla loro nazioni d'origine. Ispirata dal modello delle World Expos, esposizioni internazionali, ho voluto che il Padiglione coreano stesso diventasse il centro dell'attenzione: il padiglione ospita in questo caso un ambiente creato dall'artista.
L'architettura del padiglione coreano è costituita principalmente da una struttura metallica con grandi vetrate, esposta sulla laguna luminosa e circondata da grandi alberi.
Ho deciso di invitare Kimsooja, artista nata nella Repubblica di Corea volontariamente esiliata a New York, e riconosciuta a livello internazionale per i suoi video e le sue installazioni, per trasformare il padiglione coreano in uno spazio in grado di produrre un'esperienza straordinaria nello spettatore. Un momento di luce, colori ma anche un 'buco nero'."
Seungduk Kim

Il concetto di *Bottari* (involto/fagotto in coreano) come interezza, totalità e il concetto del cucire è stato un concetto centrale nel lavoro di Kimsooja degli ultimi tre decenni. Ponendo diverse domande sull'essenza formale di tela, scultura, oggetto e installazione, *bottari* si concentra su questioni legate al corpo, sul rapporto tra sé e gli altri come anche tra Yin e Yang e tra vita e morte. Bottari esplora i problemi legati alla posizione e allo spostamento: migrazione, esilio e guerra e allo stesso tempo risvaglia domande esistenziali e cognitive legate allo spazio e al tempo.
Considerando l'architettura del padiglione coreano come un bottari, la divisione tra natura e spazio interiore è marcata da una pellicola traslucida che avvolge il padiglione. Le finestre fungono così da pelle del padiglione, che rifrange la luce naturale del sole nello spettro dei colori dell'arcobaleno inondando le stanze all'interno.
L'intensità della luce dentro il padiglione corrisponderà al movimento quotidiano del sole che sorge e tramonta attorno al padiglione coreano – posizionato proprio di fianco alla Laguna di Venezia. Lo spazio viene così trasformato in un un'esperienza trascendentale – in cui viene modulato e rimodulato continuamente il fenomeno della luce.
To Breathe: Bottari presenta lo spazio vuoto del Padiglione, in cui il visitatore è invitato ad incontrare gli infiniti riflessi della luce e del suono. Il brusio amplificato di inspirazione espirazione recitato dall'artista (*The Weaving Factory*, 2004-2013) pervade l'aria, trasformando il padiglione in un bottari che respira.
Simultaneamente, l'artista amplia l'esperienza della luce e del suono creando una stanza priva di eco: uno spazio nell'oscurità totale che assorbe ogni onda acustica, e che non lascia trapelare nessun suono a parte quello del corpo del visitatore stesso. *To Breathe: Blackout* (2013) crea un vuoto oscuro e silenzioso provocando infinito ripensamento di sé : un buco nero.
L'artista invita il pubblico ad essere parte attiva e partecipe dell'opera d'arte, sperimentando le sensazioni e la consapevolezza prodotti dagli estremi tra luce e oscurità, suoni e silenzio, il conosciuto e lo sconosciuto. L'installazione mette alla prova la nostra conoscenza visiva, divisa tra the known (il conosciuto) e l'oscurità, the unknown (il non conosciuto), prodotto dall'ignoranza umana, attraverso i due estremi visivi luce e del buio legati insieme come parti di una totalità.
Il padiglione coreano diventa così "un santuario fisico e psicologico, che solleva domanda sulla condizione della civilizzazione nell'era attuale.

Kimsooja vive e lavora a New York, Parigi e Seoul. E' un'artista riconosciuta a livello internazionale per le sue performances come anche le sue installazioni video, di luce e sonore.
www.kimsooja.com

Seungduk Kim vive e lavora a Parigi. E' curatrice e co-direttrice de Le Consortium, centro d'arte contemporanea, Dijon, Francia.
www.leconsortium.fr

3) 영상



Seungduk Kim(Commissioner of the Korean Pavilion): Normally I always start from the site when I start the exhibition, any kind. Specially this one is like a glass box, and I was wondering what can be done in the glass box.
김승덕(한국관 커미셔너): 제가 전시를 시작할 때는, 어느 종류의 전시든지 보통 전시 공간에서부터 기획을 시작해요. 특히 이번 공간은 유리 상자 같기 때문에 이런 유리 상자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궁금했어요.

Seungduk Kim: The architect KIM Seok-chul was asked to retain the view of laguna. That was one of the conditions. So, for him, he has to build something transparent. But for an exhibition, space to be transparent is very difficult to deal with it. And then, Kimsooja, came with this absolutely brilliant solution about the space, and about the architecture.
김승덕: 김석철 건축가는 라구나 경관을 훼손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는 투명한 구조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시하는 데 있어서, 투명한 공간을 다루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 때 김수자 작가가 이 공간과 건축물에 대해 정말 훌륭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Kimsooja(Artist): As I've been working on the notion of bottari and notion of sewing, that has been evolving from physicality to immateriality. I've been able to create also a site-specific project that is wrapped by sound and nature, sound and light.
김수자(작가): 저는 보따리와 바느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작업해 왔는데, 이 작업은 물질성에서 비(非)물질성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소리와 자연, 소리와 빛으로 둘러싸인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도 진행해 왔습니다.

Technician: So, if you try to put the bands vertically….
테크니션: 이 필름들을 수직으로 붙여버리면….

Kimsooja: It's better.
김수자: 그게 더 낫지 않아요?

Technician: No, it's harder, because when you do the squeegee….
테크니션: 아니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고무 롤러를 사용하면 말이죠….

Kimsooja: Yeah, that's what I thought.
김수자: 그래요, 그게 제가 생각한 거에요

Technician: You get some crease, so you will go on horizontally. But then, because you go on horizontally, it's important, you see that? Yeah, you get the regular patterns that lined up as regular ... I think in this situation, the cylinder, it's better they are lined up.
테크니션: 그러면 주름이 생겨요. 그러면 수평으로 진행해야겠죠? 그런데 수평으로 붙이면 말이죠, 이게 중요한데, 이것 보이시죠? 그래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줄지어서 지속적인 패턴이 나타나요. 제 생각에 이 원통의 경우에는 필름을 가로로 줄지어 붙이는 게 나아요.

Technician: But also this morning, I think the sunlight has come here, right?
테크니션: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햇빛이 여기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맞죠?

Kimsooja: yeah.
김수자: 네.

Technician: So there was sunlight on this…which helped dry it.
테크니션: 그래서 이 위에 햇빛이 들었고, 필름 작업이 잘 마르도록 했줬네요.

Kimsooja: By doing this space of light and sound, I was also able to create a chamber which was in complete darkness, which the audience's body enters the space by themselves, and experience the infinite of darkness and infinite reflection of self. This anechoic chamber in complete darkness was able to be created after my one-week experience of living in New York after Hurricane Sandy. The unknown world surrounding my body, and also questioning about the fear human being has, around the darkness, being in the darkness.
김수자: 이 빛과 소리의 공간을 제작하면서, 저는 완전한 암실 하나를 더 지었습니다. 관객이 이 공간에 들어서면 무한한 어둠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무한히 자각하게 되죠. 완전한 어둠 속의 무반향실은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허리케인 샌디가 휩쓸고 난 뒤 일주일 간 생활하고 나서 고안해냈습니다. 이 작업은 제 몸을 둘러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것이자, 인간이 가진 어둠에 대한 공포, 어둠 속에 있을 때의 공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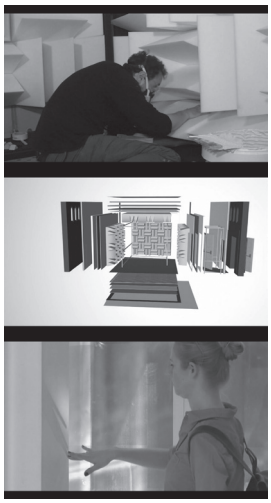
Viewer 1: It's a room filled with the strongest light. For me, its beautiful prisms were almost like being inside the rainbow. And you feel the light as well as seeing the light. It's beautiful.
관람객 1: 아주 강한 빛으로 가득 찬 방이에요. 방안의 아름다운 프리즘 때문에 마치 무지개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빛을 보는 것만 뿐만 아니라 느끼는 거죠. 정말 아름답네요.

Viewer 2: I went into the room and I saw lots of mirrors, like a film Inception. And I heard the breath, breath of nature. It's wonderful.
관람객 2: 방에 들어가서 수많은 거울을 봤는데, 영화 〈인셉션〉 같았어요. 그리고 자연의 호흡 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멋져요.



Kimsooja: I took the whole architecture of the Korean pavilion as a bottari. That breathes by the sunlight, also the breathing of my own inhaling and exhaling and humming within the main space. By treating the surface of the glass windows with the translucent deflection grading film, that deflects the sunlight a rainbow spectrum, and that bounces back and forth infinite way from the mirror I installed on the floor and ceiling.
김수자: 저는 한국관이라는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보따리로 상정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햇빛, 또 주 전시 공간 내 저의 들숨과 날숨, 그리고 허밍으로 호흡합니다. 유리창 표면을 반투명 필름으로 감싸서 햇빛을 무지개 스펙트럼으로 회절 시키고, 이 빛은 바닥과 천장에 설치한 거울로 인해 앞뒤로 무한히 반사됩니다.
Viewer 3: It's very strange, actually very strange and weird feeling, because of lots of reflections. And this reflection is like aura, you know,

around people. But I like this pavilion very much.
관람객 3: 수많은 반사된 형태 때문에 아주 이상하고, 정말 아주 이상하고 기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반사된 빛은 아우라 같았어요. 사람들 주변에서요. 저는 한국관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Viewer 4: I was expecting more, but then realized the simplicity of the experience was actually very important. What I really liked was waiting time, and the waiting, and the reflections, and actually the reflections provided by part of waiting time. And seeing your reflections going deeper and deeper and deeper indicated to me that this was actually really part of waiting and breathing and being in a kind of transitionary state.
관람객 4: 처음에는 좀 더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이 체험에서는 단순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입장 대기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기다림과 빛의 반사요. 사실 반사된 형태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만들어낸 산물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사된 형상이 점점 더 깊이깊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기다리는 것, 호흡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변환하는 상태의 일부인 것을 알게 됐어요.

Viewer 5: So the first part, the light part was, actually I enjoyed it. I was calm, I was curious. And when I went inside the dark room, I was a bit worried of what I had to do and it was a bit of pressure. I didn't feel comfortable. So I was asking how long I had to stay there. So I didn't enjoy it very much.
관람객 5: 처음 빛 부분은 즐길 수 있었어요. 차분해졌고, 호기심도 났어요. 그런데 암실로 들어갔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 지 좀 걱정됐고, 약간 긴장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다지 즐기진 못했어요.

Viewer 6: The mirror installation is very very interesting because it is a huge reflection. You don't know where you are. You are between the sky…. You don't know, you don't see the limit between the sky, the floor and you are completely lost in fact.
관람객 6: 거울 설치작업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작업은 하나의 거대한 반사체거든요. 내 자신이 어디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요. 하늘과 바닥 사이의 경계를 볼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으니 완전히 길을 잃은 거에요.

Kimsooja: The audience's body as the only object in the space. And the audience will become active and live performers. Whether they hear the sound, and breathing, synchronizing, or they were exploring different surrounding reflections of the rainbow spectrum from the nature, surrounded by the trees, and also even we could see the people outside the pavilion moving, that deflects a certain kind of aura of rainbow spectrums.
김수자: 이 공간에서는 관객의 신체가 유일한 오브제입니다. 그리고 관객은 역동적이고 생생한 퍼포머가 되는 거죠. 그들이 호흡 소리를 듣든지, 스스로 호흡하든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할 때나, 혹은 나무로 둘러싸인 자연으로부터의 무지개 스펙트럼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반사된 형태 안에서 유영할 때, 또는 심지어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이 모든 상황이 무지개 스펙트럼의 어떤 아우라를 굴절시키는 겁니다.
Viewer 7: You know what I was thinking, when I was in the black hall, I was thinking the churches in Italy have to do like this, because, you can,



Gilles Coudert's film: "Kimsooja, To Breathe: Bottari"@ 2013 a.p.r.e.s production / Kimsooja

immediately, everything around you is over. There is nothing around you. Maybe you can try to contact with something else. Maybe it's a way to pray.
관람객 7: 검은 방안에 있을 때, 이탈리아 교회들이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즉시 제 주변의 모든 것과 멀어지거든요.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무엇과 접촉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죠. 어쩌면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Seungduk Kim: This place, the Venice Biennale, is the place we can manifest something about avant-garde idea, something unusual, not just about art market, not just about promoting certain artist. I mean this could be also another direction, I think. I think it was before. But I think we are losing a bit.
김승덕: 베니스비엔날레라는 장소는 단순히 미술 시장이나 특정 작가를 홍보하는 기능을 넘어서 아방가르드한 아이디어나 색다른 무언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것이 또 다른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목표를 다소 상실한 것 같아요.

Kimsooja: In this space you will see the semi-circular space treated with the mirror, that extends the completing the whole circular cylinder space, that goes an infinite connection to the verticality.
김수자: 전시 공간에서 거울로 처리된 반원기둥 공간을 볼 수 있는데, 이 거울이 반원기둥 공간을 완전한 원기둥 공간으로 확장시키고, 이는 수직 상태로 무한히 연결됩니다.

Viewer 8: It was a limbo too; it was a strange waiting room, something like an empty zone. And when I went inside in the black hall, I don't know why but I was a little bit scary about the infinity of the darkness.
관람객 8: 림보' 같기도 했어요. 무언가 텅 빈 지역 같은 괴상한 대기실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암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끝없는 어둠 속에서 조금 무서웠어요.

4) 기념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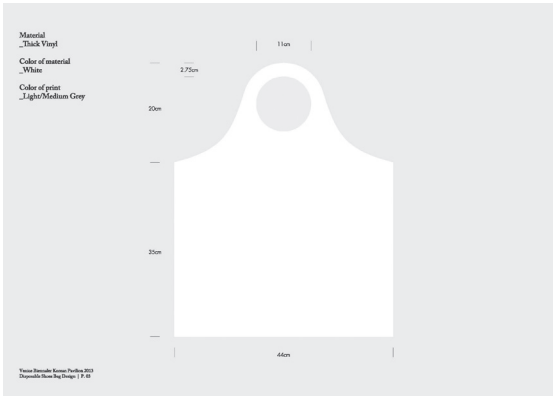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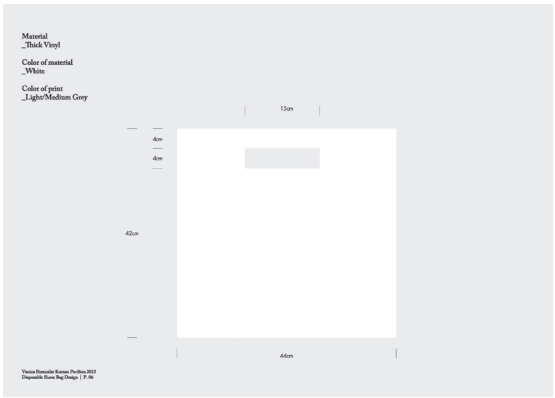


신발주머니(후원 및 디자인: 송자인)





신발주머니 1안





신발주머니 2안

5) 대언론홍보
/
한국 기자단 명단

곽아람(조선일보), 권근영(중앙일보), 고미석(동아일보), 도재기(경향신문), 문소영(중앙데일리), 박인영(연합뉴스), 신세미(문화일보), 이영란(코리아헤럴드), 이윤주(한국일보), 이향휘(매일경제), 권란(SBS), 신지영(MBC), 최경순(촬영), 김복기(아트인컬처), 김수영(아트인아시아), 이건수(월간미술), 정일주(퍼블릭아트), 홍경한(경향아티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보 도 자 료

(총 6매, 세부자료 및 사진 붙임)

배포 : 2012년 8월 13일(월)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차화준 02-760-4749 / hjcha@arko.or.kr
정책기획부 홍보담당 백선기 02-760-4580 / bsk6558@arko.or.kr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로 김승덕 씨 선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월 13일(월) 국제 전시기획 디렉터로 활발한 활동 펼치고 있는 김승덕 씨 신임 커미셔너로 발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이하 ARKO)는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제55회 국제 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로 김승덕 씨(1954년생, 프랑스 아트센터 르 콘소시움 국제 전시기획 디렉터)를 선정했다.

□ 커미셔너로 선정된 김승덕 씨는 뉴욕대학교 대학원, 헌터칼리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파리 제1대학 판테옹 소르본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프랑스 디종에 위치한 '르 콘서시움 컨템로러리 아트센터'의 국제 전시기획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카타르 도하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디렉터를 맡고 있다.

□ 2013년 커미셔너 선정위원회는 미술계 위원 7인(김영호, 김홍희, 노준의, 안소연, 윤재갑, 이불, 정형민) 및 당연직 위원 2인(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으로 구성되었다. 선정위는 위원별 후보 추천 및 토론의 절차를 통해 국내외 미술계의 흐름을 조망하고 국제 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판단, 김승덕 씨를 커미셔너로 선정했다.

□ 한편, ARKO는 1995년부터 이탈리아 베니스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하며 미술전(홀수년도) 및 건축전(짝수년도)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도 전시 총감독은 2009년 제8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을 역임한 마시밀리아노 지오니(Massimiliano Gioni)가 선정되었다.

2차 보도자료: 한국관 전시 설명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보 도 자 료

(총 14매, 세부자료 붙임)

배포 : 2013년 1월 16일(수)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차화준 02-760-4749 / hjcha@arko.or.kr
사업평가부 홍보팀 이재일 02-760-4538 / news@arko.or.kr

2013년 제55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한국관 기자간담회 개최

ARKO,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기자간담회 개최
김승덕 커미셔너-김수자 작가, 한국관 전시 방향 설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는 16일(수) 오후 3시 서울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의 전시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국관 커미셔너 김승덕(프랑스 르 콩소르시움 국제전시기획 디렉터)씨와 한국관 참가작가인 김수자씨가 참석하여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의 전시 계획을 발표했다.

□ 국제 무대에서 오래전부터 활동해 온 김승덕 커미셔너와 김수자 작가는 그 동안 소형조각트리엔날레(1995, 슈투트가르트), <김수자, 얀페이밍 2인전>(2001, 오덴지), <플라워 파워>(2003, 릴)에서 큐레이터와 작가로 함께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가 네 번째 만남이다.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미리보기

●베니스비엔날레 속의 한국관, 세계 속의 한국미술 조망하는 기회
●개인전 개념이 아닌 장소특정적 프로젝트로 추진

□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승덕 커미셔너와 김수자 작가는 '한국관'이 갖고 있는 장소적 컨텍스트와 건축적 구조를 이번 비엔날레 전시의 주요한 방향으로 채택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보 도 자 료

[총 14매, 세부자료 붙임]

배포 : 2013년 5월 15일(수)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차화준 02-760-4749 / hjcha@arko.or.kr
정책기획부 홍보담당 백선기 02-760-4537 / bsk6558@arko.or.kr

2013년 제55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한국관 개막

- 김수자의 <호흡: 보따리(To Breathe: Bottari)>전, 오는 5월 30일 카스텔로 공원 내 한국관에서 개막식

□ 올해로 55회를 맞이하는 베니스비엔날레의 국제미술전이 오는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 VIP 프리뷰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공식 개막, 11월 29일까지 열린다.

□ 1995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관은 올해로 10번째 미술전시를 연다. 한국관은 5월 30일 오후 4시 30분 개막식을 갖는다. 이번 한국관 미술 전시의 커미셔너는 김승덕이 선임되어, 작가 김수자를 초청했으며 전시 제목은 <*호흡: 보따리 (To Breathe: Bottari)*>다.

□ 김승덕은 파리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김승덕은 큐레이터인 동시에 프랑스 디종의 현대미술센터 르콩소르시움의 공동 디렉터를 맡고 있다. www.leconsortium.fr 김수자는 뉴욕, 파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김수자는 퍼포먼스, 설치, 빛과 사운드 등을 혼합시키는 개념적인작업으로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www.kimsooja.com

□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은 2009년 제8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을 역임한 마시밀리아노 지오니(Massimiliano Gioni)가 전시 총감독을 맡았으며, '백과사전식 궁전(The Encyclopedic Palace)'을 주제로 아르세날레에서 기획전을 펼친다.

4차 보도자료: 전시 성과 심포지엄 개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보 도 자 료

(총 11매, 세부자료 붙임)

배포 : 2013년 12월 20일(금)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임기현 대리 02-760-4749 / khy@arko.or.kr
사업평가부 홍보담당 이재일 과장 02-760-4538 /news@arko.or.kr

큐레이터들이 말하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오늘과 내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일(월) 대학로에서 <Curator´s TAlK-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오늘과 내일> 개최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는 12월 23일(월)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Curator's TALK-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오늘과 내일>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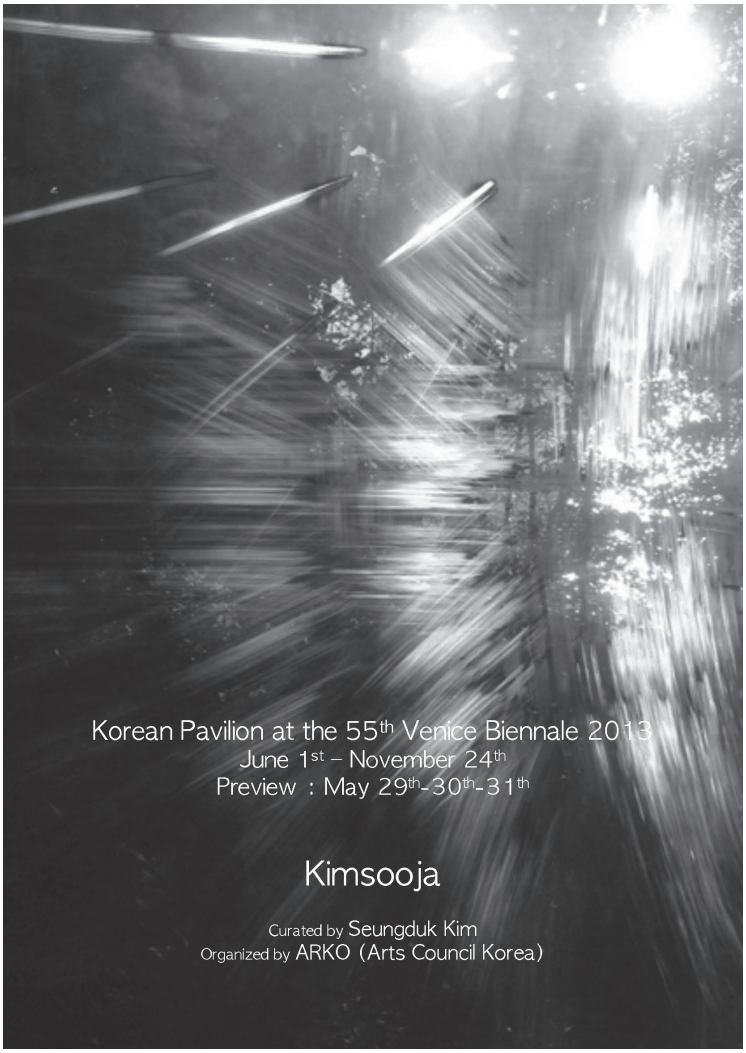
□ 전세계 200여 개의 비엔날레가 존재하는 가운데, 베니스비엔날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비엔날레로 꼽힌다. 현재 유일하게 '국가관'을 운영하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은 '개관 20년'을 앞두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발자취를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전략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서 국제 미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큐레이터들과 함께 전시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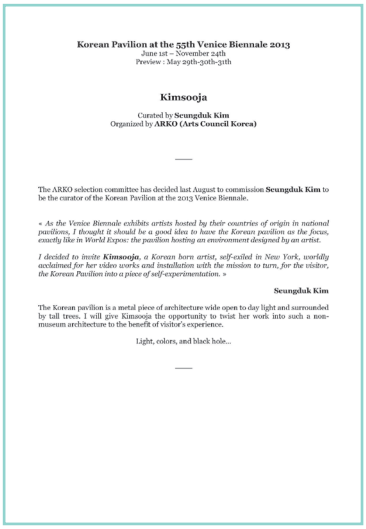
□ 1995년 개관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그 동안 강익중·이불·서도호·이용백·김수자 등 수많은 작가들을 세계에 소개하며, 한국미술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한국관 전시 뿐 아니라 다양한 위성 전시를 통해서도 한국 작가들의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가 늘어나고 있고, 국제미술계의 흐름 속에서 베니스비엔날레에 대한 기존의 관념도 변화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에 대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큐레이터들이 패널로

6) 유료 광고

프로그(Frog) 2013년 3~8월호
이플럭스(e-flux) 2013년 3월 31일, 5월 6일
아트포럼(Artforum) 2013년 5월호
프리즈(Frieze) 2013년 5월호





Korean Pavilion at the 55th Venice Biennale 2013
June 1st – November 24th
Preview : May 29th-30th-31th

Kimsooja

Curated by **Seungduk Kim**
Organized by **ARKO (Arts Council Korea)**

The ARKO selection committee has decided last August to commission **Seungduk Kim** to be the curator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2013 Venice Bienn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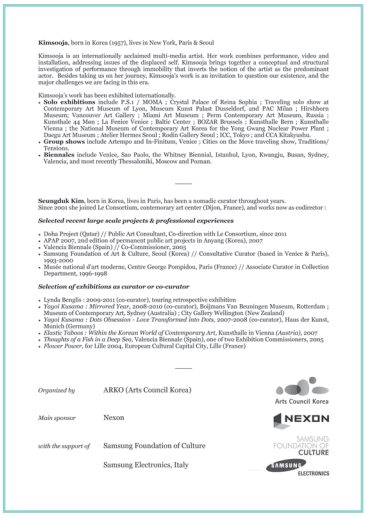
« As the Venice Biennale exhibits artists hosted by their countries of origin in national pavilions, I thought it should be a good idea to have the Korean pavilion as the focus, exactly like in World Expos: the pavilion hosting an environment designed by an artist.

I decided to invite ***Kimsooja****, a Korean born artist, self-exiled in New York, worldly acclaimed for her video works and installation with the mission to turn, for the visitor, the Korean Pavilion into a piece of self-experimentation. »*

Seungduk Kim

The Korean pavilion is a metal piece of architecture wide open to day light and surrounded by tall trees. I will give Kimsooja the opportunity to twist her work into such a non-museum architecture to the benefit of visitor's experience.

Light, colors, and black hole...



Kimsooja, born in Korea (1957), lives in New York, Paris & Seoul

Kimsooja is an internationally acclaimed multi-media artist. Her work combines performance, video and installation, addressing issues of the displaced self. Kimsooja brings together a conceptual and structural investigation of performance through immobility that inverts the notion of the artist as the predominant actor. Besides taking us on her journey, Kimsooja's work is an invitation to question our existence, and the major challenges we are facing in this era.

Kimsooja's work has been exhibited internationally.
- **Solo exhibitions** include P.S.1 / MOMA ; Crystal Palace of Reina Sophia ; Traveling solo show at Contemporary Art Museum of Lyon, Museum Kunst Palast Duesseldorf, and PAC Milan ; Hirshhorn Museum; Vancouver Art Gallery ; Miami Art Museum ; Perm Contemporary Art Museum, Russia ; Kunsthalle 44 Man ; La Fenice Venice ; Baltic Center ; BOZAR Brussels ; Kunsthalle Bern ; Kunsthalle Vienna ;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for the Yong Gwang Nuclear Power Plant ; Daegu Art Museum ; Atelier Hermes Seoul ; Rodin Gallery Seoul ; ICC, Tokyo ; and CCA Kitakyushu.
- **Group shows** include Artempo and In-Finitum, Venice ; Cities on the Move traveling show, Traditions/ Tensions.
- **Biennales** include Venice, Sao Paulo, the Whitney Biennial, Istanbul, Lyon, Kwangju, Busan, Sydney, Valencia, and most recently Thessaloniki, Moscow and Poznan.

Seungduk Kim, born in Korea, lives in Paris, has been a nomadic curator throughout years.
Since 2001 she joined Le Consortium, contemorary art center (Dijon, France), and works now as codirector :

Selected recent large scale projects & professional exper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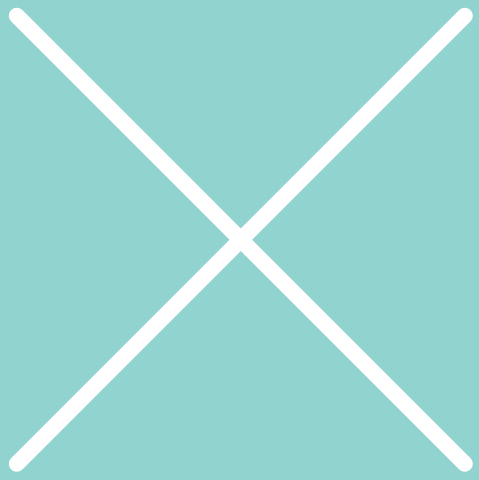
- Deha Project (Qatar) // Public Art Consultant, Co-direction with Le Consortium, since 2011
- *APAP 2007*, 2nd edition of permanent public art projects in Anyang (Korea), 2007
- Valencia Biennale (Spain) // Co-Commissioner, 2005
- Samsung Foundation of Art & Culture, Seoul (Korea) // Consultative Curator (based in Venice & Paris), 1953-2000
- Musée national d'art moderne, Centre George Pompidou, Paris (France) // Associate Curator in Collection Department, 1996-1998

Selection of exhibitions as curator or co-curator

- Lynda Benglis : 2009-2011 (co-curator), touring retrospective exhibition
- *Yayoi Kusama : Mirrored Your*, 2008-2010 (co-curator), Boijmans Van Beuningen Museum, Rotterdam ; Museum of Contemporary Art, Sydney (Australia) ; City Gallery Wellington (New Zealand)
- *Yayoi Kusama : Dots Obsession - Love Transformed into Dots*, 2007-2008 (co-curator), Haus der Kunst, Munich (Germany)
- *Elastic Taboos : Within the Korean World of Contemporary Art*, Kunsthalle in Vienna (Austria), 2007
- *Thoughts of a Fish in a Deep Sea*, Valencia Biennale (Spain), one of two Exhibition Commissioners, 2005
- *Flower Power*, for Lille 2004, European Cultural Capital City, Lille (France)

Organized by ARKO (Arts Council Korea)
Main sponsor Nexon
with the support of 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Samsung Electronics, Italy

03



FEEDBACK

1 언론 보도

1) 국내 방송 및 일간지 기사 모음



MBC 〈베니스비엔날레 개막…주제 잘 살린 한국관 '호평'〉
2013년 6월 3일

◀ANC▶ 백과사전처럼 다양한 주제를 선보이는 베니스비엔날레가 개막됐습니다.
현지에서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사방을 둘러싼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 나는 과연 누구인가 되묻게 됩니다.
반투명하게 처리한 창을 통과한 아스라한 빛은 전시장 내부를 채우고 작가의 숨소리는 신비로운 느낌마저 전달합니다.
빛을 지나면, 이번에는 어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긴장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물건이 흩어지지 않게 감싸는 보따리처럼, 한국관 전체가 관람객들의 몸과 마음을 품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SYN▶콘치타 / 이탈리아 일간지 기자
"다크룸은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미러룸은 행복의 공간이었구요."
◀SYN▶ 김수자 /한국관 대표작가
"한 명의 관객이라도 그 작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가슴 속에 담아갈 수 있다면 저한테는 보람 있는 일."
옛 조선소 건물 안에 꾸며진 비엔날레 본 전시는 온갖 지식을 끌어 담은 백과사전처럼 다양한 주제를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하려 하는 예술가들의 작업을 모았습니다.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16년에 걸쳐 집필한 원고와 삽화도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진과 원로, 주류와 비주류를 아우른 구성이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를 잘 살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베니스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신지영 기자 shinji@imbc.com



SBS 〈베니스비엔날레로 간 한국의 '보따리'〉
2013년 6월 2일

◀ANC▶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에 한국의 혼이 들어간 보따리가 등장했습니다. 어제(1일) 개막한 베니스 비엔날레 현장으로 가보시죠.
권란 기자입니다.
◀VCR▶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서 문물이 오가던 베니스의 햇살 아래 오색 찬란히 빛나는 유리 건물이 눈에 띕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과 유리에 맺힌 무지개가 어우러지고, 방 안에 울려 퍼진 숨소리는 잠시 잡념을 잊게 합니다.
또 다른 방은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올해로 55번째 열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 열린 김수자 작가의 거울의 방과 어둠의 방입니다.
'보따리 작가'로 불렸던 작가는 이번엔 유리 건물을 빛과 어둠, 소리와 침묵으로 채운 보따리로 만들었습니다.
◀SYN▶ 데 그레고리오/ 이탈리아 기자
"작품이 아름답습니다. 어둠의 방은 눈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SYN▶ 김수자 / 작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작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작업을 자신의 가슴 속에 담아 갈 수 있다면 그 것이 가장 저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895년 시작된 베니스비엔날레는 올해는 〈백과사전식 궁전〉이란 주제의 본전시와 88개국이 참여한 국가전을 선보입니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현대 미술 축제, 베니스비엔날레는 오는 11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영상편집: 박춘배)
권란 기자 harasho@sbs.co.kr

2012-08-13 CNB뉴스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에 김승덕 씨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96137

2012-08-13 CNB뉴스
"다원예술 작가들 협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터"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96147

2012-08-13 MK뉴스
"거장 백남준의 추억 되살릴 것"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10238a

2012-08-13 경향신문
김승덕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32129095&code=960100

2012-08-13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3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김승덕씨, "다원예술적 방향으로 전시 구상 중"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343617&cp=nv

2012-08-13 뉴스웨이브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로 김승덕 씨 선정
http://www.newswave.kr/sub_read.html?uid=211178

2012-08-13 뉴시스
김승덕 커미셔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협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4660069

2012-08-13 뉴시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김승덕 큐레이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813_0011361135&cID=10702&pID=10700

2012-08-13 독서신문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 김승덕 씨 선정
http://www.readersnews.com/sub_read.html?uid=36128

2012-08-13 머니투데이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 김승덕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81310460914919&outlink=1

2012-08-13 아시아경제
[일문일답]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에 김승덕씨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81313274482079&nvr=Y

2013-08-13 한국일보
2013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책임자 김승덕씨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people/201208/h2012081321052784800.htm&ver=v002

2012-08-13 아주경제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에 큐레이터 김승덕씨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813000301

2012-08-13 연합뉴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에 김승덕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755095

2012-08-13 연합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커미셔너 김승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755347

2012-08-13 연합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커미셔너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755344

2012-08-13 연합신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에 김승덕씨(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755424

2012-08-13 이데일리
2013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김승덕씨 선정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41&newsid=02374726599626992&DCD=A404&OutLnkChk=Y

2012-08-13 파이낸셜뉴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에 김승덕씨
http://www.fnnews.com/view?ra=Sent1301m_View&corp=fnnews&arcid=2012081401001091300064 83&cDateYear=2012&cDateMonth=08&cDateDay=13

2012-08-13 한국경제
김승덕 씨 "미술올림픽서 한국 IT 강점 보여줄 것"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81365841

2012-08-13 한국일보
2013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책임자 김승덕씨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208/h2012081321052784800.htm

2012-08-14 동아일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음악-영상 전문가와 협업 다원예술 전시 구상
http://news.donga.com/3/all/20120814/48614104/1

2012-08-14 문화일보
"사운드·영상까지 作家간 협업 다원예술로 한국美 보여줄 것"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81401032530048002

2012-08-14 조선일보
김승덕 국제 전시기획 디렉터, 베네치아 비엔날레 커미셔너 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4/2012081400062.html

2012-08-14 중앙일보
내년 55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에 김승덕씨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043220&cloc=olink|article|default

2012-08-14 헤럴드생생뉴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김승덕씨 "다원적 예술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14000631&md=20120816003115_AO

2012-08-14 The Korea Times
Seung's 'Bonghwa Village Graveyard' to feature at Venice architect fest
http://www.koreatimes.co.kr/www/news/culture/2013/03/199_117397.html

2012-08-16 뉴스천지
ARKO, 내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로 김승덕 씨 선정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851

2012-08-19 중앙선데이 284호
세계 최대 미술행사 '미술 국가대표' 감독 "전문가 협업 꾀할 터"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7141

2012-08-20 뉴스테이지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로 김승덕 선정
http://www.newstage.co.kr/news/view.html?section=79&category=93&no=14949

2012-08-21 오마이뉴스
2013 베니스비엔날레, 한국대표는 누구인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9818

2012-08-23 아트뮤지움
김승덕씨, 내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로 선정
http://www.artmuseums.kr/admin/?corea=sub4_2&no=275

2012-08-30 아트와
2013베니스비엔날레와 큐레이터 김승덕
http://artwa.kr/tc/1245

2012-12-31 중앙일보
베니스 가는 김수자, 한국 오는 무라카미 다카시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301142&cloc=olink|article|default

2013-01-02 서울신문
미리 엿보는 2013 주요 전시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2020006

2013-01-03 경향신문
올 미술계, 신진보다 원로·중견 작가전 풍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32121145&code=960202

2013-01-06 국민일보 쿠키뉴스
해외서 주목받는 두 작가 김구림·김수자… 보디 페인팅·설치 미술, 유럽에 한류열풍 기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778334&cp=nv

2013-01-07 헤럴드경제
伊선 베니스비엔날레…美 MoMA선 뭉크 작품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07000394&md=20130110004339_AO

2013-01-07 헤럴드경제
미술관으로의 도피…고갱과 칼더를 만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07000391&md=20130110004340_AO

2013-01-07 헤럴드생생뉴스
2013년, 해외 주요미술관에선 어떤 전시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07000364&md=20130110004349_AO

2013-01-08 MK뉴스
`보따리 작가` 김수자 베니스비엔날레 단독 참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7717

2013-01-08 경향신문
김수자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 선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82131075&code=960202

2013-01-08 뉴시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가작가, 김수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4916681

2013-01-08 독서신문
2013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참가작가, 김수자씨
http://www2.readersnews.com/sub_read.html?uid=39297&ion=sc1

2013-01-08 머니투데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가작가에 김수자씨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10811021621370&outlink=1

2013-01-08 서울경제
'보따리' 김수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단독 참가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1301/e20130108173058118220.htm

2013-01-08 서울신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단독 작가 김수자씨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1301/e20130108224431118220.htm

2013-01-08 아주경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에 '보따리작가' 김수자씨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30108000167

2013-01-08 아주경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에 '보따리작가' 김수자씨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108000167

2013-01-08 연합뉴스
김수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단독 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027649

2013-01-08 연합신문
김수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단독 참가(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028974br〉

2013-01-08 한겨레
김수자씨, 베네치아비엔날레 참가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568792.html

2013-01-08 한국경제
6월 베니스비엔날레 축제…김수자 씨 한국관 단독 참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0867401

2013-01-08 연합신문
김수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단독 참가(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028974br〉

2013-01-08 한겨레
김수자씨, 베네치아비엔날레 참가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568792.html

2013-01-08 한국경제
6월 베니스비엔날레 축제…김수자 씨 한국관 단독 참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0867401

2013-01-09 동아일보
세계적 설치작가 김수자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http://news.donga.com/3/all/20130109/52149306/1

2013-01-09 부산일보
설치예술가 김수자 씨 베니스비엔날레 단독 참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109000075

2013-01-09 이데일리
2013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가작가 김수자 선정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41&newsid=01535046602676080&DCD=A404&OutLnkChk=Y

2013-01-09 조선일보
설치미술가 김수자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여 작가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8/2013010802426.html

2013-01-11 천지일보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김수자씨 참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058

2013-01-13 한국경제
"한국은 춥다"…K아트, 美·유럽·아시아 달군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1388441

2013-01-16 CNB뉴스
2013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장소특정적 프로젝트로 만들겠다"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14291

2013-01-16 MK뉴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작가 김수자 "베니스를 보따리로 싸겠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9082

2013-01-16 경향신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거대한 보따리로 형상화해 전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62204115&code=960202

2013-01-16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승덕 커미셔너·김수자 설치작가의 베니스비엔날레 구상… “보따리 개념으로 한국관 싸고 풀어낼 것”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09913&cp=nv

2013-01-16 뉴시스
김수자 보따리로 싸고푼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116_0011765266&cID=10702&pID=10700

2013-01-16 머니투데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어떤 작품 펼쳐질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11617113406581&outlink=1

2013-01-16 아주경제
김승덕 커미셔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보따리로 변모”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30116000802

2013-01-16 아주경제신문
김승덕 커미셔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보따리로 변모”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116000802

2013-01-16 연합뉴스
“보따리의 개념으로 한국관을 싸고 풀어낼 것”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6/0200000000AKR20130116174200005.HTML?did=1179m

2013-01-16 유니온프레스
[현장스케치]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김수자의 ‘보따리’ 된다
http://www.unio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66

2013-01-16 이데일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보따리` 개념으로 접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41&newsid=02896246602678376&DCD=A404&OutLnkChk=Y+C10

2013-01-17 문화일보
[인물] 김수자씨 “한국관, 보따리처럼 형상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11701072930048002

2013-01-17 서울신문
“한국관 건물의 한계 오히려 이용해 볼래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17029031

2013-01-17 중앙일보
지구촌 재해를 ‘보따리’처럼 감싸안겠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440738&cloc=olink|article|default

2013-01-17 파이낸셜뉴스
김수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보따리로 감싸안겠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301m_View&corp=fnnews&arcid=2013011601001546900086 60&cDateYear=2013&cDateMonth=01&cDateDay=17

2013-01-17 한국일보
“우리 고유의 건축적 특징 부각”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1702391721950.htm

2013-01-17 헤럴드경제
설치작가 김수자…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17000302&md=20130120004035_AO

2013-01-17 헤럴드생생뉴스
김수자 “공간 · 소리 · 빛을 체험하는 비물질적 전시를 선보이겠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17000449&md=20130120003929_AO

2013-01-17 Korea Herald
Cloth artworks to represent Korea at Venice Biennale
http://www.koreaherald.com/common_prog/newsprint.php?ud=20130117000795&dt=2

2013-01-18 아시아경제
지구촌 재앙을 보따리로 감싸 안는 여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11708160263421&nvr=Y

2013-01-18 The Korea Times
Kim Soo-ja to grace 2013 Venice Biennale
http://www.koreatimes.co.kr/www/news/culture/2013/03/148_129054.html

2013-01-20 중앙선데이 306호
[Editor’s letter] 보자기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8901

2013-01-21 세계일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보따리로 형상화
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Article.asp?aid=20130121023618&subctg1=&subctg2=&OutUrl=naver

2013-01-22 동아일보
굴곡진 벽면으로 된 한국관 보따리로 싸고, 풀어내겠다
http://news.donga.com/3/all/20130122/52486434/1

2013-02-04 경향신문(경향아티클)
[interview] 김승덕, 김수자 “한국관 자체가 하나의 보따리…세계적인 재앙에 대한 메시지 담을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41317472&code=960202

2013-05-24 연합뉴스
미리 보는 ‘2013 베니스 비엔날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276333

2013-05-30 조선일보
작가를 꽁꽁 묶어도 작품은 날라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2526852

2013-05-30 아주경제
베니스비엔날레 6월 1일 개막..한국관 김수자 전시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530000182

2013-05-30 유니온프레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숨소리가 예술 되는 비움의 미학
http://www.unio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89

2013-05-30 한국경제
세계 현대미술의 큰 잔치…베니스비엔날레 ‘팡파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3040691

2013-05-30 국민일보
‘베니스 비엔날레’ 6월 1일 베네치아서 개막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230703&cp=nv

2013-05-30 뉴스1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막식 개최
http://news1.kr/articles/1155881

2013-05-30 Fashion Office
What does art ?
http://www.fashionoffice.org/culture/2013/biennalevenice-series-intro5-2013.htm#.UcFz2hy82jM

2013-05-31 연합뉴스
현대미술축제 베니스비엔날레 막 올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289148

2013-05-31 연합뉴스
빛과 어둠, 소리와 침묵으로 공간을 채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289150

2013-05-31 연합뉴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김수자 작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289217

2013-05-31 연합뉴스
한국관 전시장 찾은 고은 시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289216

2013-05-31 서울경제
현대미술축제 베니스비엔날레 막 올랐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1305/e20130531092044118220.htm

2013-05-31 문화일보
빛과 어둠… 소리·정적으로 가득 채우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3101032730048004

2013-05-31 한국일보
전시장을 작품으로… 통념 깬 한국관의 색다른 공간 연출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305/h2013053121172886330.htm

2013-06-02 SBS TV
베니스 비엔날레로 간 한국의 '보따리'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14502

2013-06-02 경향신문
빛과 어둠의 공간… 비움으로 채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22150475&code=960202

2013-06-03 중앙일보
숨소리·햇살·어둠 … 자궁처럼 관객 품은 한국관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694666&cloc=olink|article|default

2013-06-03 조선일보
太初에 암흑, 그리고 무지개가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2528212

2013-06-03 동아일보
텅 빈 공간에 빛과 어둠… "엄마 몸속처럼 느껴져"
http://news.donga.com/3/all/20130602/55589685/1

2013-06-03 MBC TV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주제 잘 살린 한국관 '호평'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291205_5782.html

2013-06-03 천지일보
베니스에서 움트는 한국미술의 미학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390

2013-06-03 The Kyunghyang Shinmun
A Space of Light and Darkness: A Visit to the Venice Biennale Korea Pavilion Filled with Emptiness
http://english.khan.co.kr/khan_art_view.html?code=710100&artid=201306031843007

2013-06-04 헤럴드경제
김수자의 베니스 한국관…침잠하는 명상의 공간
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602000237&md=20130613000520_AT

2013-06-04 헤럴드경제
〈이영란 선임기자의 art&아트〉 표현 범람하는 베니스…그래서 더 빛난 '절제의 한국관'
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604000563&md=20130612235537_AT

2013-06-05 MK뉴스
김수자 "나를 철저하게 비웠을 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28396

2013-06-07 이데일리
무섭게 크는 베니스비엔날레…한국미술은 뒷걸음질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41&newsid=01200486602839424&DCD=A404&OutLnkChk=Y

2013-06-07 Korea JoongAng Daily
Artist links darkness, light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72756

2013-06-09 중앙선데이
빛과 어둠의 공간 그곳에서 나를 만나다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0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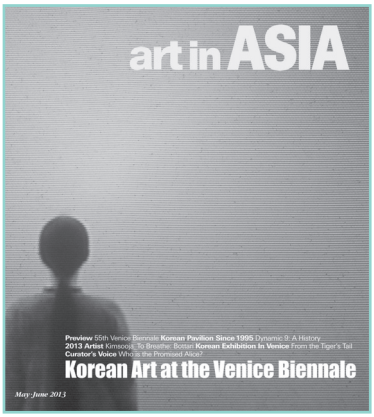
2013-06-13 한겨레
표지 예뻤지만 맥락 놓친 '백과사전'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591738.html

2013-06-15 MBC TV
해외에서 모셔가는 여성 미술인…한국 이름 세계에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297049_5780.html

2013-06-28 유니온프레스
[2013 상반기 미술결산] ② 세계비엔날레협회 국내에… 위상 높아진 한국미술
http://www.unio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60

2013-07-03 시사저널
독창성 사라진 자리, 돈이 끼어들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10

2) 국내 미술전문지 기사 모음





2013 KOREAN PAVILION_KIMSOOJA

To be Born, Love, Suffer and Die

Kimsooja Interview by Ryu Byoung-hak



Photo by Kwon Hyun-Jung 2010

Opposite Page: *Mumbai: A Laundry Field*, 2007-2008, still from 4-channel video installation, sound, 16:25 loop, Courtesy of Kimsooja Studio

Ryu Byoung-hak(RB) I'd like to say, your recent series of art works feels slightly different on the surface from *Bottari* and *A Needle Woman*, which are well known to us. So before we look into the new work,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retrace one by one your footsteps in the making of these earlier works.

Kimsooja(KS) People who have seen my *Bottari* pieces and *A Needle Woman* series—works that deal with humans—may think that my recent works—*Earth-Water-Fire-Air*, see only about nature. Nevertheless, I have continued to make a series of video works that deal with the themes of humans and nature simultaneously, which is something that has been present in my work since the beginning of my career. From my perspective, nature is an extension of fabric and the needle is an extension of a body. In this sense, I think the relation between the fabric and the needle has evolved through my contemplation of nature as fabric, and the human body as a needle, that meditates towards humanity. In the end, these two are one.

Bottari, Wrapping Humans and Life

RB So it seems we need to shed some light on this path to understand your work thoroughly. To start the conversation, let's discuss the motive of *Bottari*. In the mid-1990s, you once said:
Keeping *bottari*(bundle) is a very common domestic practice in Korea, and *bottaris* have been around me my whole life, especially, since I began wodking on sewn pieces using used cloth and clothes in the 1980s. One day in my PS1 studio in 1992, I turned my head and there was a *bottari* that I had put there a while before, which I used to look at everyday. When I gazed at this *bottari* in that moment,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emerged, a totally new bottari was sitting there. I had been wrapping and unwrapping *bottaris* for my clothes for sewn pieces, but I hadn't seen its hidden formalism and meanings before that moment. That *bottari* in front of me was a completely new object and discovery. It was a sculpture and a painting and a ready made and a used object. Through this sample act of tying up, *bottari* making opens up a possibilty for transforming two dimensions into three; which simultaneously transforms the object into both a pictorial plane and a sculptural volume.
With this content, we can say you already found that *bottari* can be a sculpture and, in this way, your work *Bottari* is a sort of ready-made.
KS Yes. ready-made, in the sense that it has been existing as an object and a form, and at the same time, a ready-used object, in the sense that it is made from materials which have already been used by people. *Bottari* is a fluid and transfomable ready-made and ready-used. However, both



contexts co-exist as a oneness in my *bottari*. As the nature of both a painting and a sculpture exists in one single body of *bottari*, and this object reveals the reality of life, it also has a diachronic temporality. To me, bottari contains radical aspects in many senses, but in Korea it is just an object that is so embedded in daily life, that this work might been hard to understand and recognize distinctly, as an artwork, because it is so closely tied to daily life practices. My work is all about recognising new artistic value and contextualizing and recontextualizing mundan objects and actions in daily life with the least manipulation. In fact I see the *bottari* that I rediscovered at PS1 in 1992 as more pro forma. I was focusing on the moment of transformation that the fabric, the two dimensional tableau, becomes the three dimensional object and sculpture by the ordinary act of tying. I have shown the installation *Bottari* also at the New Museum and Ise Art Foundation, New York, in 1993 but my vision changed around the time when I came back to Korea and prepared for my solo exhibition (1994). I had a new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as a woman, and also as a person who had experienced the reality of an open society. That is to say, I came to understand that *bottari* wasn't just an aesthetic or formal object, but one made of the *reality of our lives*. Since then, I started to use not only fragments of fabrics and clothes of various colors and patterns, but also used clothes from anonymous people as a pre-existing forms. I began to work with the thought of wrapping humans, our life and memories rather than simply taking a formalist approach.
RB Looking at your works from late 1990s, I had a thought about formality. They are ready-nades for sure, but they are different from the ready-mades of Marcel Duchamp. Duchamp had fixed a urinal, a common product, into *Fountain*, the artwork, but Bottari travels back and forth between the common product and the artwork. You also transform a common product: *bottari* into the artwork Bottari, then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artwork is disassembled and turned back to a common product, and then a common product *bottari* appears again as an artwork in a different form. Through the 1990s your exhibitions were about wrapping the *bottari*, then going to another place and unwrapping it again, by doing this its mobility was emphasized. Looking at the successors of Duchamp's ready-made, like Carl Andre's *Equivalent VIII* also known as *The Bricks*, Dan Flavin's *Monument* made with fluorescent lights, and Jeff Koons' *New Shelton Wet/Dry Double Decker* arrangement of vacuum cleaners, we can see that they are each fixed. But your works are fluid. Interestingly, you can wrap all three items: the brick, the fluorescent light and the vacuum cleaner, with the fabric and the shape changes differently in each case. *Bottari* can be read as the work of a certain kind of magic. I think that is the other aspect of formality in your works.
KS The fabric naturally possesses fluidity, so I hope that my works can be expanded to transcend its limits.
RB In the works after 1994, you used bedcovers a lot. In a past interview, you said the bedcover holds the contents that covers us from birth to death, I think this symbolic content is telling of a sense of place.
KS Actually when I was working on *Bottari*, many people thought I wrapped the bottari with Korean traditional wrapping fabric (*bojagi*), but I only used bedcovers. More precisely, I used traditional Korean bedcovers for newlywed couples. I think the bedcover is a field in which function and specific meaning coexist; in the sense that it is a place where we are born, love, dream, suffer and die. It is a frame for our life. Within this frame are the wishes of our whole lifetime–love, long life, wealth, and fertility are embroidered as forms and letters. Perhaps this might be considered a contradiction when we consider that this everyday, almost mundane yet colorful object–the bedcover–is covered with aspirations and festive elements. So, when the bedcover is unfolded, it is a tableau that has a place to stay. It is a two dimensional surface that implies memories of the loving life of a couple, sex, rest, stability, family and comfort. However, the context gets reversed when it is tied into a *bottari*, suddenly it suggests dislocation, mobility, departing, migration and separation. The tableau (bedcover) that wraps and forms the *bottari* acts as a *border* determining dichotomies in life and art.
RB Let's talk about the work you installed at a cafe in Central Park, for the Whitney Biennial, in 2002. You used bedcovers as tablecloths. Did the local audience know they were bedcovers?
KS If I did not provide an explanation about the work, they would not have known. As a matter of fact, I showed the tablecloth installation first at Fruitmarket Gallery, in Edinburgh, in 1995, then at Manifesta 1, and again at Setagaya Museum in Japan in 1998 as well as at the Central Park cafe for the Whitney Biennale 2002. At that time, after a series of *bottari* works, the meaning of unfolding the *bottari* became connected to the process of returning them into the original form of a canvas. In other words, the idea of using a bedcover as a tablecloth was to wrap invisible elements in the space, with the mind and the gaze, by turning the bedcovers back into a canvas. By unfolding the *bottari* and presenting it as a tableau, it folds invisible activities around the table into the tableau. For example, in cafes, people meet, talk to each other, share food and drinks, listen to the music and so on. I presented the tablecloth installation to wrap all these intangible communicational interactions, under the concept of an invisible wrapping. Ephemeral elements that appeared in the work are connected to the site-specific installation called *To Breathe—A Mirror Woman*, shown at Crystal Palace in Spain. At Crystal Palace, I intended to juxtapose the illusion of the mirror and the reality of the space together–mirroring as a sewing activity–by covering the entire floor in mirrors. I also installed translucent film on all the glass windows of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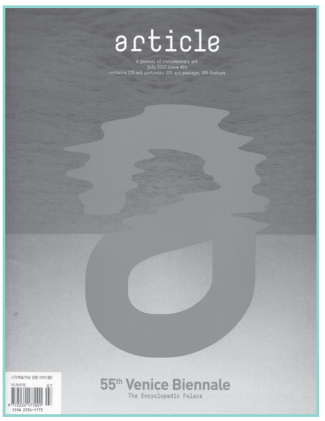






아트인컬처 2013년 7월호
Special Feature_Venice Biennale 2013
경향아티클 2013년 7월호
Feature_제55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가관 인덱스
월간미술 2013년 7월호
특별기획_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퍼블릭아트 2013년 7월호
Special Feature_올 댓 유럽 아트: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왼쪽 페이지
아트인아시아 2013년 5 · 6월호
베니스비엔날레 특별호









2013 베니스비엔날레 서점에 입고된 《아트인아시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호







3) 해외 기사 모음

kimsooja: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designboom®

search designboom

architecture
design
art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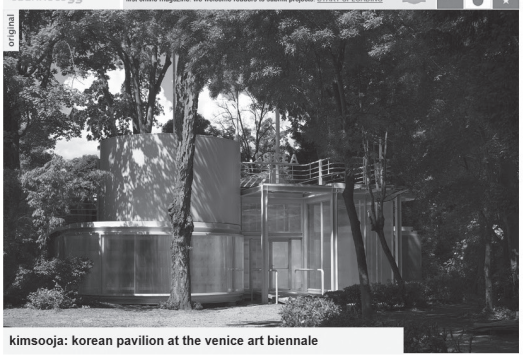
INTERVIEWS | SUBMISSIONS | COMPETITIONS | DESIGN - AEROBICS | SHOP | 32,209 articles

PRODUCT LIBRARY | UPDATES | VIDEO | NEWSLETTER | MOST POPULAR | TOP 10 LISTS OF 2013

SHARE AND PROMOTE YOUR WORK

since 1999, home of design culture, designboom has been the world's first online magazine. we welcome readers to submit projects. START UPLOADING

original



kimsooja: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23 Tweet | 131 Like | 158 Pin it | 4 +1 | 6 Share | 1 | 2

jun 05, 2013

kimsooja: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photo by thierry depagne, © kimsooja studio

seungduk kim, approached her role as curator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2013 venice art biennale, not in the traditional sense. rather than hosting the work of a korean artist within, kim wanted to make the architecture of the space, designed by seok chul kim and franco mancuso, the focus of the exhibition.

she invited kimsooja to transform the venue into a place of transcendental experience. dealing with issues relating to the body, self and others, and the relationship of 'yin' and 'yan' to life and death–in particular through the notion of the 'bottari' (which means 'bundle' in korean)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sewing–the new york-based artist has extended her studies to conceive 'to breath: bottari'.

kimsooja has wrapped the entirety of the national pavilion's interior with a translucent film, dividing the built environment from nature. the skin diffracts the daylight, showering the internal structure with spectrums of light, the intensity of the rainbows of color reflected onto the walls and floor. this metamorphosis is in direct correspondence to the movement of the sun rising and setting across the building, respiring to the natural fluctuations of the sun. making it a 'breathing bottari', her piece 'the weaving factory' (2004-2013) fills the volume with the sound of the artist inhaling and exhaling, bringing it to life.



'to breathe: bottari'
mixed media installation
diffraction grating film, aluminium mirror panels
image © designboom

'to breathe: bottari' celebrates the dual existence of sound and soundlessness and the reality of darkness as an extension of light



asiart ARCHIVE

COLLECTION
RESEARCH
PROGRAMMES
LEARNING
FIELD NOTES
BEYOND AAA
HOME

ABOUT US
CONTACT US
SUPPORT US
AAA in A

Search everything

WORLD EVENTS

Category | Country | All | Keyword

Home > Beyond AAA > World Events > Detail

55th Venice Biennale - Kimsooja: To Breathe: Bottari (Korean Pavilion)



When 29 May - 24 Nov 2013
Where Pavilion at Giardini
Venice, Italy

Press Release
The notion of bottari (bundle) as a whole and totality and the concept of sewing have been the central components of Kimsooja's work for over three decades. Posing various questions about the formal aspects of tableau, sculpture, object and installation, bottari encompasses issues of body, self and others and the relationship of yin and yang to life and death. Bottari explores problems of location and dislocation, migration, exile, and war, while posing existential and cognitive questions in space and time.

Approaching the architecture of the Korean Pavilion as a bottari, the division between nature and the interior space is wrapped with a transluscent film, treating the windows as the skin of the pavilion that diffracts the natural sunlight into rainbow spectrums of light, as it showers the interior space.

The intensity of the light in the pavilion will correspond to the daily movement of the sun rising to its setting across the Korean Pavilion—which is located right next to the Laguna di Venezia—transforming the space into a transcendental experience—folding and unfolding the phenomenon of light.

To Breathe: Bottari presents the empty space of the Pavilion, inviting only the bodies of the audience to encounter the infinite reflections of light and sound. The artist's amplified inhaling, exhaling and humming performance sound (The Weaving Factory,



Venice Art Biennale 2013

Korea, Republic of

To Breathe: Botta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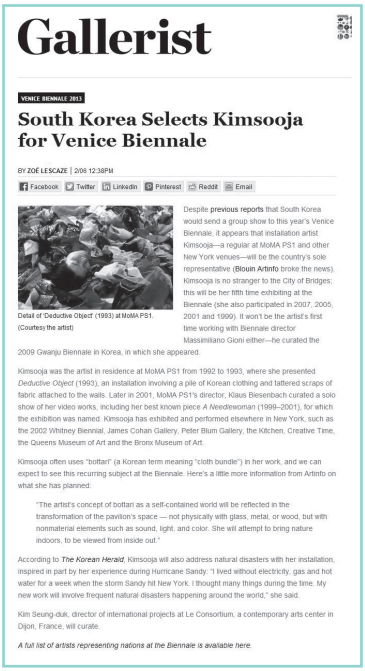
To Breathe: Bottari presents the empty space of the **Korean Pavilion**, inviting only the bodies of the audience to encounter the infinite reflections of light and sound. The artist's amplified inhaling, exhaling and humming performance sound (The Weaving Factory, 2004–2013) fills the air, transforming the pavilion into a breathing bottari. Approaching the architecture of the **Korean Pavilion** as a bottari (bundle), the division between nature and the interior space is wrapped with a translucent film, treating the windows as the skin of the pavilion that diffracts the natural sunlight into rainbow spectrums of light, as it showers the interior space. The intensity of the light in the pavilion corresponds to the daily movement of the sun rising to its setting across the Korean Pavilion transforming the space into a transcendental experience—folding and unfolding the phenomenon of light.

Simultaneously, the **Kimsooja** extends the experience of light and sound by creating an anechoic chamber. A space in complete darkness that absorbs all audio waves, leaving nothing but the sound of the viewer's own body, To Breathe: blackout (2013) creates a soundless dark void of infinite reflection of self, a black hole. The artist invites audiences to be the live and active performers, experiencing a personal sensation and awareness that reveals the extremes of light and darkness, sound and soundlessness, the known and the unknown.

Commissioner/Curator: Seungduk Kim

Artists: **Kimsooja**

Open: Saturday, 01 June 2013
Close: Sunday, 24 November 2013
Address: Giardini della Biennale
Web: Korean Pavilion
Opening hour: 10am - 6pm
Closing: Mon
Transport: Lines 1, 2, 4.1, 4.2, 5.1, 5.2, 6.1, 6.2, Giardini
Photo credits: Kimsooja, Kimsooja, To Breathe: Bottari, 2013. Mixed media. Courtesy of Kimsooja Studio.



Gallerist

VENICE BIENNALE 2013

South Korea Selects Kimsooja for Venice Biennale

BY ZOÉ LESCAZE | 2/06 12:38PM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 Reddit Email

Detail of 'Deductive Object' (1993) at MoMA PS1. (Courtesy the artist)

Despite **previous reports** that South Korea would send a group show to this year's Venice Biennale, it appears that installation artist Kimsooja—a regular at MoMA PS1 and other New York venues—will be the country's sole representative (**Blouin Artinfo** broke the news). Kimsooja is no stranger to the City of Bridges; this will be her fifth time exhibiting at the Biennale (she also participated in 2007, 2005, 2001 and 1999). It won't be the artist's first time working with Biennale director Massimiliano Gioni either—he curated the 2009 Gwanju Biennale in Korea, in which she appeared.

Kimsooja was the artist in residence at MoMA PS1 from 1992 to 1993, where she presented *Deductive Object* (1993), an installation involving a pile of Korean clothing and tattered scraps of fabric attached to the walls. Later in 2001, MoMA PS1's director, Klaus Biesenbach curated a solo show of her video works, including her best known piece *A Needlewoman* (1999–2001), for which the exhibition was named. Kimsooja has exhibited and performed elsewhere in New York, such as the 2002 Whitney Biennial, James Cohan Gallery, Peter Blum Gallery, the Kitchen, Creative Time, the Queens Museum of Art and the Bronx Museum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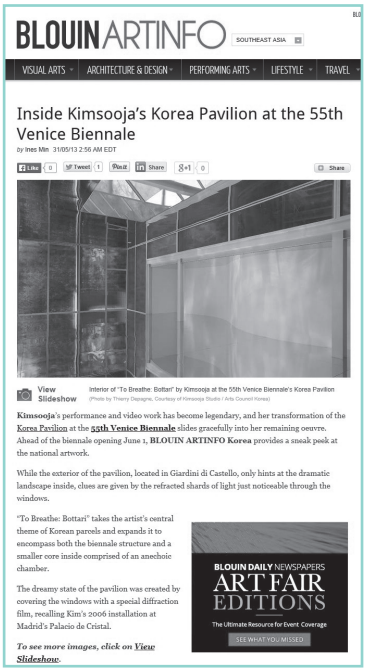
Kimsooja often uses "bottari" (a Korean term meaning "cloth bundle") in her work, and we can expect to see this recurring subject at the Biennale. Here's a little more information from Artinfo on what she has planned:

> "The artist's concept of bottari as a self-contained world will be reflected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pavilion's space — not physically with glass, metal, or wood, but with nonmaterial elements such as sound, light, and color. She will attempt to bring nature indoors, to be viewed from inside out."

According to *The Korean Herald*, Kimsooja will also address natural disasters with her installation, inspired in part by her experience during Hurricane Sandy: "I lived without electricity, gas and hot water for a week when the storm Sandy hit New York. I thought many things during the time. My new work will involve frequent natural disasters happening around the world," she said.

Kim Seung-duk, director of international projects at Le Consortium, a contemporary arts center in Dijon, France, will curate.

A full list of artists representing nations at the Biennale is available here.



BLOUINARTINFO SOUTHEAST ASIA

VISUAL ARTS | ARCHITECTURE & DESIGN | PERFORMING ARTS | LIFESTYLE | TRAVEL

Inside Kimsooja's Korea Pavilion at the 55th Venice Biennale

by Ines Min 31/05/13 2:56 AM EDT

Like 0 Tweet 1 Pinit Share 0 +1 0 Share

View Slideshow

Interior of "To Breathe: Bottari" by Kimsooja at the 55th Venice Biennale's Korea Pavilion (Photo by Thierry Dupagne, Courtesy of Kimsooja Studio / Arts Council Korea)

Kimsooja's performance and video work has become legendary, and her transformation of the **Korea Pavilion** at the **55th Venice Biennale** slides gracefully into her remaining oeuvre. Ahead of the biennale opening June 1, **BLOUIN ARTINFO Korea** provides a sneak peek at the national artwork.

While the exterior of the pavilion, located in Giardini di Castello, only hints at the dramatic landscape inside, clues are given by the refracted shards of light just noticeable through the windows.

"To Breathe: Bottari" takes the artist's central theme of Korean parcels and expands it to encompass both the biennale structure and a smaller core inside comprised of an anechoic chamber.

The dreamy state of the pavilion was created by covering the windows with a special diffraction film, recalling Kim's 2006 installation at Madrid's Palacio de Cristal.

To see more images, click on View Slideshow.

BLOUIN DAILY NEWSPAPERS
ART FAIR EDITIONS
The Ultimate Resource for Event Coverage
SEE WHAT YOU MISSED



Search... BROWSE FILTER PARTNERS POSTS ABOUT LOG IN SIGN UP

KOREAN PAVILION AT THE 55TH VENICE BIENNALE

To Breathe: Bottari; **Artist:** Kimsooja; **Commissioner:** ARKO (Arts Council Korea); **Curator:** Seungduk Kim

20 Followers

Giardini della Biennale

FOLLOW

First Look at the Installation: Kimsooja

KOREAN PAVILION AT THE 55TH VENICE BIENNALE
7 MONTHS AGO

"The architecture of the Korean Pavilion is metallic with glass windows, wide-open to the luminous laguna and surrounded by tall trees. I decided to invite Kimsooja, a Korean-born artist self-exiled to New York, and internationally acclaimed for her video works and installations, to transform the Korean Pavilion into a space of special experience for the visitors. A artist self-exiled to New York, and internationally acclaimed for her video works and installations, to transform the Korean Pavilion into a space of special experience for the visitors. A moment of light, colors, and in a black hole."—Curator Seungduk Kim

Photographs by Alex John Beck for Artsy

2

평가

1) 자체 평가 요약

회의 개요

- 일시: 2013년 6월 14일(금), 14시~15시 30분
- 장소: 예술가의 집 위원장실
- 참석자: 총 9인
  - 외부: 김복기(아트인컬처), 고미석(동아일보), 홍경한(경향아티클)
  - 예술위: 권영빈 위원장, 장용석 국제교류부장, 이한신 아르코미술관장, 백선기 차장(사업평가부), 차화준 과장(국제교류부), 김효은(국제교류부)
- 회의 안건
  -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평가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운영 개선방안

보고내용

- 커미셔너 구성방식 및 선정과정 개선
  - 건축전 선정방식(1차 후보선정-2차 프레젠테이션) 수용
  - 심의위원 풀(pool) 확장(독립기획자, 현장 전문가 등)
- 효율적 사전/사후 홍보전략 마련
  - 국내외 다양한 홍보채널 확장
  - 관심증대를 위한 사전홍보 이메일, 사이트 운영
  - 국내외 평단의 전시리뷰 적극적 수렴
  - 한국관, 본전시(주제관), 특별전, 부대행사 등 연계 홍보채널 마련
- 기관 간 연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위원회-국립현대미술관-세계비엔날레대회(광주비엔날레) 연대 필요
  - 우수 파일럿(pilot) 프로그램 마련

추가 검토의견

- 사전/사후 홍보전략 구체화
  - 한국관 미술전, 건축전의 영문 잡지(art in ASIA) 발간사업 지속
  - 공식홈페이지 및 SNS 운영 매뉴얼 개발을 통한 효율화 도모
  - 국제교류지원사업 중 베니스비엔날레 관련 행사의 체계적 관리
  - 국내외 홍보 네트워크 DB구축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아카이빙 시스템 마련
  - 1차 사료(리플릿, 도록, 평론 등) 분석을 통한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온/오프라인(On/off-line),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정보화 DB 인프라 구축
  - 아카이빙 관리 및 연구단 구성

2) 관객대상 설문결과

설문 참여자분석

- **설문대상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방문객 100명**
- **설문기간 : 2013년 6월 2일 ~ 7일**
- **설문 참여자 직업**
  - **일반 관람객(71명), 예술가(21명), 큐레이터/커미셔너(7명), 기자(1명), 행정가(없음)**
- **설문 참여자 국적**

[대륙별 분류]

구분	국가	설문 참여자
유럽 (57명)	독일	21
	이탈리아	16
	영국	9
	프랑스	5
	네덜란드	3
	오스트리아	1
	벨기에	1
	스위스	1
북미 (16명)	미국	14
	캐나다	2
남미 (1명)	에콰도르	1
아시아 (17명)	일본	5
	한국	4
	중국	4
	싱가포르	2
	필리핀	1
	태국	1
호주 (2명)	오스트레일리아	2
중동 (1명)	레바논	1
미입력 (6명)	-	6
계		100

[국가별 분류]

순위	국가명	설문 참여자
1	독일	21
2	이탈리아	16
3	미국	14
4	영국	9
5	미입력	6
6	프랑스	5
6	일본	5
8	한국	4
8	중국	4
10	네덜란드	3
11	캐나다	2
11	싱가포르	2
11	오스트레일리아	2
14	오스트리아	1
14	벨기에	1
14	스위스	1
14	에콰도르	1
14	필리핀	1
14	타이	1
14	레바논	1
계		100

⇒ 자르디니 내에 한국관 주변에 위치한 국가관(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의 관람객이 한국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높음.

- **문항별 결과 분석**

1. What makes you visit Korean Pavilion?(한국관에는 어떻게 방문하시게 되었습니까?)

- **While visiting other National Pavilions(다른 국가관을 관람하는 도중) → 73명**
-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nd art(한국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서) → 6명**
- **Interested in theme and exhibitors of Korean Pavilion (한국관 주제와 참여 작가에 관심이 있어서) → 10명**
- **Recommended by an acquaintance(지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 9명**
- **Etc.(기타) → 2명**

⇒ 한국관에 직접적인 관심이 있는 방문객(25명) 보다는 다른 국가관을 관람하면서 방문하는 관객(73명)이 더욱 많았음
⇒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관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 강화 필요

2. Have you ever visited Korean Pavilion before?(예전에 한국관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 Yes → 38명 □ No → 62명

3. Do you think the intention of this exhibition is being well delivered?(이번 전시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gree ----------				Disagree
□ 1	□ 2	□ 3	□ 4	□ 5
(매우 공감함)	(공감함)	(중간정도)	(공감 안함)	(매우 공감안함)
→ 46명	→ 28명	→ 17명	→ 5명	→ 4명

⇒ 전시 의도가 잘 전달되었다고 동의하는 인원이 총 74명으로 올해 한국관 전시는 전시의도 측면에서는 많은 관람객의 동감을 이끌어 냈음

4. Are you satisfied with this exhibition? (이번 전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Satisfied ----------				Dissatisfied
□ 1	□ 2	□ 3	□ 4	□ 5
(매우 만족)	(만족)	(중간정도)	(만족 안함)	(매우 만족안함)
→ 52명	→ 30명	→ 9명	→ 5명	→ 4명

⇒ 올해 전시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총 82명으로 올해 한국관 전시만족도는 높은 수준임

5. Are there an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Korean Pavilion?(한국관의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 답변 내용 :
'More mirrored surfaces(벽면에 거울을 더 붙였으면 좋겠음)',
'Artist should stay for one day(작가가 하루 더 머물러야 함)',
'Longer stay in silent room(암흑 전시장에 현행 1분보다 더 머무를 수 있게 함)'
'Have a second non sound roon(암흑 전시장을 하나 더 조성해야 함)'
'Give trousers to short skirted women(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바지 제공)'
'Silent in a big room(큰 전시장을 조용히 유지)'
'It should be bigger(한국관을 좀 더 크게 하여야 함)' 등

⇒ 올해 전시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었으며, 한국관 공간의 협소함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음

6. Are you interested in any kind of Korean culture and art ? If yes, please describe those below.(한국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기술해 주세요.)
→ 답변 내용 :
'Art(예술)' → 12명,
'Food(음식)' → 5명,
'Cinema(영화)' → 4명,
'Music(음악)' → 3명
'Traditional hand crafted art(전통 수공예품)' → 2명,
'Architecture(건축)' → 2명
'Language(언어)' → 2명,
'History(역사)' → 2명,
'Media(언론)' → 1명
'Korean National Galley(국립중앙박물관)' → 1명,
'Religion(종교)' → 1명

Arts Council Korea

Your Views about Korean Pavilion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answer these questions. Kindly give us the feedback of Korean Pavilion Exhibitions. Your feedback is important to us in how we can better improve our exhibitions.

1. What makes you visit Korean Pavilion ?

☐ While visiting other National Pavilions
☐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nd art
☐ Interested in theme and exhibitors of Korean Pavilion
☐ Recommended by an acquaintance
☐ Etc.

2. Have you ever visited Korean Pavilion before?

☐ Yes ☐ No

3. Do you think the intention of this exhibition is being well delivered ?

agree _____ disagree

☐ 1 ☐ 2 ☐ 3 ☐ 4 ☐ 5

4. Are you satisfied with this exhibition?

satisfied _____ dissatisfied

☐ 1 ☐ 2 ☐ 3 ☐ 4 ☐ 5

5. Are there an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Korean Pavilion?

_____

6. Are you interested in any kind of Korean culture and art ? If yes, please describe those below.

_____

※ Questions for personnel information

Occupational category	☐ Visitor ☐ Artist ☐ Curator /Commissioner ☐ Journalist ☐ Administrator
Nationality	
E-mail	

Thank you

3) 평론

빛과 어둠으로 채운 한국관

/ 김현진(일민미술관 학예실장)

올해 한국관의 작가와 작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특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시작 당시 만국박람회의 미술 버전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르디니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관 모델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부터 소위 보다 복잡한 경향들의 동시대 미술씬이 강력해지면서 기획력과 방향 제시가 가능한 큐레이터들을 초대하여 특별전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하랄트 제만의 〈아페르튀토〉를 시작으로 올해의 마시밀리아노 지오니(Massimiliano Gioni)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요 큐레이터들의 전시들은 지난 십여 년간의 베니스비엔날레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제 미술의 향방을 점치는 순간들로 여겨져 왔다.

동시대 미술에 있어 새로운 형식이나 경향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였고 그만큼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미술 내부에 새로움의 신화가 공황상태를 맞이한 오늘날, 21세기 동시대 미술 현장을 타개해 나가려는 노력 중에 눈에 띄는 방법론이라면 리서치와 아카이브와 같은 수집과 연구적 태도일 것이다. 이번 베니스비엔날레의 본전시 〈백과사전적 궁전(The Encyclopedic Palace)〉 역시 리서치를 방법론으로 취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축적하고 재발견하는 방법이자 동시대를 재탄생시키는 과정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리서치와 아카이브적 방법론을 전체화하거나 지극히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한국관은 1인의 작가 선택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을 지속하면서도, 한계로 여겨져 왔던 전시 공간을 급진적으로 활용하여 비움을 통해 완성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한국관은 1990년대 동시대 미술부터 현재를 관통해 김승덕, 김수자 세대의 주관과 고집에 입각한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 큐레이터인 김승덕 씨는 프랑스를 기반으로 1990년대부터 왕성한 활동을 보여 왔으며, 작가로 초대된 김수자 씨 역시 뉴욕 기반으로 1990년대부터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작가로 한국의 전통적인 '보따리'에 담긴 여성주의적 역사나 유랑, 보따리 천의 짜임과 색채 등 보따리로부터 함의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소재로 오랜 기간 작업해 왔다.

작가로서 국제적으로 오랜 활동을 한 만큼 이미 김수자 작가에 대한 정보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바가 많다. 때문에 새로운 버전의 보따리 오브제나 보따리가 은유적으로 확장된 노마딕한 여정과 풍광을 드러내는 영상 작업이 예측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기획자와 작가는 공간은 비우고 오랫동안 전시 공간으로서의 한국관의 문제나 한계에 대한 논란을 적극적으로 보듬어 앉으면서도 빛이라는 요소를 통해 그 공간을 매우 적극적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꽉 찬 수집품 박물관의 피로감을 안고 자르디니로 향했을 때 한국관은 잠시 하나의 색다른 명상적 공간을 통해 숨 쉴 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 빛의 공간은 오랜 세월 김수자 작업의 인상을 결정해왔던 다양한 색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보따리 천의 요소나 한국적인 오리엔탈리즘의 정서를 절제와 수용 사이에서 아름답게 조율하고 있다. 이 공간은 무엇보다 조도나 날씨 상태에 따라 공간에서 경험되는 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람객이 날을 달리해 재차 방문한다면 재현 불가능한 매일의 서로 다른 경험을 가져갈 수 있다. 아마도 비워진 공간 내부로 창을 통해 스며드는 오묘한 빛들은 건물이 전시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지만 국가관이라는 거대 서사에서 방문자들을 위한 새로운 '집'의 소서사의 의미를 찾게 해준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정서적인 경험은 비규범성을 강력하게 통제된 공간에 패키지화한 백인 남성 큐레이터의 〈백과사전적 궁전〉과는 대조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물성을 절제하면서도 명상적 공간으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있는 이 공간은 동아시아 배경을 가진 여성의 유연함과 수용력을 기반으로 완성되고 있으며, 여기서 또한 김수자 작가의 작업에 대한 새로운 향방을 보여주려는 큐레이터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람객은 빛의 공간 후 암흑으로 가득 찬 작은 방에서 1분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극적 구성과도 같은 단절로서 전시적 내러티브를 완성하게 된다.

국가 간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글로벌한 사회가 펼쳐져 왔지만 역설적으로 국경의 문제는 곳곳에서 더욱 첨예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니스비엔날레는 국가주의에 대한 공공연한 로맨스가 허락되는 유일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거대한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큐레이터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늘 어딘가 불편한 동참이다. 때문에 단일한 국가이데올로기를 다원화하고 이상적인 초국가성을 예술적 이상과 함께 추구해 온 수많은 큐레이터들의 노력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자르디니 안에 수용되지 못한 국가들이 베니스 전역에 흩어져 자르디니 국가관들의 패권성을 견제할 뿐 아니라 더 좋은 전시들로 자르디니의 나태함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주목받은 대부분의 국가관은 자르디니 외부에 존재한다. 한국관 역시 이러한 점에서는 좀 더 다른 기획적 혁신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편 대체로 신선한 전시적 접근보다는 작가 1인의 대표성으로 귀결되는 한국관의 한계는 사실 전시 공간으로서의 적합성이나 그 한계가 늘 도마에 오르는 한국관 내부 공간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점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근본적인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

* 출처: 아르코 웹진

한국미술의 전진기지, 한국관(1995~)

/ 호경윤(월간 아트인컬처 편집장)

베니스비엔날레는 1895년에 시작, 11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비엔날레다. 단지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술인들의 축제이자 교류의 중심으로서 베니스비엔날레가 미술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 특히 베니스비엔날레는 현재 열리는 200여 개의 비엔날레 중 유일하게 국가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미술 올림픽'이라고 불린다. 매해마다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하는 국가관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양상인데, 55회를 맞이하는 올해는 88곳의 국가관이 전시를 연다. 그러나 이 모든 곳이 카스텔로 공원(Giardini di Castello)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베니스비엔날레가 열리는 카스텔로 공원 내에는 주요 나라별 국가관이 들어서 있다. 그 중 한국관은 베니스비엔날레가 100주년을 기념하던 1995년에 26번째 국가관으로 개관했다. 한국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국가관은 모두 공원 바깥 베니스 시내 인근 장소를 빌려서 전시한다. 실제로 카스텔로 공원 내에 있는 국가관 중에서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어떤 이는 "일본관의 화장실 같다" "전시장으로 쓰기에 적절치 않은 구조다" 등등 한국관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관을 짓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상기해 본다면, 카스텔로 공원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운이 좋았던 것이라 할만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카스텔로 공원 안에는 자리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반면 그 안에 국가관을 짓고 싶어 했던 나라들이 줄줄이 대기 상태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93년 백남준이 참여했던 독일관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했고, 그 위세를 이어 백남준이 베니스비엔날레 운영위원회와 베니스 시당국에 한국관 건립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다른 미술인들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기업들의 후원으로 카스텔로 공원 안에 부지를 배정 받게 되었다. 위치는 독일관과 일본관 사이에 약간 뒤편. 좁은 부지에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는 조항을 역이용해 건축가 김석철은 마치 공원 안의 숲 속에 UFO가 착륙한 듯, 구불구불한 구조로 유리와 금속을 주재료로 짓는 것으로 설계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관은 1995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10번의 미술 전시와 8번의 건축 전시를 열었다. 기본적으로 예술위원회가 커미셔너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회의에서 커미셔너를 선출한 다음 커미셔너가 참여 작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관 개관전의 첫 커미셔너는 미술평론가 이일이 맡았고, 그는 전수천, 윤형근, 김인겸, 곽훈을 참여 작가로 선정했다. 전수천은 산업폐기물과 TV모니터, 경주에서 구워낸 토우들을 설치한 〈방황하는 혹성들 속의 토우-그 한국인의 정신〉을 전시했다. 특히 파빌리온을 짓고 처음 참가하자마자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오프닝 당일에는 한국관 개관을 기념하며, 30여 명의 서울예술단이 산마르코광장에서부터 자르디니 내 한국관까지 풍물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다. 개막식에는 주돈식 문화체육부 장관이 축사를 했고, 그 직후에는 한국관 앞뜰에서 참여 작가 곽훈의 대형 옹기 작품을 이용해 국악인 김영동이 비구니들과 함께 참선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외국인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당시 한국관 바로 앞의 일본관에서는 한국작가 최재은이 참여하기도 했으며, 국가관 전시 외에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획으로 한국 중견작가 15인의 그룹전 〈호랑이의 꼬리〉까지 열려 세계 미술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확실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 MBC TV에서는 베니스비엔날레의 현장을 90분 동안 위성중계를 할 정도로 한국에서의 관심 역시 뜨거웠다.

1997년 두 번째 전시는 미술평론가 오광수가 커미셔너를 맡아, 강익중과 이형우의 작품을 소개했다. 두 참여 작가는 당시 30대와 40대의 젊은 작가였는데, 당시의 한국 미술계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작가 선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국가관이나 베니스비엔날레 전체적인 트렌드를 미리 파악한 결과였던 것으로 결국 그 전략이 통했다. 당시 37세였던 강익중이 특별상을 수상했던 것. 강익중은 가로 세로 3인치의 목판 위에 어린 시절의 추억과 일상적 경험을 표현하는 각종 기호와 그림, 문자를 새겨 넣은 부조 작품 1만 3천여 개로 모자이크 형태를 구성한 작품을 선보였다. 심사위원단은 강익중의 작품에 대해 작은 작품들로 하나의 백과사전적 세계를 만든 그 독창적 시도를 높이 평가했다. 당시 국내외 여론에서는 한국관의 연이은 수상 소식에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국제화단의 확고한 인정"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뉴밀레니엄을 앞둔 제48회 베니스비엔날레는 근자에 들어 가장 스펙터클하고, 아방가르드한 전시를 선보이고자 했다. 큐레이터의 전설로 불리던 하랄트 제만을 예술 감독으로 영입하고, 새 전시 공간 아르세날레를 마련해 〈아페르튀토〉전을 야심차게 선보이며 여타의 비엔날레와 차별성을 두고자 했다. 당시 한국관의 커미셔너로 선임된 송미숙은 작가 이불과 노상균을 초대해 보다 세련된 한국미술의 수준을 알리고자 했다. "한국관 개관 이후 최초의 여성 커미셔너와 여성 작가"로 화제를 모았으며, 황금사자상에 루이스 부르주아가 선정된 것을 비롯해 '우먼 파워'가 두드러졌다. 이불 역시 특별상을 거머쥐며, 이로써 한국관은 세 번째 연이어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 이후 2001년에는 커미셔너 박경미와 작가 서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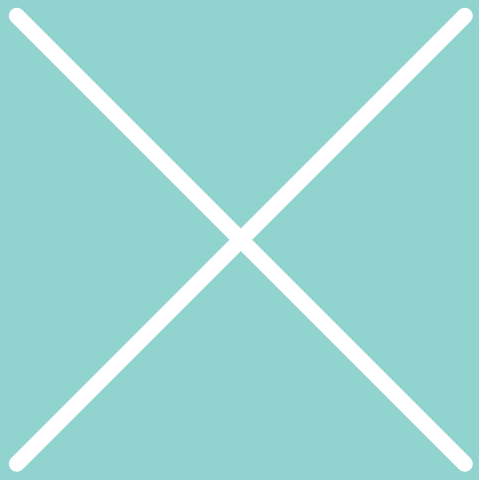
마이클 주가 참여했고 2003년에는 커미셔너 김홍희와 작가 박이소, 정서영, 황인기가 참여했다. 이때까지는 2~3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그룹전 방식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2005년 커미셔너였던 김선정은 11명의 작가를 초청, 해외 관객으로 하여금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전반을 이해시키고자 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2007년부터는 1인 작가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넓지 않은 장소인데다가, 갈수록 국가관이 많아지는 가운데 오히려 한 작가로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려는 전략인 셈이다. 2007년에는 커미셔너 안소연과 작가 이형구, 2009년에는 커미셔너 주은지와 작가 양혜규, 2011년에는 커미셔너 윤재갑과 작가 이용백.

가장 최근 전시로 2011년 한국관을 기획한 윤재갑 커미셔너는 '사랑은 갔지만 상처는 곧 아물겠지요'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이용백의 작품세계를 통해 한국 현대사와 문화사의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아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루고자 한 것. 작가는 이 전시에서 비디오, 사진, 조각 회화를 망라하는 다양한 장르의 대표작 14점을 선보였는데, 각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 한국관의 복잡다단한 구조를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꽃무늬로 뒤덮인 군복을 테마로 한 비디오 퍼포먼스 〈Angel Soldier〉는 '천사'와 '전사'라는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우리 시대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한국관 외부 지붕 위 빨래를 널어놓은 것처럼 설치한 꽃무늬 군복은 휴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상징하며 베니스를 찾은 관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한국관 전면의 둥근 유리 쇼윈도 공간에 설치된 조각 작품 〈피에타〉는 조각 거푸집으로 이루어진 성모 마리아와 그 속에서 나온 예수 조각이 한 쌍을 이룬다. 이 둘은 격투기 선수처럼 처참하게 싸우는 장면을 연출하거나,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거울과 평면 TV로 구성된 〈Mirror〉는 관객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총알로 거울이 깨져버리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의 웬만한 미술관보다도 작은 규모지만 베니스비엔날레의 한국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막강하다. 한국미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발신지와 같은 곳이다. 따라서 매회마다 커미셔너와 작가는 어떻게 하면 한국관이 다른 국가관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색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한다. 뿐만 아니라 개관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숨은 노력과 도움으로 한국관은 베니스의 작은 미술 영토로서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출처: 네이버 캐스트

04



SYMPOSIUM

CURATOR'S TALK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오늘과 내일

일시 2013년 12월 23일(월) 14~18시
장소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세계 200여 개의 비엔날레가 존재하는 가운데, 베니스비엔날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비엔날레로 꼽힌다. 현재 유일하게 '국가관'을 운영하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은 '개관 20년'을 앞두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발자취를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제 미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큐레이터들과 함께 전시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1부 〈기조발제〉

발제 1 주제: 국제 미술계에서 베니스비엔날레의 의미 / 이용우

발제 2 주제: 2013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 대해서 / 김승덕

2부 〈패널 토론〉

/ 김승덕, 김해주, 김현진, 워크온워크(박재용), 이영준, 이추영, 최빛나, 호경윤

이슈 1: '왜' 베니스인가?

이슈 2: 한국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슈 3: 한국의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1부
/
기조 발제

권영빈 /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1995년 베니스 카스텔로 공원의 마지막 국가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의 비엔날레가 존재하는 가운데, 비엔날레의 원류로서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비엔날레로 꼽히는 베니스비엔날레의 한국관은 개관 이후 미술전과 건축전을 번갈아 가며 전시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 한국관은 강익중, 이불, 서도호, 승효상, 이용백, 김수자 등 수많은 작가들을 세계에 소개해 온 한국미술의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에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20주년이 됩니다. 그 동안의 한국관 운영을 되돌아보면, 베니스비엔날레 전체를 조망하기보다는 매해 한국관의 전시에만 신경을 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베니스비엔날레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관 전시 뿐 아니라, 아르세날레에서 열리는 본전시 그리고 수많은 위성 전시들까지 열리는 세계 미술의 각축장입니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이러한 오늘의 변화를 파악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2013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커미셔너로 참여한 김승덕 큐레이터가 멀리 파리에서부터 오셨고,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이자 세계비엔날레협회장이신 이용우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밖에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큐레이터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베니스비엔날레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 볼 수 있는 실질적 담론들이 많이 오갈 수 있도록, 여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방안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Art Council Korea)에서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를 끝내놓고 되돌아보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더 개선을 할지, 또 기획자나 큐레이터, 작가에게는 어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 되어야할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사실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세계비엔날레재단 대표이자 광주비엔날레재단을 운영하고 계신 이용우 대표께서 비엔날레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구요, 그 다음에 김승덕 커미너셔께서 한국관을 올해 전시의 진행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품 전시를 개최하는 등 많은 연계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함께 논의해 보자라는 취지로 2부 패널 토론을 구성했습니다. 그럼 오늘 심포지엄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2013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부커미셔너 호경윤 《아트인컬처(Art in Culture)》 편집장을 모시겠습니다.



호경윤 / 네, 안녕하세요. 호경윤입니다. 앞서 류재수 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부는 기조발제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면, 2012년 창설된 세계비엔날레협회 초대회장을 맡고 계시고,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과 인연이 깊으신데요, 1995년 한국관 건립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93 휘트니비엔날레 서울〉전을 기획해 국제 동시대 미술계 흐름을 한국 미술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할지 방향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 세계 비엔날레의 현황과 그 중에서도 베니스비엔날레의 상징성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우 대표를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용우 / 이번 발제를 위해 〈비엔날레의 정치학(Biennale Politics)〉이라는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이 제목은 제가

2년 여 동안 저술하고 있는 개인 저서의 제목이기도합니다. 제가 관여한 비엔날레를 비롯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 봐 온 현장에 관한 이야기, 비엔날레가 생산해 내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진 문화적 지역적 담론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오늘날 비엔날레가 시민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1995년은 대단히 의미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95년 처음 시작한 베니스비엔날레가 100년을 맞는 해이자 한국관이 처음으로 자르디니(Giardini)에 개관한 해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1994년 광주비엔날레가 처음 선포된 후 1995년 1회를 선보였던 해이기도 하지요. 베니스비엔날레 100년과 역사적으로 연결시켜보자면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가 베니스비엔날레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베니스비엔날레는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이면서 전 세계 수많은 비엔날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비엔날레에 그토록 많은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기 때문인가, 관객수가 많기 때문인가, 아니면 제일 역사가 깊기 때문인가 등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 세계 약 200개에 달하는 비엔날레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과하고, 베니스비엔날레에 거는 기대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미술의 지형도 속에서 비엔날레가 차지하는 문화정치학적 위치, 그리고 비엔날레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비엔날레에 대한 7개의 질문

이에 관해 저는 7개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먼저 비엔날레의 역사가 120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엔날레를 하는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 미술계의 구조 속에서 미술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왜 미술관을 만드느냐, 왜 미술관이 있느냐에 관한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Why Biennale?"라는 질문은 지속됩니다. 이는 비엔날레의 정체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엔날레가 그만큼 생생한 것이고 현장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엔날레의 생산과 소비가 정치적 지형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10개의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비엔날레 후발주자인 아시아권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에 비엔날레가 제일 많습니다. 각각 약 10개의 비엔날레 또는 트리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어요. 아시아가 왜 갑작스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비엔날레에 열광토록 하는가 등 다양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What do they offer?"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비엔날레 생산자이거나 소비자입니다. 비엔날레 생산자의 경우 비엔날레를 통해서 관객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비엔날레를 소비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비엔날레를 보면서 무엇을 얻는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비엔날레 생산자 혹은 소비자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생산총량과 소비총량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맞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문화는 경제적으로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보호 받는 수동적인 관계에 있으며, 문화생산자가 만들어 내는 것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으로 오인됩니다.
세 번째 "Who is consumer/producer?"는 비엔날레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갭(gap)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대미술은 성격상 이러한 격차가 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 163만 명의 관객이 방문했습니다. 163만 명이라는 관객수는 아직도 광주비엔날레 전체 역사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제2회 비엔날레는 관객 수가 9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제1회 비엔날레에 방문한 수많은 관객이 비엔날레가 매우 지루한 현대미술 전시임을 알고 나서, 제2회 때에는 관객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사실 90만 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제3회는 70만 명으로, 제4회는 3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제1회 행사를 기획했고 제5회 10주년 기념전시 때 예술총감독을 맡았는데, 50만 명의 관객이 비엔날레에 찾아 왔습니다. 그 이후 광주비엔날레는 약 50만 명에 가까운 평균 관객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는 "관객이 많은 비엔날레"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비엔날레 관객과 비엔날레 생산자 사이에는 어떤 중요한 교감이 있느냐, 어떤 식의 '소통'을 하고 있는가, 또한 그 소통의 가치는 무엇이고, 그 소통의 답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고민이 비엔날레 정치학 속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Liveliest cultural actions / authority?"는 비엔날레가 탈제도권적인 가장 생생한 문화 행동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비엔날레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비엔날레가 일반 제도권이나 제도권적 시각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소위 '제도권화(institutionalization)'의 대표적 기관이 '미술관'입니다만, 미술관은 미학적 가치보다는 미술사적 가치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제도권입니다. 비엔날레가 주장하는 '생생한 현장'이란, 역사적 가치에 의한 전시장이 아니라 지극히 현장적이면서 미학적, 전략적인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진정으로 살아 있는, 생동감 넘치는, '제도권화'를 거부하는 비엔날레가 과연 많은가 하는 의문이 들고, 혹은 비엔날레도 이미 또 다른 '제도권화'된 기관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Hosting city/biennale grow

together?"는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개최 도시와의 동반 성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엔날레는 브랜딩 전략과 관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브랜딩 전략은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니스비엔날레를 주최하는 곳은 베니스비엔날레재단이지만 베니스 시와 전략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광주도 그렇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재단에는 이사가 5명밖에 없습니다. 이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베니스비엔날레의 정책적 방향을 모두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먼저 베니스비엔날레재단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베니스시장, 그리고 베네토(Veneto) 지역의 주지사입니다. 그리고 지역 출신 상/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거의 정치인들로 구성된 셈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꽤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오늘날 베니스비엔날레라는 환경(environment)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다른 비엔날레의 시스템은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로 비엔날레 주최 도시는 비엔날레에 예산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고, 행정 대표자가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참여하는 등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역시 광주광역시장이 재단 이사장입니다. 카셀(Kassel)에서 열리는 도쿠멘타(dOCUMENTA)의 재단 이사장도 카셀시장입니다. 이처럼 비엔날레를 주최하는 시와 비엔날레 재단은 브랜딩 전략에서 상호 우호관계에 있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도 예외 없이 베니스시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고, 광주비엔날레도 전체 예산의 15%를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비엔날레의 성장은 단순히 문화행사가 아니라 해당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도시 자체의 브랜딩 전략과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파악하고 나면 미학적 담론이 주요 맥락을 이루는 비엔날레가 왜 도시 브랜딩 전략과 연결되는가의 문제가 답을 얻게 됩니다. 도시 브랜딩에는 경제 구조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비엔날레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이와 타협하는가 등의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Rapid expansion threat original spirit?"는 1990년대를 통하여 전 지구적으로 급격하게 확장된 비엔날레의 환경이 비엔날레의 탈제도권을 지향하고 현장성을 주장해 온 비엔날레의 초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비엔날레의 확장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닙니다. 비엔날레의 양적 확장은 정말 대단합니다. 비엔날레가 1895년에 처음 생겼는데 현재 약 120개의 국제 비엔날레가 있고 국내용 비엔날레까지 합산하면 약 200개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양적 확장을 통해서 비엔날레가 초기에 추구했던 본질적 정신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고, 혹은 그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Global/local conflict?"는 문화정치학이나 문화현장에서 자주 논하는 글로벌, 로컬 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엔날레는 언제나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장과 관련이 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조학 이론을 제시한 영국의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같은 사회학자는 비엔날레 같은 문화예술 이벤트를, '산업화'와 '근대성'과 연결시켜 세계화(globalism)의 이슈에 직결시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발달이 비엔날레 같은 예술 이벤트 형식의 확장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이 현상이 또 다른 자극에 의해서 오늘날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아트페어와 같은 형태의 예술 이벤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1990년대까지 전 세계에 아트페어는 12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여 개입니다. 전 세계에 아트페어가 급속히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아트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에서 이미 공개했습니다.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전 세계의 주요 갤러리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수많은 아트페어에서 초청장이 오지만 다 참가할 수 없겠지요. 한편 300개에 이르는 아트페어에서 초대를 받는 작가들은 작품 제작에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좋은 작품이 제작될 수 있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200여 개에 달하는 비엔날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예술가들이 생산한 작품이 그만큼 광역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수 많은 국제 예술 이벤트나 페스티벌이 이른바 글로벌 자본주의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문화 담론에는 문화예술 이벤트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든스 이외의 많은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적 현상 읽기 속에 문화 현상을 추가시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결탁보다는 '연관'된 형태의 문화예술 이벤트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3베니스비엔날레 〈백과사전식 전당〉

2013년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주제는 〈Encyclopedic Palace〉입니다. 〈백과사전적 전당〉 혹은 〈백과사전식 궁전〉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이탈리아 출생 미국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마리노 아우리티(Marino Auriti)는 〈백과사전식 궁전〉을 실제로 설계했으며 건축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지식을 한

곳에 담아 낼 수 있는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에 〈The Encyclopedic Palace of the World〉라는 모형을 설계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상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형은 오늘날 수많은 '백과사전적 정보', 즉 정보 그 자체(information)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니스의 예술감독 마시밀리아노 지오니(Massimiliano Gioni)는 기자회견장에서 "오늘날 이미지 홍수의 시대에 '미술'이라는 별도의 이미지로 숱하게 존재하는 다른 이미지에 경쟁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이미 이미지화된 세상에서 미술이라는 특정한 작은 장르의 이미지만으로 경쟁하기보다 훨씬 더 넓은 맥락에서 이미지를 해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비엔날레 출품작은 시각예술이라기보다 '시각문화적 현상'으로서 수용하기 용이한 광의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내건 2013베니스비엔날레는 다양한 통계들을 공개하면서 주제적 맥락에 대한 타당성을 부각시켰으며, 그 결과의 중요성도 공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총 관객 수가 약 46만 명으로 역대 베니스비엔날레 중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번 베니스비엔날레에 88개 국가가 참가했습니다. 베니스의 참가 수치는 다른 비엔날레와 다릅니다. 광주비엔날레 역시 가령 '45개국에서 130명이 참가했다'라는 식으로 작가 명단을 발표합니다.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 측에서 작가를 초청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베니스비엔날레는 각 국가가 직접 신청한 경우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베니스비엔날레를 이상한 말이지만 '예술 올림픽'이라고 표현합니다. 올림픽과 견주어 보자면 올림픽은 숫자로 모든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상을 수여합니다. 베니스비엔날레도 그러한가? 베니스비엔날레 역시 '황금사자상(Golden Lion, Leone d'Oro)'을 비롯해 국가관에 수상하는 국가관상 등의 시상식을 갖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림픽의 정의에 부합하네요. '예술 올림픽'이라는 정의에 강력히 저항하는 예술가나 이론가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 동기는 아니지만, 올해 프랑스와 독일이 각 국가관을 교체해 전시했는데 독일관 커미셔너가 예술 올림픽 정신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베니스비엔날레 당국이 행사 결과를 수치로 환산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이러한 숫자들이 흡사 비엔날레의 성공 요인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비엔날레에는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Mega exhibition' 'Global salon' 'A new type of global blockbuster show' 'Transnational exhibition' 'Art Olympiad' '세계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술 이벤트' 등으로 표현됩니다. 1895년 베니스비엔날레 첫 회 개막식에서 베니스시장(syndic)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비엔날레를 "국가적 구분이 없는 근대정신의 가장 고상한 행동(the most noble activities of the modern spirit without distinction of country)"이라고 보았습니다. "국가적 구분이 없다"는 말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표현인데, 오늘날 우리가 빈번하게 거론하는 전지구적 개념, 세계화된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측, 또는 초국가적 국제 전시회를 근대정신의 가장 고상한 행동이라고 여긴 듯합니다. 돌이켜보면 예지력이 있는 것도 같고 또는 전형적 이상주의자의 수사학이기도 합니다. 비엔날레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나는 "미술관은 문화적인 보고이고, 비엔날레는 실험실(lab)"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술관은 문화적 자산을 간직하는 '보고' 개념보다 점차 '실험실' 성격을 함께 띠고 있습니다. 미술관도 관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술관을 찾아오는 관객으로 운영하기에는 더 이상 이념적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미술관에 관객을 빼앗기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객 유치에 나섭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미술관이 문화 권력기관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술관도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지요.



미술사를 만든 전시회들

최근 주목할 만한 책이 있습니다. 뉴욕대학교의 미술행정과 미술관학과 주임교수인 브루스 알트슐러(Bruce Altshuler)가 저술한 《미술사를 만든 전시회들(Biennials and Beyond - Exhibitions that Made Art History: 1962~2002)》입니다. 알트슐러는 1960년부터 2002년까지 전 세계에서 열렸던 전시회 중에 25개를 선별해서 '미술사를 만든 전시회들'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물론 저자가 개인적으로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 전시회 가운데 5개가 비엔날레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1972년 카셀도쿠멘타5입니다. 당시 디렉터는 하랄트 제만(Harald Szeemann)입니다. 하랄트 제만의 도쿠멘타는 대단히 중요한 전시죠. 그가 기획한 전시 중 〈태도가 형식이 될 때(When Attitudes

Become Form)〉는 기원적인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9년 스위스의 쿤스트할레베른(Kunsthalle Bern)에서 열린 전시입니다. 이 전시를 기점으로 하랄트 제만이라는 젊은 큐레이터는 새로운 미술의 지형도를 만든 스타 큐레이터가 되었지요. 카셀도쿠멘타 위원회는 그를 감독에 임명했습니다. 당시 도쿠멘타는 여러 측면에서 과거 유지하던 전형성에 대한 형식의 '파괴'가 두드러졌습니다. '100일 전시회'를 비롯하여 건축, 퍼포먼스, 디자인에서 문학, 강연 시리즈 등에 이르기까지 평이한 방식의 전시 문화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던 내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쿠멘타에 유입시킵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으로 인해 1972년 제5회 카셀도쿠멘타는 매우 기록적이고 중요한 획을 그었습니다.

알트슐러는 그 다음으로 1986년 하바나비엔날레(Havana Biennale), 1993년 휘트니비엔날레(Whitney Biennial)를 선정했습니다. 1993년 휘트니비엔날레는 엘리자베스 서스만(Elizabeth Sussman)이 큐레이터를 맡았습니다. 1993년 비엔날레는 당시만 해도 휘트니비엔날레 역사 중 최악의 해로 꼽혔습니다.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가, 이론가 등을 막론하고 미국의 모든 언론 매체에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비엔날레에서 그 동안 금기시했던 사건들, 사회정치적인 주제들, 제3세계 주제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에 개입됐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이민자 예술가들이나 언더그라운드를 포함하여 비주류 예술가들이 다량 출품했습니다. 이전까지 미술계의 주류라고 여겨진 흐름을 단절시켰고 미술시장에서 이름을 날리던 작가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LA폭동 등 당시 로드니 킹(Rodney Glen King)의 비디오를 전시장에서 그대로 상영하는 등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미술 현장에 직접 영입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서스만은 비엔날레를 진정한 '실험실'이라고 정의하는 큐레이터 중 한 명입니다. 따라서 그가 바라본 비엔날레는 미술 시장과 조우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미술 시장에서 발탁되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작가의 작품을 미술관에 다시 전시함으로써 미술관 이사회는 물론 관객도 만족시킨다는 기존의 공식을 완전히 타파해야만 했습니다. 아서 단토(Arthur Danto)는 한 리뷰에서 "오늘날 현대미술은 '현대미술'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큐레이터들에 의해서 재창조되고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휘트니 비엔날레도 그곳 중 하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과연 '1993년 휘트니 비엔날레가 그렇게 나빴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휘트니비엔날레 다시 보기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말하자면 패권주의적이고 시장 중심적이며 스타작가 중심, 마케팅으로 점철된 과거 형식으로부터 탈피한 제3세계적이고 비주류 미술계까지 포괄하는 전시로서 1993년 휘트니비엔날레가 최초의 공을 세웠다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1993년 휘트니 비엔날레는 휘트니 비엔날레 역사상 가장 중요한 행사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제가 이 비엔날레의 협력큐레이터를 맡았는데, 이 비엔날레를 서울에서 전시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비엔날레 역사상 특정 비엔날레가 다른 국가로 여행을 간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의 소위 주류 미술계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은 전시였기 때문에 저 역시 처음에는 비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전시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듯이 1980년대 미술계에서 크게 일기 시작한 과거의 제도권적 풍토에 대한 반성이 오히려 휘트니비엔날레를 신선하게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비(非)제도권적이고 탈(脫)권력적이고 새로운 형식의 리얼리즘 문화가 도입되면서 콘텐츠보다는 맥락 중심의 비평적 잣대가 우리 사회에 유입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제도권보다는 비제도권 미술계에서 〈1993년 휘트니비엔날레 서울〉전을 사실상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알트슐러의 연구에는 그 밖에 1998년 상파울로비엔날레(Sao Paolo Biennial), 2002년 카셀도쿠멘타11이 있습니다. 2002년 카셀도쿠멘타 디렉터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미국 큐레이터 오쿠이 엔위저(Okui Enwezor)입니다. 변방 국가들이나 제3세계권을 상당히 고려한 도쿠멘타였습니다. 전시 초부터 사회정치적 이슈들이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1993년 휘트니비엔날레 이후 약 10년 만에 카셀도쿠멘타에서 다시 유사한 접근 방식의 전시가 개최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993년 휘트니비엔날레와 2002년 카셀도쿠멘타는 오늘날 비엔날레 역사상 사회정치적인 이슈를 가장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시각문화 현장에서 새로운 큐레이터십을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엔날레는 아니지만 1989년 장-위베르 마르텡(Jean-Hubert Martin)이 기획한 〈대지의 마술사(Magiciens de la Terre)〉라는 퐁피두센터 전시입니다. 역시 제도권적 시각에서 바라보던 미술 현장에 대해 전복적인 큐레이터십을 발휘한 전시입니다. 이 전시 역시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파장의 양상은 단순합니다. 이 전시에 출품한 작가 100명 중 50명은 서구 백인 중심 작가들로서 서유럽권과 미국 출신 작가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명은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유럽 등 제3세계권 출신 작가였습니다. 이 전시가 열리자마자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르탱도 이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미술관을 떠났습니다. 이 전시가 열린 1989년은 실로 중요한 해입니다. 미술계 외에도 1989년에는 중요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가 석방되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종식의 신호를 보이고 있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며, 베이징에서 천안문사태가 일어났으며, 'World Wide Web(WWW)'이 스위스 과학자에 의해 공개되어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를 둘러싼 현상들이 전개되는 인터넷 시대의 만개를 열기도 합니다. 이러한 1989년의 맥락 속에서 시각문화 현장에서는 〈대지의 마술사〉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브루스 알트슐러가 선정한 미술사를 만든 25개 전시 중에서 비엔날레와 관련된 일부 전시를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대체적인 특징은 미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거적이고 패권적이고 제도권적 시각이 강했던 시장 지향적 방식을 과감하게 통제하고 또 다른 형태의 현실적 발언을 제안했던 전시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비엔날레는 실험 정신이 강한, 또는 급진적 형식이 뚜렷한 전시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광주비엔날레재단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긴급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비엔날레는 이 '사회적 긴급성(social urgency)'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미술관과는 다른 비엔날레 나름대로의 해답이 무엇인가 등의 질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비엔날레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문화행동적 특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경윤 / 지금까지 이용우 대표께서 집약적으로 동시대 비엔날레의 지형도를 그려주셨습니다. 특히 비엔날레를 '예술 올림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매체에서는 베니스비엔날레를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베니스비엔날레는 6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한국관 관객수는 올해 총 149,181명으로, 하루 평균 약 970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전까지 통계를 보면 한국관 전시를 하루 평균 1,000명 정도 관람했는데, 이번 행사의 경우 전시 작품 콘셉트로 인해 관객 입장 수를 제한해 다소 걱정스럽기도 했으나, 이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관객이 한국관을 찾아 주었습니다. 이제 김승덕 커미셔너께서 한국관의 전시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승덕 / 안녕하세요, 2013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김승덕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장차 커미셔너를 비롯해 비엔날레에 관여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백서도 제작하고자 합니다.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는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특히 '베니스'라는 특수지형적인 상황 속에 보통 전시 기획과는 다른 독특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자료로 남겨 다른 커미셔너들에게도 쓰일 수 있다면 매우 뜻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관의 전체적인 설명보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2부에 패널들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의 특수한 장소성

제가 한국관 커미셔너로 선정이 되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어떤 작가를 선정할 건인가, 그리고 한국관이라는 건축구조물이 가진 장소성을 활용해 전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관이 유리로 싸여 있어 통상적인 전시를 꾸려 나가기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의 한국관 전시를 참고했을 때도 그 문제가 두드러졌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안해 낸 것은 한국관의 장소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건축 구조를 고스란히 살리고, 이미지나 영상을 보여 주더라도 가벽이나 커튼을 설치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삼고 작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작가를 선정하기에 앞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면, 보통 빛이나 소리 혹은 영상물을 전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건축 구조물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고려하면서 이러한 작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선정된 작가에게 한국관이라는 빈 캔버스를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한국관 보수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일 먼저 보수 작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관은 1995년 개관해 2013년에 18년째 되었고 다음 미술 전시 때는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된 보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수 공사를 요구했더니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수 공사가 어려웠던 점은 사실 한국관 관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분적인 보수 공사가 진행됐어요. 하지만 매해 미술 비엔날레와 건축 비엔날레가 번갈아 진행됐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베니스 시로부터 숱한 허가와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던 점도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국관 전시는 그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삼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수 없이는 전시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출했기 때문에 이 사전 보수 작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김수자 작가의 작업을 선보일 수 있게 된 점에 관해서도, 만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수용해주시 않았다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비물질적인 전시

다음으로 고려한 점은, 만약 유리벽을 검정색으로 하나도 둘러싸지 않고 비(非)물질성을 강조해 영상 작업을 전시한다면 과연 대낮에 이 유리관 속에서 영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몰레드라는 LED 패널로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면서 많은 시간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결국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2012년 10월 말경 김수자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뉴욕에 허리케인 '샌디(Sandy)'라는 자연재해가 덮친 날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기본 방향은 비물질성을 기반으로 삼아 건축 구조를 가장 존중(respect)하면서 그 속에서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하면 참 좋겠다고 말했는데, 김수자 작가께서 굉장히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번 전시를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수자 작가는 자신의 기본 작업인 보따리 작업을 활용해 한국관 건축물 전체를 감싸는 개념으로 전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디프렉션 그레이팅 필름(diffraction grating film)'이라는 투명한 필름을 한국관 유리 전체에 부착했고, 외부에서 내부로 빛이 들어와 무지개 빛 효과를 냈기 때문에, 아침 햇살부터 전시를 종료하는 저녁 시간까지 빛의 공연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냈습니다. 이로써 한국관 건축물을 100%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작가의 보따리 개념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그대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관 내부에 작가의 숨소리를 녹음한 사운드 작업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이번 전시 작품 중 '무반향실(anechoic chamber)'로 설치된〈To Breathe: Blackout〉은 장소 특정성을 띠고 있습니다. 김수자 작가는 뉴욕에서 자연재해를 몸소 맞닥뜨리면서 약 1주 내지 2주 동안 물과 전기가 없이 칠흑 속에서 지냈던 경험을 이번 전시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물인 이 검은 방, 무반향실에 들어가면 외부 소리가 완전히 차단해 자신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전시의 이상과 현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2부에서 패널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점으로서,
베니스비엔날레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전시를 기획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정된 시간과 특수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기획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번 한국관 전시의 경우에는 바닥과 천장에 알루미늄 패널을 깔고 모든 유리벽을 디프렉션 그레이팅 필름으로 감쌌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입장해야 했습니다. 또한 무반향실에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들어가 1분가량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현대인은 완전히 깜깜한 암흑과 아무 소리 없는 상황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무반향실이 고안되었습니다.
사실 김수자 작가는 이 방 안에서 관객이 5분 정도의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작가가 의도한 바를 충분히 느낄 수 있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신발을 벗고 입장하는 것부터 큰 문제가 됐고, 게다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도 직면하게 됐습니다. 관객이 혹시 미끄러지진 않을 지부터 무반향실에 들어갔을 때 혹시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관객이 갑작스레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 관객으로부터 다방면에서 허가와 동의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관 방문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을성 있게 기다려서 관람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2부에서 패널들과 함께 제가 전시를 기획하면서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공유하고, 이후 앞으로 한국관을 어떻게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관한 방안들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2부
/
패널 토론

호경윤 /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종합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주 독립큐레이터이십니다. 올해 6월 파리 팔레드도쿄(Palais de Tokyo)에서 열린 〈누벨바그(Nouvelle Vague)〉전에 한국 대표 기획자로 참가하셨고, 예전에는 백남준아트센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제4회 부산비엔날레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진 독립큐레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스탄불비엔날레 큐레토리얼 어시스턴트, 2008년 광주비엔날레 공동큐레이터로 참여하셨고, 네덜란드 반아베미술관 초청연구원,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일민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워크온워크(Work on Work)의 박재용 큐레이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온워크는 박재용과 장혜진 두 큐레이터가 함께 하는 기획 그룹으로서, 전시 기획이나 글쓰기, 번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흩어지는 전술 HIT and RUN〉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베니스비엔날레에 관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준 계원예술대학교 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진 전시 기획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2005년 프랑크푸르트북페어 한국 주빈국 전시 〈Fast Forward〉를 기획하셨고, 2010년 서울사진축제, 최근에는 대구사진비엔날레 등을 기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추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이십니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Who is Alice?〉를 기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빛나 씨는 네덜란드 유트레흐트에 소재한 미술 기관인 '카스코(Casco)' 디렉터이십니다. 비서구권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아트 콜레보레이토리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당시 네덜란드관 준비에 참여하셨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자리의 패널 분들은 모두 국제무대 현장에서 전시 기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는 바로 "과연 내가 한국관 커미셔너가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3가지 이슈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베니스인가?', 둘째 '한국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셋째 '한국의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3가지 이슈 안에서 다룸으로써 운영을 둘러싼 총체적인 문제부터 큐레이터십까지 입체적으로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큐레이터는 전시뿐만 아니라 행정, 예산, 홍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골고루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왜, 베니스인가?

호경윤 / 우선 첫 번째, '왜 베니스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이용우 대표께서 언급했듯이 베니스비엔날레는 1895년에 출범해서 지난 120여 년간 최고(最古)이자 최고(最高)의 비엔날레로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수많은 비엔날레가 있고 각 비엔날레마다 차별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베니스비엔날레 오프닝 기간이 되면 세계 주요 미술 관련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곤 합니다. 단순히 '최고의 비엔날레'라는 상징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승덕 커미셔너께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 한국관 전시를 맡기도 하셨지만, 특히 프랑스나 유럽 전역을 무대삼아 활동하시면서 이번 한국관 커미셔너를 맡기 전에 1993년과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전시를 기획하셨고 심지어 거주하시기도 했기에, 왜 베니스에 미술 관련 VIP들이 찾아오는 것인지, 과연 베니스가 어떤 곳이기 때문인지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덕 / 저는 1993년에 베니스에 살았는데, 당시 백남준 작가가 독일관에서 전시하셨습니다. 이때 백남준 작가께서 많은 '로비'를 하셔서 2년 후 한국관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많은 비엔날레 중에서 왜 베니스비엔날레인가. 첫째로 베니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계 사람들이 아무리 업무에 치이고 바쁘더라도 가능하면 베니스비엔날레는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도시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즐겁게 휴가도 겸해 머물곤 합니다. 그만큼 베니스라는 도시 자체는 관광 도시로서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꼭 미술 전시가 아니더라도 그 도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대단하지요. 둘째로 근래 수많은 비엔날레가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상황 속에서 특히 베니스비엔날레는 전 세계의 국제적인 큐레이터, 미술관 관계자, 화상 등 미술계 거의 모든 귀빈들이 다 모이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리

중요한 전시를 기획한다고 해도 몇몇 주요 인사를 볼 수 있지만 전 세계의 미술인들이 모두 눈여겨 봐주는 기회는 베니스비엔날레에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비롯한 베니스의 중요성이 굉장하다고 봅니다.

호경윤 / 김승덕 커미셔너께서 방금 백남준 작가께서 많은 로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될까봐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 베니스비엔날레 관련 자료를 보았더니 로비는 다름 아닌, 백남준 작가께서 베니스시 시장한테 그림 편지를 써서 전달했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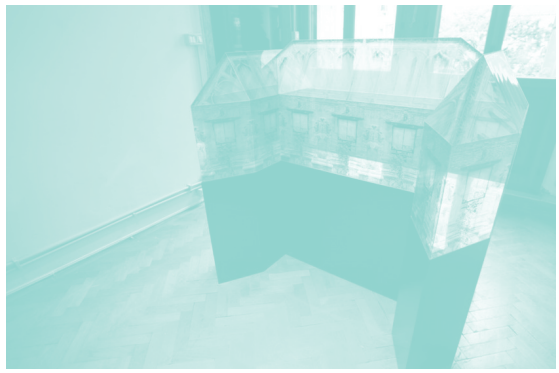
김승덕 / 제가 다시 덧붙이면, 만약 백남준 작가가 안 계셨으면 아마 한국관은 지금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용우 대표께서도 당시 굉장히 많은 힘을 함께 실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1993년에 한국관 건립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자르디니에 국가관가 하나가 더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남았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전 세계 여러 강대국들이 이미 후보에 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백남준 작가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물론 당시 특히 1993년 베니스시장으로 선출된 마시모 카차리(Massimo Cacciari)가 이탈리아 공산당 소속이기도 했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는 철학자이시기도 했고, 굉장히 생각이 열리신 분이었어요. 만약 경제적인 부분만 내세웠으면 한국이 아마 현재 국가관 자리를 차지하지 못 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백남준 작가가 당시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고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려진 나라는 한국 밖에 없으니, 만약 한국관을 건립하면 남한과 북한이 함께 전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안하셨어요. 이러한 유일한 평화적인 제스처를 내보이는 국가관이 어디 있겠느냐고. 백남준 작가가 좋은 의미의 로비를 해주셔서 카차리의 동의와 함께 주변 분들의 힘을 빌어서 한국관 설립이 정말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자르디니에 국가관을 보유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습니다.

호경윤 / 네, 그리고 남북한 공동 전시 이슈는 아마 다음의 2014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덕 커미셔너께서 초반에 말씀해 주셨듯이 관광지나 아름다운 풍경 등이 베니스비엔날레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베니스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오래도록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니스는 미술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영화제, 음악제, 연극제 등 여러 가지 국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부에서 이용우 대표께서 올해 88개 국가가 참여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르디니 내 30개 국가관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제 자르디니 바깥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 계속 국가관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문화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베니스비엔날레에는 아르세날레 본전시, 자르디니 국가관 전시 외에도 콜래터럴 이벤트라는 특별전이 있는데요, 한국이 관련된 특별전으로 1995년 〈호랑이의 꼬리〉전이 있었는데 18년 만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Who is Alice?〉라는 전시를 올해 베니스 현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기획한 이추영 학예사께서 올해 국립현대술관에서 베니스 특별전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강조해서 보여 주고자 하셨는지 등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추영 / 저도 베니스비엔날레 전시 기간 막바지에 몇 차례 찾아가서 주제 전시와 국가관 전시 정도를 관람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베니스비엔날레를 경험하다가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현장에 하나의 전시를 개최하는 좋은 기회에 참여했습니다. 김승덕 커미셔너도 말씀하셨지만 베니스비엔날레는 대표적인 비엔날레이기도 하고, 국가관 전시라는 굉장히 독특한 운영체제를 갖고 있기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고, 각 나라의 미술계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에 대해 궁금증도 많기 때문에 베니스에서의 전시 기획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한 국가의 대표적인 미술관으로서 당연히 컬렉션을 활용해 한국 현대미술을 국제 미술계에 여러 차례 알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베니스비엔날레가 이러한 미술관 측이 가진 미션을 수행하기에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전시 〈Who is Alice?〉는 이용우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콜래터럴 이벤트로서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했습니다. 24,200유로, 한화 3,500만 원가량의 비용을 베니스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면 '콜래터럴 이벤트'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전시 기획 내용을 제출을 하고, 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내리면, 전시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시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보자면, 여태까지 국립현대미술관 해외 전시는 대부분 해외에 있는 미술관이나 주요 기관과 협력하고 그 기관의 공간을 이용하면서 전시를 개최했는데, 베니스비엔날레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중에 콜래터럴 이벤트 행사가 200여 개가 개최됐는데, 베니스라는 작은 섬에 주제관, 국가관, 콜래터럴 이벤트, 게다가 이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은 전시들까지 합산하면 하나의 커다란 경제구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전시 공간을 임대해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등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총예산은 약 4억 5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료로 매달 10,000유로씩, 6개월을 대여했기에 60,000유로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전시 기획팀이 베니스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기획사와 긴밀하게 협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해당 기획사 측에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미술관 컬렉션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자르디니 국가관 전시 오프닝 다음 날 같이 오픈했고, 국가관을 찾았던 여러 손님과 언론을 다음 날 저녁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로 인도했습니다. 일전에 베니스비엔날레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모든 국제적인 미술계의 인사들이 방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나 이번 전시 기획에 참여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지금껏 국립현대미술관과 국제적으로 교류했던 세계적인 인사들을 하루 내지 이틀 사이에 모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은 물론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도 대단히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시 기간 동안 한국관 전시를 방문한 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도 찾아달라고 홍보했습니다. 저희 미술관 컬렉션을 통해서, 한국 현대미술의 지극히 작은 단면이지만 그 단면을 세계 여러 미술인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르세날레와 자르디니 외부에 전시 공간을 빌려서 대여료와 기획료를 들여가면서 전시를 준비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겪으면서 좀 더 장기적인 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미술관으로서, 그리고 큐레이터로서의 성과는 1868년 건립된 베니스 카포스카리대학교(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라는 유서 깊은 대학교와의 교류입니다. 이 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있는데, 이 한국학과가 최근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국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포스카리대학교 안에 근사한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곳에서 러시아 문화를 소개해주는 전시에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학과 교수들이 한국 문화나 한국 현대미술을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동안 같이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카포스카리대학교와 협력해 한국 현대미술을 공식적인 공간에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최근 문화예술위원회, 광주비엔날레, 국립현대미술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자 MOU를 체결했는데, 이 MOU 체결이 단지 형식적인 겉치레로 끝나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비엔날레 기간 동안 상호간에 실질적으로 협력해서 한국 현대미술을 국가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 나오시진 않으셨지만, 신보슬 큐레이터도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동안 베니스 아마데우스호텔(Amadeus Hotel)에서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는 전시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작은 발걸음들이 베니스라는 굉장히 큰 국제 미술계 무대에서 한국 현대미술에 대해 어느 정도 조금씩 인식시켜주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Who is Alice?〉전 관객 수를 말씀드리면, 총 약 15,934명이 전시관을 찾아, 매달 약 2,600명의 관객이 방문했습니다. 한국관 전시를 관람한 관객의 10분의 1 가량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미숙한 점도 많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좀 더 충실한 내용을 갖춰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호경윤 / 그럼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이 특별전을 개최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추영 / 네, 현재로서는 베니스 특별전 참가에 앞서 카포스카리대학교와 관계를 맺고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규모를 키워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경윤 / 신보슬 큐레이터가 기획했던 〈코레아 캄파넬라(Corea Campanella)〉전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기관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기획자 개인이 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을 받아 마련한 전시입니다. 베니스비엔날레 콜래터럴 이벤트에 등록되기 위해 로열티까지 지불하기는 어려워 공식 특별전은 아니었지만, 한국과 연관된 행사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2012년 광주에서 진행된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세계비엔날레협회 측에서 책으로 출간해 비엔날레 일정에 맞춰 베니스 현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는 비엔날레 이외에도 여러 미술행사가 베니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오프닝 기간 3여 일 동안 수많은 인파가 수상버스에 몸을 싣고 이곳저곳 이동하는 모습이 매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문화 올림픽이라고 할 만큼 국가별로도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1914년 소련에서 자르디니에 국가관을 설립하니까, 1920년 미국도 재빨리 국가관을 개관하는 등 베니스비엔날레는 단순히 미술 행사가 아니라 국제 정세까지 연관된 장소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베니스비엔날레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 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했는데요, 네덜란드 작가 요나스 슈탈(Jonas Staal)이 주관했습니다.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베니스비엔날레를 가이드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른 여러 미술 기관과 더불어 최빛나 디렉터가 계시는 카스코가 지원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는 예전부터 있었고, 이번 어플리케이션은 작가 프로젝트로서의 개념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리서처로서 워크온워크가 참여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박재용 큐레이터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용 / 저희는 최빛나 디렉터의 추천으로 요나스 슈탈이라는 네덜란드 작가의 제안을 받아 참여했고, 이 프로젝트의 정확한 제목은 〈베니스비엔날레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가이드(The Ideological Guide to the Venice Biennale)〉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은,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들이 국력이나 경제력 같은 사회정치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관 전시를 다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연구해서 그 결과물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실행하면 베니스 지도가 나타나고, 여기에 각 국가관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르디니를 중심으로, 운 좋게 자리 잡은 한국관도 있고, 혹은 20세기 초부터 들어선 강대국의 국가관들도 있고, 구석진 곳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관들도 있습니다. 이 국가관들을 단순히 알파벳순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랍연맹,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다소 비(非)예술적인 방식으로 베니스비엔날레를 투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가이드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선거 제도는 어떤지, 인구는 어느 정도이고, 국가의 총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OECD의 원조를 받는지, 군사비는 얼마나 지출하는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리서치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가령 한국관 전시를 운영하는 구조라고 할까요, 다소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커미셔너를 선정하고, 그 커미셔너가 작가를 결정하고 하는 절차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각 국가관별로 주최들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최가 특정 문화재단인 국가도 있고, 문화부 같은 정부 부처인 국가도 있고, 어떤 기업인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개인이 후원하는 곳도 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베니스비엔날레가 운영되는 방식과 상당히 다른 형태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국가관이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언젠가 한국의 어떤 대기업이 베니스비엔날레의 커미셔너가 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조사가 가능한 선에서 집행 예산도 입력했고, 오픈콜 방식 도입 여부도 조사했는데, 오픈콜로 진행되는 나라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추영 큐레이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동안 공식적인 국가관 전시 외에도 상당히 많은 전시가 진행되고, 더 조사해보면 비공식적인 파빌리온도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인터넷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베니스비엔날레의 일부가 되기로 했다가 불발되어 독립한 경우나, 유럽에서 집시로 취급받는 로마 족이 '로마관'을 만드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서 다른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맥락을 고려했을 때, 베니스비엔날레의 이면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기관과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큐레이터나 커미셔너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많습니다. 그 배경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고려사항과 맥락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더욱 진전시켰으면 합니다.



한국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호경윤 / 저도 그동안 한국관 중심으로 봐왔기 때문인지 다른 국가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기관이 커미셔너를 선정하고, 그 다음 작가를 선정하는 경우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형식, 과정, 전시의 규모나 예산 등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한국관도 지금의 틀을 잡기까지 몇 차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국관이 건립된 때는 1995년이지만, 사실 한국이 베니스비엔날레 참여한 것은 1986년부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미술협회에서 베니스비엔날레뿐만 아니라 상파울로비엔날레 등 여러 국제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커미셔너나 작가를 선정하고 전시를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미술협회에서 베니스비엔날레에 3차례 참여했는데, 당시는 장소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전에 이탈리아관으로 쓰였던 중앙관의 약 20미터 정도에 이르는 벽면에서 전시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당시 전시 개최 전 날 커미셔너와 작가, 조수 한 두 명이 작품을 등에 지고 가서 현장에서 바로 설치하는 등 굉장히 어렵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1993년 이후 한국관 건립이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국관 자리가 화장실이었고, 공간 면적이 협소하다거나, 무엇보다 일본관 뒤에 있어서 묘한 한일 감정을 유발해 당시 여러 언론에서 한국관의 한계에 대해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한국관 전시는 올해로 10번째였습니다. 한국관 개막부터 지금까지 커미셔너를 살펴보면, 1995년은 고(故) 이일 평론가, 1997년은 현재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광수 미술평론가, 1999년은 송미숙 동아시아문화학회 회장, 2001년은 박경미 PKM갤러리 대표, 2003년은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2005년은 김선정 아트선재센터 부관장, 2007년은 안소연 삼성미술관 플라토 부관장, 2009년은 주은지 이뇨칭미술관 디렉터, 2011년은 윤재갑 상하이 하우미술관 디렉터입니다. 처음에는 한국미술협회에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 관련 전시를 주관하다가, 1995년 한국관 건립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로서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했고, 이때부터 문화관광부와 집행기관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가 지휘권을 이어 받았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한국미술협회가 어느 정도 관여하다가, 1998년 즈음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커미셔너 선정권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번 행사까지 한국문화위원회는 운영위원을 구성해 추천과 심사를 같이 했는데, 앞으로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선정부터는 추천 위원과 선정 위원을 별개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한편 얼마 전 2014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 선정 방식은 공개추천제로 진행하는 등 미술전과는 다르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커미셔너 선정 과정도 조금씩 변하는데요, 현재 커미셔너 선정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혹은 다른 외국 사례는 어떠한지 김승덕 커미셔너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승덕 /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우리나라가 커미셔너를 뽑는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다는 부분입니다. 커미셔너 선정 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겨서 커미셔너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정위원들이 커미셔너를 선출하면 해당 커미셔너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작가를 선정하고 운영비까지 전부 꾸려나가는데, 외국 사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커미셔너에게 모든 책임과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커미셔너와 작가, 작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방면에서 관계 맺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례로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작가가 커미셔너를 선정합니다. 프랑스 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내부적으로 작가를 선정한 후, 해당 작가가 함께 일할 커미셔너를 선정합니다.



호경윤 / 네덜란드의 경우는 어떤가요?

최빛나 / 네덜란드에는 아르코와 비슷한 '몬드리안재단(Mondriaan Foundation)'이라는 기관이 커미셔너를 맡고 있는데, 작년에 오픈콜로 선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50여 명의 큐레이터가 신청했고 이 중에서 큐레이터를 선정했습니다. 폴란드관과 조지아관도 오픈콜입니다.

호경윤 /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젊은 큐레이터들이 한국관 커미셔너 선정 방식을 오픈콜로 전환하길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관도 그렇게 될까요?

최빛나 /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리서치 측면에서만 보자면, 오픈콜을 할 경우 전시기획서가 수 십 여 개가 축적되잖아요. 그러면 동시대 미술계 내지 한국 미술계의 무엇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좌표가 그려질 수 있겠죠.

호경윤 / 앞서 김승덕 커미셔너께서 말씀하셨듯이,

커미셔너에게 전적인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지만 한국관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만큼 막중한 책임도 다 짊어지는 셈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점에서 최빛나 디렉터도 카스코라는 기관을 운영하시고, 김현진 큐레이터께서도 얼마 전까지 일민미술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지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술기관에서 근무하면 확실히 드러나는 정치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신경을 써야할 듯 합니다. 그래서 한국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라도, 김현진 큐레이터께서 보셨을 때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라든지, 홍콩관이라든지 살펴보셨던 다른 사례에 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진 / 사실 한국관 운영 문제에 앞서 다소 놀랐던 점은 이추영 학예사께서 말씀해 주신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프로젝트에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인데, 예산 대비 〈Who is Alice?〉전의 효율이나 결과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 정도 예산이 책정됐다면 다른 여러 방식을 시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일했던 사립 미술관은 그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1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실정이라, 실제로 큐레이터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같은 예산으로 굉장히 다른 행보를 감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외국에서 전시를 개최해야 하고 또 그곳이 베니스라는 점. 기본적으로 베니스라는 곳은 산업 기반이 없이 거의 죽어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도시의 바니타스(vanitas)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입된 돈이 2년에 한 번 씩 개최되는 미술전 외에 매년 다른 페스티벌을 꾸려나가면서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베니스로써는 외부의 자금을 들여야 시를 먹여 살려야 하고, 모든 게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기도 한데, 그래서 베니스에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현지 스태프와 일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예산 대비 좋은 전시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관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경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4억 원을 받고, 삼성문화재단에서 3천만 원을, 제공하고 있고, 넥슨에서 약 1억 4천만 원을 지급해 주어서, 총 5억 7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김승덕 / 앞서 언급했다시피 베니스의 경우 워크숍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베니스는 독특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그곳에도 그곳만의 법도가 있거든요. 2001년 베니스비엔날레 프랑스에서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전시 당시 제가 르 콩소르시움(Le Consortium)에서 같이 일했거든요. 그 당시와 이번 한국관 전시를 준비했던 때를 비교해 보면, 베니스에서는 정말 모든 노하우를 하나씩 쌓아놓고 정리해 두어야지, 매번 커미셔너가 바뀔 때마다 베니스에 가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정보만 공유해도 정말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지금 현지에서 한국관을 맡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계신데, 실질적인 현장 업무를 꿰뚫고 있는 그 분과 더욱 면밀히 교섭해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베니스는 정말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고 날짜를 앞당기고 싶으면 베니스 현지인들은 값을 높게 부르면 된다는 걸 모두 알고 있고 또 베니스라는 도시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 다음 번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예부터 살펴보자면, 한국관을 관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베니스 내에서도 어떤 시공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거든요. 베니스에 관해서는 정말 A부터 Z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반드시 매뉴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추영 학예사께서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앞으로 카포스카리대학교와 장기적으로 교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학의 내부적인 사정도 더욱 꼼꼼히 점검하셔야 해요. 저도 그곳 잘 알거든요. 기왕에 한국 미술계를 제대로 프로모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기로 전시를 보러 오는지 등을 지금부터 파악했을 때만이 적정한 예산으로 매우 효과적인 전시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이추영 / 제가 굳이 예산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베니스에서 〈Who is Alice?〉전을 오픈 한 이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전시에 소위 '돈을 쏟아 부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0억 원 이상 들였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담당자로서 왜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게 받아 들였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동안 이 전시 홍보가 사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반은 운이고 반은 노력인데요, 현지 기획사가 이를테면 한국의 김달진미술연구소와 네오룩을 합친 형태의 기획사였습니다. 이 기획사와 일하면서 홍보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비엔날레 기간 동안 몇 백 개나 되는 전시들이 베니스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작품을 선정할 때 물론 주제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시각적으로 확실히 이목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미지적인 면을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이점이 홍보에도 많이 반영되어서 바포레토(Vaporetto)나 도시 곳곳 눈에 띄는 곳에 포스터로 광고하는 등의 방식이 현지 관객에게도 큰 이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산 대비 전시 효율에 대해 걱정하실 것 같아 제가 계속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외부의 전시 공간을 대여한다는 개념의 전시 기획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기관 대 기관이 교류해서 타 기관의 공간을 사용하기로 하고 해당 기관 측에서 관리해주는 조건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번 전시는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전시 공간도 빌려야 하고 베니스에 상주하는 관계자가 없어 현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등 이러한 기본적인 부대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4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베니스에 가서 이 정도 수준의 전시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시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민에도 불구하고도 한 번 시도해 보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베니스비엔날레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고, 국립미술관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 현대미술을 외국에 선보이기 위해 정보를 획득하려는 목적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어느 정도 고급정보는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호경윤 / 그렇다면 1995년 〈호랑이의 꼬리〉전은 이번 전시와 다른 경우였나요?

이추영 / 사실 굉장히 오래된 전시이고, 국립현대미술관 측에도 구체적으로 아카이빙되어 있지 않아서 두 전시 운영 문제를 견줄 만큼의 윤곽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빛나 /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와 한국관 전시에는 어떤 연계가 있었나요?

이추영 / 그 점도 제가 MOU 체결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급하게 준비했기에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소책자를 한국관에서 배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호경윤 / 저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업무도 했지만, 그에 앞서 미술전문지 기자이기 때문에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베니스 전시 개최 소식을 예전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홍보팀에 문화예술위원회와 어떤 긴밀한 협조를 해보는 것은 어떠하냐고 제안했고, 반대로 문화예술위원회 측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번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동안 콜래터럴 이벤트에 참여한다는 언질을 주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 사이의 교류를 맡은 담당자라는 개념이 약해서 그런지 양쪽 모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MOU를 기점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두 기관 중에서 어느 곳이 먼저 나서야 할지 파악하지 못해 애매모호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재용 /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전시를 베니스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지 궁금하고, 또 어디서부터 그 제안이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0% 자체 예산이었는지요?

이추영 / 아무쪼록 한국관 측과 협의까지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촉박했고요, 사실 2012년 가을 즈음부터 이 전시에 관해 고려했으니 전시 개최까지 약 1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공간 섭외 문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장소를 어떻게 대여할지부터 시작해서 실무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예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립현대미술관 100% 자체 예산이었습니다. 한진해운에서 운송 관련해서 협력해 주셨고요.

박재용 / 제가 궁금한 점은, 〈이데올로기적인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에도 이런 부분들이 등재돼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정부 기관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국제 미술계에 알리고자 하는 큰 아젠다가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은 그 산하 기관으로서 미술 전시를 기획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따라 2012년 가을에 이번 전시에 관해 매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립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그러한 지점을 염두에 두어야 했기에 이번 전시를 기획한 것인지 등입니다.

이추영 / 내부적으로 개별 학예사들이 이러한 전시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립현대미술관이 견지한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규모의 전시는 관장님의 의지를 통해서 결정되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을 국제무대에 보여 주는 기회를 많이 갖자'라는 것이 지금 저희 미술관의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목표 중에 하나로서 이번 전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방식의 전시였죠. 예산을 투입하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을 것을 해보자는 도전적인 마음가짐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한국의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호경윤 /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 박재용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미술의 세계화' 혹은 '미술 한류'가 이제 국가적 아젠다가 된 것 같아요.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 지점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을 보여 주겠다는 건 상당히 시대에 역행하는 관념일 수도 있지만, 국가를 등에 엎고 가는 행사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이영준 교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프랑크푸르트북페어 한국 주빈국 당시 〈Fast Forward〉전도 사실 위와 같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영준 교수는 당시 한국 현대미술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보여 주는 형식이 아니라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국가'를 내세운 전시의 경우 유의할 만한 일종의 전략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꼭 이 전시만이 아니더라도 큐레이터로서 한국관 전시나 〈Who is Alice?〉전 같이 큰 행사성 전시를 기획할 때 너무나도 뚜렷한 국가성을 우회하는 전략이 있을까요?

이영준 / 우회 전략까지는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미술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저의 판단착오였던 듯합니다. 다른 사람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게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개개인이 맺는 국가와의 관계는 은유이거나 환유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국가를 상징하는 게 아니지만 대부분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생각하죠. 1980년대에는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 남자는 남산에 있는 방공센터에서, 여자는 예지원이라고 예절 교육과 흡사한 것을 익혔어요. 어떻게 하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가, 외국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정보도 수집해 오라는 등의 이상한 교육을 받았는데, 1980년대만 해도 이러한 식으로 개인과 국가를 여러 측면에서 동일시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개인이 국가를 '상징한다' 또는 '표상한다(represent)'고 생각했죠. 제가 보기에 현재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환유'입니다. 즉, 개인은 한국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보니 한국인이 된 것이지 한국인의 어떤 특성도 특정 개인이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유'는 '샴페인'과 같은 것입니다. 보통 '샴페인을 마신다.'고 하는데 샴페인은 프랑스의 마을 이름이지 샴페인 자체가 그러한 종료의 음료를 표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샴페인이라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이 우리에게 '샴페인'인 셈이죠. 정확히 말하려면 '샴페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스파클링 와인을 즐겨마신다.'고 해야 하지만, '샴페인을 마신다.'라고 줄여 말하다보니 '샴페인'이 스파클링 와인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이를 '환유'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개인은 환유적입니다. 개인이 국가를 표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일반 개인도 그러한데 특히 예술가는 개인보다도 훨씬 더 개인적이며 철저히(radically) 개인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예술가와도 그룹화할 수 없고 쉽게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평론가와 미술사가가 작가 군을 만들어 동일화하지만 모두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작가 개인을 집단화(grouping)해서 이들이 한국을 대표한다고 전시에 내보내는데, 사실 개별 작가의 작업은 묘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어긋나 있는 지점을 보는 것도 재미있죠. 여기서 문제는, 그 어긋나 있는 지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어긋낸 것인지, 아니면 진정 국가를 대표하고자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긋나 버린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박재용 큐레이터께서 소개해 주신 〈이데올로기적 가이드〉가 흥미로운 점은, 국가라는 개념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인데 우리는 '국가주의'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할리우드 영화는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국가주의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게다가 흡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국가주의에 빠져들게 되죠.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주의에 동원되기보다는 국가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 전시에 참여하는 이상 작가 개인이 자신은 국가주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를 대표하는 관'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간 순간 자신은 국가를 표상을 하지 않으려 해도 자동적으로 국가를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관에서의 전시는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정교한 예술적 전략으로 거리를 두거나 성찰하는 등의 제스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경윤 / 지금까지 외국에서 한국 관련 전시를 개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승덕 커미셔너와 김수자 작가는 이번 한국관 전시 이전에도 베니스와 인연이 있었는데요, 김승덕 커미셔너께서는 1993년과 1995년 베니스에서 전시하셨고, 김수자 작가도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에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두 분 다 베니스비엔날레를 여러 차례 왕래하셨고 또 해외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올해 한국관 전시 같은 경우에는 베니스비엔날레의 운영 구조, 분위기, 생리 등을 미리 파악하고 계셔서 그동안과는 다른 전략을 꾀하지 않으실지 기대했습니다.

김승덕 / 우선 이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인데요, 저는 '국가'에 관한 그 지점이 베니스비엔날레를 굉장히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요새가 어느 시대인데 나라별로 나눠서 국가관 전시하고 있느냐는 말도 많지만, 이미

지나가서 재미없는 그 지점을 작가들이 하나의 재미있는 이슈로 포착해서 국가관을 뛰어 넘거나 혹은 국가관에 완전히 결탁되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창출해 내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껏 김수자 작가와 함께 작업하면서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2007년 오스트리아 쿤스트할레빈(Kunsthalle Wien)에서 〈Elastic Taboos: Within the Korean World of Contemporary Art〉라는 전시를 기획했는데, 사실 이전까지 저는 큐레이터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딱지가 붙은 전시를 기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쿤스트할레빈 디렉터가 제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승낙했어요. 저도 많은 경우에 이영준 교수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입장이거든요. 당시 김수자 작가를 전시에 초대했는데, 자신은 '한국'이라는 라벨(label)이 붙은 전시는 하지 않겠다고 유일하게 참여를 거절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당시 제가 김수자 작가께 만약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로 초대한다면 그때도 거절하시겠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작가께서 그거는 다른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응하겠다거나 거절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묘한 뉘앙스를 남기신거죠. 지금 제가 김수자 작가 한 분에 관한 이슈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에요. 작가라는 사람은 그 정의상 국가도 뛰어넘고 어떤 경계를 계속해서 깨부수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틀(structure) 속에 집어넣으면 자꾸 나와서 바깥을 새로운 눈으로 보겠다는 것이 작가의 작업인데, 자신에게 마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처럼 '한국'이라는 라벨을 붙이면 거절하는 것이 작가로서 당연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또한 큐레이터 입장에서 보자면, 저는 동양인이자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꽤 살았는데 아무리 타지에 오래 있어도 한국인이라는 라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미술이나 한국 작가와 연관된 전시에는 꼭 초청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랜 세월 그 라벨을 떼어 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라벨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 전시가 정말 재밌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국수주의, 내셔널리즘(nationalism) 등을 넘어서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제 경력 중에서 쿤스트할레빈 전시와 이번 한국관 전시가 '한국'을 내건 전시 중 유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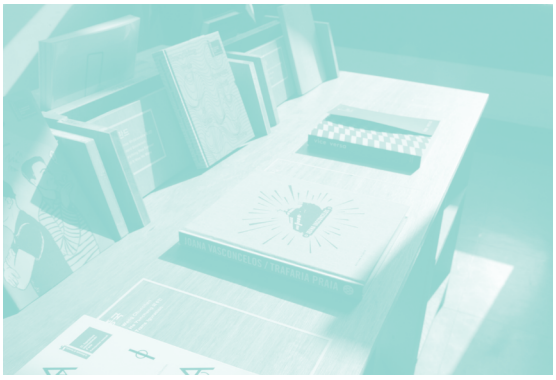




김현진 / 지금 베니스비엔날레의 쟁점으로 국가관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서 또 하나 문제시되는 점은 국가관이 계속해서 작가 프로모션 위주의 모델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레이팅과 작가 중심주의가 계속 충돌하는 지점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이로 인해 요즘 큐레이터들이 큐레이팅에 중점을 두려고 하지만 작가중심 전시 모델과 연거푸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국제적인 스타 작가를 육성하는 데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큐레이팅의 영역을 펼칠 수 있는 무한한 영역에 대한 투자 혹은 이에 대한 중요성 같은 사안들을 부차적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전시 모델을 상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한국관 전시 모델이 계속 작가 한 명 또는 소수의 작가를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굉장히 고전적인 전시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테두리를 갖게 됩니다. 이번 베니스비엔날레 콜래터럴 이벤트 중 하나로 대만 타이베이미술관(Taipei Fine Arts Museum)이 주관한 〈이것은 대만관이 아니다(This is not a Taiwan Pavilion)〉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이 전시에 여러 국적의 작가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국가관에서 대만관의 국가주의적 모델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결국 큐레이터 선임에 관계되었던 주요 미술관 관료가 해직을 당하게 됩니다. 즉, 초국가적으로 접근하는 국제주의 모델 등이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국가주의적인 정책과 충돌을 일으킨 결과로 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점입니다. 근래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관이라는 새로운 메가급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아시아에서 여러 메가급 미술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 근현대미술관 엠플러스(M+)나 싱가포르국립미술관(National Art Gallery, Singapore)이 그 사례죠. 아마도 국립 현대미술관이 베니스 등에 전시를 만들어 보다 국제화하려는 전략은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비교해보다면 엠플러스가 주관한 홍콩 파빌리온의 경우는 국립현대와 같이 자국 작가를 소개하고는 있지만

맥락이나 전시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기획이었습니다. 리 킷(Lee Kit)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리 킷이 중국 본토에 대응하는 홍콩을 상징하는 작가로서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이 전시 바탕에 엠플러스라는 메가급 미술관이 있지만, 이 미술관은 이미 로컬이 아닌 국제주의를 상정하고 출발하는 기관이거든요. 리 킷은 홍콩 작가이지만 사실 그 안의 영역에 머물러있지 않고 훨씬 더 확장된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었습니다. 이에 견주어 보자면, '한국 전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작가 한 명을 다루더라도 한국 아트씬이 어떻게 글로벌한 맥락에서 소개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지점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는 한국 작가들을 열심히 불러 모았지만 사실 어떤 차원의 더 확장된 맥락도 다지 못했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국가관을 큐레이팅 중심적 장소가 되도록 지향했던 모델은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탈리아관 자체를 여러 국제전으로 변환한다거나, 네덜란드관도 멕시코 작가 등 다양한 국적의 작가를 소개해 암스테르담씬을 드러내는 방식을 선보이기도 했죠. 최근에는 단순히 국적을 초월하는 지평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가령 루마니아관의 경우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에 있었던 전시들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라는 굉장히 인식론적인 명제를 제시하면서 '몸'이 기억하는 방식으로서 퍼포먼스를 통한 전시를 보여줬어요. 굉장히 신선한 전시 제안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관과 사이프러스관의 경우 우리가 베니스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체육관을 이용해 굉장히 좋은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또 OCA(Office for Contemporary Art Norway)는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 전시에서 〈The State of Thing〉전을 선보였는데, 작품을 전시하지 않고 심포지엄과 렉처 형식으로만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모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베니스비엔날레는 아트마켓으로 가는 길목이 되는 비엔날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엔날레잖아요. 여러 가지 비엔날레가 있지만 베니스비엔날레는 담론 지향적인 비엔날레와는 좀 다르게, 가장 오래됐지만 동시에 아트마켓으로 직통하는 길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엔날레이죠. 이러한 점을 비판적으로 고려한다면, 단순히 국적 문제가 아니라 큐레이팅의 영역을 통해 좀 더 비엔날레 본연의 장으로 어떻게 다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점들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에 동의할 수 있다면 국적주의가 수반하는 문제 등은 당연히 재고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호경윤 / 덧붙이면 올해의 경우에 프랑스관과 독일관이 서로 공간을 맞바꿔서 전시를 열기도 했고, 또 20년 전에 백남준 작가는 독일관 전시에 참여하셨고, 같은 해에 최재은 작가가 일본관 전시에서 참여했습니다. 한국관에서 살펴보면 커미셔너 중에서 주은지 큐레이터가 재미교포이고, 작가 중에서는 주은지 큐레이터의 친오빠이기도 한 마이클 주가 있죠. 하지만 현재 한국관 전시는 대체로 외형적으로 아시아인, 한국인인 사람들이 맡고 있는 셈이죠. 한국관 전시 모델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시다시피 공간이 텅 비어있잖아요. 제가 한국 관객을 위주로 만나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관객 다수가 그동안 한국관 전시의 모습과 많이 달라 다소 난감해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 전시 방식도 또 하나의 새로운 한국관 전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미셔너 선정 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김승덕 / 김현진 큐레이터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국관'을 넘어서고 '한국'이라는 국가성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큐레이팅을 부차적으로 여기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한국이라는 이슈를 국제적인 맥락과 연결시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 등 중요한 사안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들이 현실화되려면 커미셔너를 뽑는 위원들부터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지점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커미셔너를 뽑아야 커미셔너도 그와 같이 일할 가능성을 보잖아요. 정해진 위원들이 '한국'을 대표할 커미셔너를 선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큐레이터들의 진정한 큐레이터십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해 주신 오픈콜이 더 바람직한 커미셔너 선정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경윤 / 오픈콜을 한다면 외국인도 지원 가능해야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김해주 큐레이터께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번 팔레드도쿄 〈누벨바그〉전 중 하나로 기획하셨던 전시 제목도 〈Memorial Park〉인데, 이 전시에 차학경, 김소라, 남화연 작가를 초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시의 경우 '한국' 큐레이터 혹은 '한국' 작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나요?

김해주 / 〈누벨바그〉전은 기획 공모전이로 각 큐레이터의 프로포절을 보고 선출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참여 작가들이 모두 한국인이거나 한국계이었지만, 그 작가들을 선정한 계기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와 가장 부합하는 작업을 보여 주고 있고, 또 평소에 모국어로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가들이기 때문이었지, '한국 작가'이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독립큐레이터로서 전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대효과'와 같은 란에 '한국 작가를 해외에 알린다.'라고 특별히 염두에 담아 두지 않았던 내용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지원금을 잘 받아서 전시를 했고요.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국가성에 관한 의도는 전혀 없던 전시였습니다. 〈Memorial Park〉는 개인적인 관심에서 출발을 한 전시였습니다. 전시가 기억의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면 큐레이팅은 그 기억을 복원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단순히 시각적 결과물로만 복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각적 결과물로 기억을 복원할 수 없는 데도 단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전시가 점차 하나의 시각적 스펙터클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 자체를 하나의 행위로 삼아 공간을 채우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마침 〈Memorial Park〉라는 전시 제목이 먼저 떠올랐는데, 어떤 사건 혹은 전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기념하는 공간으로서 만들어지는 곳이지만 사실 그곳에 사건의 흔적이 있다기보다는 산책의 공간으로 비워져 있잖아요. '비워놓고 생각한다.'는 이 같은 공간의 특징을 모티프로 삼아서 작업과 스코어를 아주 사소한 기념물(monument)로 삼고, 이을 통해 기억을 만들어가는 행위로 공간을 연장해보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는 사실 그 이전에 봤던 김소라 작가나 남화연 작가 작업에서 오히려 제가 영감을 받고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이 작가들을 초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시를 제안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아이디어와 다른 기획안을 제출했어요. 팔레드도쿄라는 공간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난 2월에 공간을 방문했을 때는 아래층으로 확장되어 기존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제가 전시를 꾸려 나가야하는 공간에 21개의 다른 전시가 함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공간을 방문하고 난 후 기획안을 바꾸고 싶다는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팔레드도쿄 측에서도 양해해 주셔서 새로운 기획안으로 전시를 진행했어요.

김승덕 / 저도 20명이 넘는 큐레이터가 다 함께 전시하는 〈누벨바그〉전을 보았어요. 헌데 굉장히 아쉬운 점은 콘셉트도 좋은 프로젝트였는데 오픈콜을 한 후에 20여 명의 큐레이터가 기획한 전시를 모두 펼쳐 놓은 상황이라면 거의 보여 지지 않죠. 저는 이점이 너무 아쉬웠어요.

김해주 / 저는 오히려 '보여 지지 않는 것'을 기획 태도로 삼아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김승덕 / 그런데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베니스비엔날레도 마찬가지에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를 비롯한 여러 전시가 그 주변 맥락을 먼저 잘 파악하고 나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그러한 전시 주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잃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경우죠.

김해주 / 아, 사실 당시 팔레드도쿄의 전시 환경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기획을 바꿨어요. 이전 기획은 조금 더 서사적으로 연계돼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기획이었는데, 공간을 방문하고 나서 기획을 바꿨고, 그 결과물이 이 전시에요. 그래서 작가 수도 많이 줄이고 공간을 비웠습니다. 공간을 비워도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서 실행한 전시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기획전이 동시에 펼쳐지는데 관객이 이해할 수 있을까, 서로 암묵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이 많은 제안들을 과연 소화해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습니다.

최빛나 / 그런데 큐레이팅에 중점을 두는 방향과 관련해서 〈누벨바그〉전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큐레이팅 중심 대 작가 중심이라는 이분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 '이벤트'죠. 〈누벨바그〉전은 작가가 아니라 큐레이터를 프로모션하기 위한 전시였어요. 일관된 큐레이팅이 불가능한 공간을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취했던 주먹구구식 해결책이기도 했죠. 여기서 제가 짚어내고자 하는 것은, 저는 물론 김해주 큐레이터, 김승덕 커미셔너 모두 결국은 이러한 시스템의 일부이기에 국가적 체제나 자본주의적 체제 등을 완전히 거부해야한다는 점이 아니라,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파악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김해주 큐레이터의 '비운다'는 전략이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된 프랑스관과 독일관의 전시관 교체, 김현진 큐레이터께서도 평가하신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 네덜란드관 전시 〈We are the World〉에 관해 부언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굉장히 비평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데올로기적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프랑스관 엔트리(entry)에서 첨예한 비평적 관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프랑스관이 베를린에 거주하는 알바니아 출신 작가 앙리 살라(Anri Sala)를 선정한 점이 보기와는 달리 얼마나 비(非급)진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프랑스 제국주의적인지에 관해 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라는 제국이 '톨레랑스(tol?rance)' '오토노미(autonomie)'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식민주의적 체계를 정당화했는데, 이 글은 이번 프랑스관

작가 선정 과정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덜란드관의 상황도 살펴볼게요. 제가 2003년에 네덜란드로 갔는데 2002년과 2003년부터 네덜란드의 비극이 시작됐어요. 네덜란드는 보통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때 정치인 한 명과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공격했던 영화감독 한 명이 암살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We are the World〉라는 전시를 마련한 큐레이팅은 시대착오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가 생산해 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잡한 맥락과 층위를 가지고 있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김현진 / 제 논지의 '맥락(context)'을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국가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다른 국가를 포섭하고 국가관 위치를 바꾸는 등의 초국가적인 큐레토리얼 모델에 이미 너무 많은 예가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맥락을 논할 수 있게끔 큐레이팅 중심으로 한국관 전시를 운영하려면, 아트마켓으로 가는 길목인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어떻게 작가중심 전시 모델로 더 도전할 것이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큐레토리얼한 여러 가지 비판적 담론 내지 담론 지향성이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곳이 그 방향성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국가주의적인 모델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호경윤 /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한 가지 더 꼬이는 것은 '비엔날레'라는 장치입니다. '비엔날레' 그 자체는 또 다른 레이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 네덜란드 이야기를 이번에는 비엔날레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덜란드 사회 자체보다 비엔날레라는 장치 안에서는 또 어떤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최빛나 / 우선 개인적으로 오픈콜도 찬성하구요, 이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유형의 국가관 전시도 대 찬성이에요. 국가관은 국가를 한 매체, 틀(framework), 주제로 삼아 아주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덜란드관의 오픈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관이 처음으로 오픈콜을 시행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김승덕 /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최빛나 / 위원회 구성의 문제죠.

김승덕 / 바로 그거에요.

최빛나 / 그리고 우리는 순수성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픈콜을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적인 게 아니고, 또 큐레이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큐레이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김승덕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빛나 / 절차를 복잡하게, 아니 '복합화'해야죠. 저는 '컴포지션(composition)'이라는 개념을 늘 염두에 두고 작업하려 하는데요, 차이 혹은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인 개체로 구성하는 원리죠. 그런데 네덜란드도 정말 신기하게 한국 사회와 유사해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1989년 이후로 전 세계가 동일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상황을 보면 확연해져요. 네덜란드 정부의 변화가 한국의 경우와 정말 비슷하죠. 2008년 미국 발(發)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극우정부가 집권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부에서 원하는 예술은 프로모션, 위안, 안정의 예술 혹은 혁신(innovation)의 예술입니다. 즉 예술이 경제와 사회 안정에 가시적으로 이바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문화재단인 몬드리안재단의 디렉터와 조직 구조도 작년부터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 재단에서 조성된 위원회도 오픈콜 당선자를 선정할 때부터 이미 내부적인 선정 기준이 있었던 거죠. 한국문화예술위원의 구성도 정권에 따라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차이와 갈등을 내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 봅니다. 거칠게나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좌파와 우파가 적절하게 섞여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끼리 신나게 싸우고 나면 어떤 결과가 산출되고, 그 결과가 담론에 이바지하면 또 다른 가능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한국관 커미셔너가 된다면?

호경윤 /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관의 큐레이팅을 어떻게 보시나요?

최빛나 / 한국관 전시 큐레이팅에서 중요한 점 3가지 키워드를 개인적으로 정해봤어요. 연대, 비판, 경험. 제가 김승덕 커미셔너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험'입니다. 예술적 경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관객을 작가의 작품 세계로 끌어올 것인가에 너무나 탁월하셔서 늘 배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연대'와 '비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따리'는 굉장히 한국적인 주제인데, 가령 아주 급진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가령 독일관과 프랑스관의 협력관계 그리고 사이프러스관과 리투아니아관의 협력 관계처럼 국가라는 틀을 건드리면서 끊임없이 특정 국가를 넘어서서 다른 공동체를 형성해내는 방식이 이번 한국관 전시에 부족했다고 봅니다.

김승덕 / 사실 말씀하신 이슈들을 초반에 연구했는데 정말 시간이 모자라서 더 이상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커미셔너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커미셔너 선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거예요. 제발 시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호경윤 / 다음 번 커미셔너 선정은 좀 더 빨라진다고 하니 점차 나아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진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원회나 심사위원조차도 저희가 전문가로서 항의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아트씬이나 현장을 같이 매핑(mapping)하거나 읽을 수 있는지,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위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관점을 지닌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승덕 / 저도 그 점에 참 공감해요. 한국관에서 전시하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미술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와 해외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또 그럴 수 있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런 분을 많이 초대해서 이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봐요. 이것이 어렵다면 오픈콜이라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오픈콜도 누가 심사를 하는지 모르니까 같은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호경윤 / 이영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준 / 제 생각에는 심사위원도 오픈콜로 정하는 거예요. 사법기관 배심원제처럼이요. 이 방식이 가장 공명정대하지 않을까요? 농담 같기도 하지만 농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전문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지만 당연히 '바이어스(bias)'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협소하기 때문에 능력의 바이어스, 취향의 바이어스, 이데올로기적인 바이어스 등을 갖고 있어요. 이상적으로 보자면 바이어스가 없는 사람이 심사위원을 맡아야 하니까 최대한 바이어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배심원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위원회 선정도 바이어스가 없는 배심원제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호경윤 / 일전에 사석에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를 맡는다면 어떤 식으로 기획하시겠다고 제안하시기도 했잖아요.

이영준 / 3가지 정도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저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인데 꼭 제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나 하셔도 돼요. 다만 제가 하는 것만큼 못 하시겠죠. 저만의 독특한 감각이 있으니까. 아까 국가주의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국가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전시를 여는 겁니다. 제가 베니스비엔날레를 딱 한 번 가봤는데, 사실 베니스라는 도시에 상당히 실망했어요. 완전한 관광도시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재미있는 장소가 해군박물관(Museo Storico Navale)입니다. 이 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배 모형을 보고 배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화물선을 타고 책도 출간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최고 조선강국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조선공업에서는 일본보다 생산성이 3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회사와 접촉한 후, 해군박물관의 오랜 역사를 가진 배 모형과 우리나라 조선회사가 생산한 배 모형을 같이 전시하면서,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라고 촌스러울 정도로 밀어 붙이는 거죠. "너희는 꼼짝 마라!"

김승덕 / 그 제안이 왜 촌스러워요?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영준 /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128포인트로 아주 크게 쓸 거거든요.

최빛나 / 이영준 교수의 이러한 '오버 아이덴티피케이션(over identification)' 전략은 김홍석 작가의 〈Record-A4p3〉라는 작품을 연상시키네요. 제5공화국 때 시민들에게 거주 지역에 따라 팔에 다른 색깔을 칠하게 하고, 반정부 세력은 그냥 빨강을 발바닥에 칠했다는 …. 작동하는 이데올로기, 그 작동 방식을 극명화하는 거죠.

호경윤 / 최빛나 디렉터께서는 베니스 현지에서도 얼핏 농담처럼 한국관에 대한 아이디어로 자르디니의 노숙자와의 작업 가능성을 말씀하신 적 있죠.

김승덕 / 그런데 실제로 한국관에 노숙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관 밑에 노숙자가 너무 많아서 유지 및 관리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요.

최빛나 / 2009년 한국관 전시에 참여했던 양혜규 작가의 작품 중에 하나가 자르디니의 노숙자의 삶을 조명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탓인지 한국관뿐만 아니라 리암 길릭(Liam Gillick)의 독일관이나 스티브 맥퀸(Steve McQueen)의 영국관, 로만 온닥(Roman Ondak)의 슬로바키아관 등이 '벌거벗음'을 공통적인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흥미롭게 봤어요. 본래 화장실 자리였다고 하는 한국관의 지리적/건축적 특성을 '벌거벗은 삶(bare life)'를 숙고하는 데 활용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호경윤 / 이제 어느 정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혹시 객석에 계신 분 중 말씀하실 분계시나요?

이용우 / 토론 잘 들었습니다. 한국관 운영문제에 관해서는 커미셔너 선정을 위한 공모제가 옳은 것도 아니고 임명제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공모전을 택하면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해서 개방된 선택을 위한 방법에서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공모전에 절대로 응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경륜이 있고 업적이 있는 큐레이터들은 공모에 기피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 좋은 분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의 맹점도 잘 파악해서 균형을 맞춰 조화롭게 운영해야 합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구 문예진흥원, 현 문화예술위원회가 한국관 전시를 주관하고 있는데, 운영체계가 좋은 방향인진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짐작하기 어렵죠. 이런 과정 속에서 광주비엔날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 MOU를 체결했다는 점을 앞으로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베니스비엔날레 관해서 이야기 하듯이 베니스비엔날레는 정말 문젯거리입니다. 문제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어필하기 때문에 덩달아 그곳이 중요해졌고 많은 사람이 모이거든요. 금년도 베니스비엔날레재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프레스 오프닝 때 온 사람이 46,000명이라고 해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베니스 시 정부 통계에 따르면 베니스비엔날레 개최 기간 동안 베니스 전체 GDP가 2.8%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베니스비엔날레는 문화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30여 회 베니스를 방문했는데 실제로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좀 어두워요. 인구는 줄고 있고요. 현재 베니스 시에 공식 등록된 거주 인구가 8만여 명으로 들었습니다. 많이 빠져나갔죠. 도시공동화가 심각하고 베니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베니스비엔날레 재단이 6개 행사를 운영합니다. 베니스비엔날레, 건축비엔날레, 영화제, 연극제, 재즈 페스티벌 등이 있어요. 이렇게 전부 각 분야별로 2년 동안 6개 행사가 전부 진행됩니다. 따라서 베니스비엔날레재단은 베니스의 문화경제에 이바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일뿐더러 '베니스'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를 하나의 소재로 직접 활용하고 있거든요. 베니스비엔날레처럼 '정체성 위기' 혹은 글로벌/로컬 담론이 활발하게 충돌하는 곳도 드물어요. 이렇게 활발한 충돌의 지점이 바로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초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토론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글로벌리즘에 대한 담론의 근거를 사실 처음부터 베니스비엔날레가 처음부터 제공한 것이고, 그 모델을 1951년 상파울로 비엔날레가 수입합니다. 이러한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작한 것은 역시 1955년 카셀도쿠멘타입니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독일관과 프랑스관이 전시장을 바꾼 점은 물론 겉보기에는 정치적으로 화려해요. 독일과 프랑스가 2차 대전 종전 후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교류한 지 50년 됐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결국 전시관을 바꿔 버린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국가관 형식, 즉 국가단위의 참여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항거가 있는 것이죠. 미술관을 예로 들자면, 미술관 자체를 운영하는데 글로벌/로컬 담론이 충돌합니까? 비엔날레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2007년 로버트 스토(Robert Storr)가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았을 때 '아프리카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맡고 있었던, 그리고 내년 2015년 총감독을 맡은 오쿠이 엔위저가 여기에 논쟁을 제기하였습니다. 아프리카는 국가가 아니고 대륙이다, 왜 대륙을 국가관에 집어넣느냐는 등 "정치적으로 맞지 않다(politically incorrect)"고 표현하면서 13회의 시리즈가 아트 포럼 등의 잡지, 신문에 나왔었어요. 베니스비엔날레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글로벌/로컬 담론 충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생생하기도 하죠. 이처럼 정체성의 위기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비엔날레고, 이 비엔날레의 생산/소비 과정을 논의하자면 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경윤 / 이용우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토대로, 2014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전시를 기획하실 조민석 커미셔너께 2가지 사항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 추천제로 뽑히셨는데 그 절차 및 과정은 어떠한지, 오픈콜과 유사한 방식인지 등에 관해 자세히 전해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 다소 섣부르겠지만 남북한 합동전시에 관한 이슈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민석 /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은 이번에 처음으로 오픈콜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12년 건축비엔날레 한국관 전시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에 관해서는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쇄신해야겠다는

언론, 건축계의 바람이 컸습니다. 인터넷상에 오픈콜로 커미셔너 신청을 열어 놓았는데, 유래가 없던 경우여서 많은 사람이 응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적은 수가 응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4명이 모여 한 달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디어의 경합이었죠. 사실 저는 이 응모에 크게 관심 갖지는 않았는데, 다른 분들이 불러주셔서 함께 준비해 응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콤비네이션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9번째 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인데 1996년 첫 전시 이후부터 지금가지 100% 건축가들이 커미셔너와 큐레이터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덜 전문화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이를 테면 2012년 이토 토요(Ito Toyo) 건축가께서 일본관을 맡았고, NAI(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에서도 올해까지 네덜란드 큐레이터를 선정하고 작가를 선정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경우가 섞여 있지만 일본이나 독일을 비롯해서 많은 경우가 위와 같습니다. 저는 미술계에 안팎으로 훨씬 더 좋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미술계 분들과 콤비네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건축전 한국관 전시의 남북한 이슈도 사실 순전히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2014년 건축비엔날레의 이례적인 측면에서 비롯했습니다. 2014년 총감독이 렘 콜하스(Rem Koolhaas) 건축가세요. 김승덕 커미셔너께서 전시 기획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비엔날레가 내년 2014년에 시작하면 지금 2013년 말에는 아직 총감독 발표도 안 났어요. 그리고 건축비엔날레는 항상 8월 말에 오픈했습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가 총감독을 맡은 2012년 건축전 당시에는 당해 1월에야 발표가 나서 결국 6개월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전시가 급조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렘 콜하스 총감독께서는 워낙 유난하셔서 준비기간 1년으로는 전시에 참여하지 않겠다, 최소한 2년 전에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건축전도 미술전처럼 5달 동안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전 전시도 2014년 6월에 시작해요. 또한 렘 콜하스 건축가께서 총감독으로 선전됐다는 것을 이미 2012년에 루머로 다 알고 있었어요. 공식발표를 2013년 1월에 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4월에 한국관 커미셔너로 선정됐으니 결과적으로 14개월 동안 준비하고 있는 셈이에요. 물론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진 점이 전시 질적인 면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번 미술전에 88개국이 참가했다고 하셨죠? 건축전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국가관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상 고객 편의 차원에서 렘 콜하스 감독이 처음으로 권한을 확장했습니다. 바로 국가관 주제를 통일하겠다고 발표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어짜피 국가를 전제로 전시하기 때문에 각자 모더니티(modernity)의 흡수 과정을 조망하면서 100년 동안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보자고 하셨어요. 이러한 결정이 오래 전에 발표 나서 저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100년 전부터 전시 기획을 시작하려고 돌아보니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이것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껏 어떤 커미셔너보다도 해외 작가 참여가 많은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에요. 대륙으로 따지자면 남아메리카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저는 비평적인 거리를 두면서 국가관을 바라본 입장입니다.

호경윤 / 네, 큰 기대를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심포지엄이 처음에는 귀국 보고의 성격으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성과를 발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 미래 지향적인 큐레이터 토크 자리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런 목적에서 오히려 김승덕 커미셔너께 마지막으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박재용 /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한국관 전시에 한국 출신 이외의 작가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불문율이 있나요?

김승덕 / 제가 커미셔너로 선정되자마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프랑스 현지로 전화를 했어요. “앙리 살라 같은 외국 작가를 선정하시진 않겠죠?”하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더 좋은 한국관을 위해서

박재용 / 정부나 관계부처의 관점처럼 현재 베니스비엔날레를 비롯해서 한국 미술이 외부로 뻗어나가는 등 한국이 점차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 역시 한국으로 들어와 작업하는 경우도 많지만 베니스비엔날레나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 등에서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경우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추영 /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대해 여러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판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논리적인 관점에서 허점도 많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과 관련해서 논의할 점이 무수히 많은 것처럼 미술관에서 주관하는 여러 활동에도 복잡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표피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비판하면 저희는 방어할 수 있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물론 많은 비판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술관에 있는 수 십 명의 큐레이터가 정말 많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술관 운영에서도 구조적으로, 내부적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미션이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나름 긍정적인 측면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술관의 활동에 대해서 애정과 비판을 함께 보여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주 / 제도나 체제가 주를 이루는 현재 상황에서 독립큐레이터의 작업 방식 혹은 비엔날레 같은 행사가 과연 어떻게 처음에 견지했던 전복적인 아이디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에요. 앞서 최빛나 큐레이터의 언급처럼 제도의 일보로서 어느 정도의 타협을 스스로 용인해야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전복적인 태도를 되새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회의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한국관에 관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 기대하고 있어요. 제 경우 사실 역사에 대해 무지하다는 부끄러움이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일본에서 〈Residency for East Asia Dialogue〉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왔어요.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큐레이터 및 작가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우리의 근대화 과정과 복잡한 역사, 동아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역사를 둘러싼 미묘한 심리 등에 관해 굉장히 많이 느끼고 또 그 모순들을 엿보았습니다. 한국관 역시 국가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한국관이 동아시아까지 확장해서 전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프랑스관이 독일관과 이웃해 있는 것처럼 한국관과 일본관도 인접해 있고, 그 사이에는 통로가 있지요. 이곳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한국관은 투명한 건축물이니까, 마치 배처럼, 아이디어가 관통하는 통로처럼 사용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현진 /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제가 늘 한 가지 느끼는 아쉬운 점은 매번 전시가 열릴 때마다 비엔날레를 전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평의 지평이 굉장히 약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베니스비엔날레 이후에 네이버 캐스트에 올리기로 한 글이 있었는데요, 너무 어렵다 해서 철회됐지만, 마시밀리아노 지오니의 전시를 굉장히 비평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 글이었습니다. 전시에 대해 비평적 지점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를 통해서만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큐레토리얼한 쟁점을 논할 수 있는 지평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여러 매체에서는 매번 작가가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프로모션 됐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관객의 주목을 받았느냐, 누가 상을 받았느냐 등에 주목을 하는데, 현장이 변화하는 지점을 짚어주는 언론의 접근 방식도 절실합니다. 이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사 위원부터 순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호경윤 / 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몸담고 있는 《아트인컬처》에서 발행하는 영문 격월간지 《아트인아시아(art in ASIA)》가 있습니다. 《아트인아시아》에서 이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오픈에 맞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특별호를 제작했어요. 영어로 발행되는 매체여서 한국관 혹은 한국 미술 등에 대해 이해를 좀 더 넓히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저변이 넓혀져야 한다는 점은 한국 안이나 밖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영준 / 저는 이번 한국관에 설치된 무반향실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요, 무반향실의 첫 번째 조건이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벽이 굉장히 두꺼워야 하는데 별도로 벽을 제작하셨나요?

김승덕 / 예, 무반향실 제작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었어요. 엄청난 예산을 그 조그마한 방에 썼는데, 사실 그 상태보다 더욱 상위 단계의 하이테크놀로지를 도입하면 정말 자기 숨소리까지 들린대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 숨소리는 안 들렸어요.

이영준 / 왜냐하면 무반향실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풀(full)'이 있고 '세미(semi)'가 있는데, '풀'은 바닥까지 완전히 올록볼록한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그런데 바닥에는 그 처리를 하지 않으셔서 숨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저도 지금 검색해 보고 알았네요.

김승덕 / 그 부분은 정말 실수였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까지 했으면 예산이 모자랐을 거에요.

이영준 / 예산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관객이 들어갈 수가 없죠. 바닥을 완전히 덮어야 하거든요.

최빛나 / 저는 이영준 교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아의 몰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타자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 전시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호경윤 / 지금까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오늘처럼 전시를 마치고 관객들과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놀랍게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베니스비엔날레에 대한 고민을 운영위원분들끼리 나누거나 비공개로 내부적으로 진행하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의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를 녹취해서 백서에 게재하려 합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하나하나 쌓이면 다음번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전시 기획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혹시 관객 분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관객1 / 오늘 이 심포지엄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심포지엄 제목을 '한국관의 오늘과 내일'이라고 결정하셨지만 지금까지 한국관의 '오늘'만 드러났고 '내일'에 관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큐레이터 토크를 통해서 듣고자 했던 것은 한국관에서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모색할 것인가에 관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떠했고, 독일관과 프랑스관이 색다른 방법을 시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고, 어떤 제약이 있었다는 등에서 끝났을 뿐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의논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나왔다면 이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도적으로 국가주의를 내세워보자는 정도인 것 같아요. 특히 3번째 의제인 '한국의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에 관해서 큐레이터십을 각자 약간씩 제시해 주시긴 하셨지만 패널 각자가 바라본 시각과 태도만 얄팍하게 드러나고 끝난 것 같아요. 이러한 패널분들이 모인 자리라면 '내가 만약에 커미셔너가 되면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베니스비엔날레인가'가 아니라 '왜 한국관인가'라는 점이 더 중점으로 다뤄져야하는 것 같아요. 한국관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한 포인트를 찍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관 전시는 외국 사람들이 왜 한국관으로 올 수밖에 없는가를 자동적으로 내포하는 전시 기획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에만 집중되다 보니 제 경우에는 왜 한국관을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 논의 되지 않아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 코멘트 자체를 '한국관은 전략적으로 이런 방향을 통해 긍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좀 더 친절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용 / 여러 부분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지적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관의 오늘만 제시하고 내일은 의논하지 않았다,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하고 장차 모색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엔날레는 하나의 전시라기보다 하나의 거대한 제도, 커다란 기계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었던 어떤 가능성 이상을 언급한다면 앞에 관중을 모아놓고 확실히 실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상이나 공상을 펼쳐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이번 전시에 어떤 지점들이 어떠했다는 식의 논의를 진행했고, 다음 커미셔너가 선정됐을 때 이 논의를 바탕으로 베니스비엔날레라는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기획을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포지엄 제목에서 '오늘과 내일'이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그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이라고 제시하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덕 / 왜 저희가 '내일' 이야기를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시간이 모자랐다'는 점은 앞으로 커미셔너를 더 빨리 선출해서 현실적으로 커미셔너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자는 제안, 그리고 '커미셔너 선정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안, '선정 작가는 진정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될 수 있냐?'를 논의하면서 그 점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것도 또 하나의 제안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모두 '내일'을 위한 것이지 '오늘'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빛나 / 조민석 커미셔너께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4명의 후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프로포절을 준비하실 때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나요?

조민석 / 네, 있었습니다. 다만 초대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대 안 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최빛나 / 건축비엔날레 한국관이 미술전의 경우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네요. 방금 말씀해 주신 점도 구체적인 제안이죠. 일전에 조민석 커미셔너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미술전 한국관에 있어서는 또 다른 구체적인 안건인 셈이죠.

김현진 / 반성적 지점에서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제안은 그 안에 이미 복합적으로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관객2 / 저도 관객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4시간 동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을 이야기함으로써 '내일'을 짚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곳은 프레젠테이션을 공개하는 경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관 진행 상황을 돌아봄으로써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충분한 논의의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경윤 / 그럼 이번 심포지엄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이브인데 좋은 성탄절 그리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패널 소개

김승덕 / 2013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프랑스 디종 르 콩소르시움(Le Consortium) 현대미술센터 국제 프로젝트 디렉터, 팔레드도쿄 프로그래밍 외부 전문위원. 카타르 도하 도시발전 공공예술 전략사업 프로젝트 디렉터.

김해주 / 독립큐레이터. 팔레드 도쿄 〈누벨바그〉전(2013) 전시 참가. 백남준아트센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제4회 부산비엔날레 코디네이터.

김현진 / 독립큐레이터, 2005이스탄불비엔날레 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 2008광주비엔날레 공동큐레이터, 네덜란드 반아베미술관 초청연구원 역임.

워크온워크 / 박재용&장혜진이 운영. 기획, 글쓰기, 번역 등을 진행. 〈흩어지는 전술〉전(201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베니스비엔날레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가이드〉 참여.

이영준 / 계원예대 교수. 프랑크푸르트북페어 한국 주빈국 전시 〈Fast Foward〉전(2005), 서울사진축제(2010) 등 기획.

이용우 /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 세계비엔날레협회 초대회장,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및 운영위원(1993~1998). 광주비엔날레(2004) 총감독 역임.

이추영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Who is Alice?〉(2013) 기획.

최빛나 / 네덜란드 유트레히트 미술 공간 카스코(Casco) 디렉터. 현재 아트콜레보레이토리 제휴 파트너.

호경윤 / 2013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부커미셔너. 〈출판_기념회〉전(2007) 기획. 월간 〈아트인컬처〉 편집장.




COREA